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얕은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가득 찬 것은 소리 없이 조용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18일)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지혜로 여는 신축년 새해

코로나19의 힘겨움 속에서도 새로운 한 해가 또 밝았다. 전 인류의 위기 속에서 밝은 신축년 새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지혜'가 필요하다. 강원도 양양 휴휴암 지혜관세음보살 뒤로 신축년을 밝히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동해용왕과 남순동자가 보살의 지혜를 기다린다. 붉은 해가 어둠을 밝히듯 신축년 새해는 지혜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우리의 힘겨운 시절을 밝혀주기를 합장으로 기원한다. **양양 휴휴암=박재완 기자**

언택트 신행 활성화… 선·명상으로 '치유'

2021년 신축년, 주목할 불교계 키워드

禪1200년 세미나·행사 다채
행정·신행 언택트 적극 활용
다양한 치유행사 잇달아 진행

신성민·노덕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혔다. 아직 코로나19라는 역병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지만, 한국불교는 다양한 사업으로 대중과 함께하려 한다. 2021년 주목할 불교계 이슈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禪 2021년은 해동 초조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선을 전래한 지 12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 중에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올해 11월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선 전래 1200주년을 맞아 '구산선문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추진한다.

한국선학회는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정도 스님(동국대 종학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선 전래 12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에는 참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도 열린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2021년 문경 봉암사에서 '제4회 간화선 대법회'를 추진한다. 현재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영진, 일오) 추인 후 수좌복지회 등과 준비에 한창이다.

간화선 대법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제1회는 서울 조계사, 2회는 대구 동화사, 3회는 부산 흥법사에서 이미 봉행된 바 있다. 이번 제4회 간화선 대법회는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되며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간화선 전래 1200주년을 기념하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도 겸해 열린다. 이와 함께 '간화선 특별집중수행'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간 진행된다.

선원 수좌스님들의 대표모임인 선원수좌회는 선수행 대중화를 위해 재가불자 수행조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지난해 7월 발족한 선주회다. 3000여 재가불자들로 구성된 선주회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과 함께 매월 둘째주 토요일 상원사에서 1박 2일 수련법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수좌스님들을 모시고 전국 순회법회를 비롯해 생활참선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오대산명상마을 옴뷔에서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 마련하는 간화선 집중수행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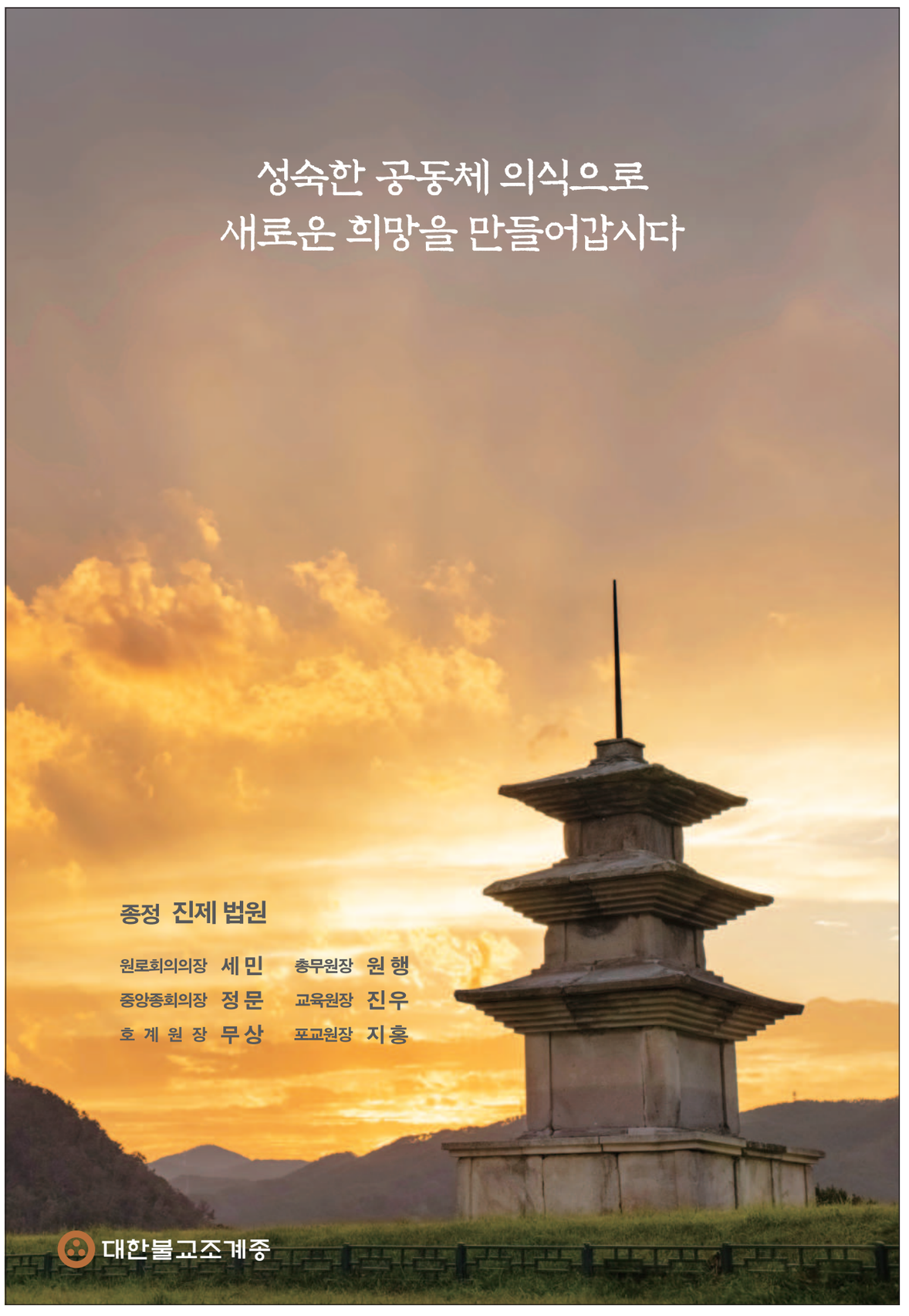
언택트 새해 언택트를 활용한 종무행정·포교신행 등의 변화는 가속화 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새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불자들의 정보를 망라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신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언택트로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정보공유를 통해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신도조직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신도들간의 협력과 불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망 구성 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2020년 선보였던 언택트 합동수계법회 등을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3월 진행 예정인 신입생 동아리 설명회 등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진행한다.

일선 사찰과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SNS포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2면에 계속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현대불교신문 달라집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유튜브 채널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뉴미디어 확장에 나섭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새롭게 리뉴얼합니다.



'Studio Gong' 채널 개설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 현대불교신문도 불자와 국민들의 힐링을 위해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을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소소한 불교 상식부터 우리네 사는 이야기, 제주도 풍경 뮤직비디오, 세계불교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아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현대불교신문 PC·모바일 홈페이지가 1월 초순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메인기사 노출도를 높였고,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 콘텐츠들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 버전도 함께 리뉴얼이 진행됐습니다.

카카오채널 등 SNS 활용

현대불교신문은 기사 게재·독자관리·후원홍보 등에 카카오채널(https://pf.kakao.com/_PqxllK)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yunbul)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불기 2565(2021)년 신년특집호
A · B · C 섹션 68면 발행


신년 데스크 초대석 A6~7
태고종 종정예하 지허 대종사


신년 진단 언택트 대담
정념 스님 · 석길암 · 민정희
A14~15

불교와 흰소 A27

신년법어 · 신년사 B11~13

신년 특집

불교, 기후 위기에 답하다 A9~11



한국禪 1200년 B1 · 2 · 3 · 6 · 7



THE PEOPLE 신축년이 기대되는 사람들


정순균 강남구청장
C1~2


지인스님 기쁨정사 주지
C3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C4~5


정영자 통도사 영축문학회장
C6


김유진 불교굿즈 크리에이터
C7

‘코로나+ing’… 조심스레 주요사업 기지개

2021년 신축년 주요 종단 · 단체 사업 살펴보니

코로나 확산에 신년행사 취소
조계종 12월 中 새 종정 추대
교구본사 3곳 주지 임기 만료
연등회 대규모 행렬 ‘장고 중’
인물 조명 세미나 다수 예정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는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랍 27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3일까지 유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주요 종단과 단체들의 신년행사다. 신년 초에는 종정예하 주석 사찰을 찾아 신년하례를 드리는 것이 관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적인 신년하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경우 1월 12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를 모시고 진행하는 신년하례법회를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원장급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봉행할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봉행됐던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는 연기될 전망이다. 품서 대상자가 50명 이상이어서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품서식 봉행 시기는 3월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매년 진행됐던 종단지도자 신년하례도 개최가 불투명하다. 종단협 관계자는 “현재 1월 26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 예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축소 등 여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불교계는 연등회를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존의 연등법회와 전시, 부대 행사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대규모 연등행렬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에는 주목할 만한 종단적 이슈들이 적지 않다. 먼저, 조계종의 신성(神聖)을 상징하는 종정 추대가 오는 12월 중에 이뤄진다. 조계종 종헌과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종정은 승납 45년, 세납 70세 법계 대종사인 행해가 원만한 비구여야 한다. 종정추대를 위한 종정추대회의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원로의장이 소집한다. 회의에는 원로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한다.


지난해 조계사에서 봉행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봉행이 불투명하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종정은 전계대화상을 위촉하며, 종헌 종법에 따라 포상과 징계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 제적 2/3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올해에는 제10교구본사 은해사와 제19교구본사 화엄사(5월), 제6교구본사 마곡사(9월)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가까운 주지 선출은 은해사다. 은해사는 차기 주지 후보 선출 위한 산중총회를 1월 15일 육화원에서 진행한다. 현 주지 돈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성로 스님이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조계종 현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 추진도 관심사다. 긴축 재정에도 결집 불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실제, 불교요양원 설계 예산으로는 3억 원이 책정됐으며, 계룡대 흥제사 건립 불사 예산으로는 20억 원이 배정됐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에는 36억 원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사업에는 1300만 원이 각각 편성된 바 있다.

주요 불교 단체들의 신년 계획에 중요한 변곡점은 코로나19다. 단체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행사를 준비 중이다.

주요 학회들은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특히 고승 조명 학술대회들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학회는 4월 16일 만화 희찬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구하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사학회는 보조국사 지눌과 선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추진한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은 올해에도 대행선사의 선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6월 19일 개최한다. 또한 학회 학술지 〈한마음연구〉 등재지 지원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묘공학술상,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진행된다.

각 사회단체들은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 인식개선 및 개인 실천을 이끌어 온 불교기후행동이 2021년에는 조계종 등 주요종단과 전국 교구본사 등 연대를 통한 범위확대에 주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불교계 안팎의 공동연대 및 대응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별받는 모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연대, 사회통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을 예의주시하며 발의를 저지하고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나눔의집 이사들, ‘혐의없음’ 불기소 송치

남부경찰청, 구랍 18일 통보

지난해 6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하 나눔의 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송치했다. 이는 “법인 이사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해 온 일부 내부직원들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경찰조사 결과 이사들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주목된다.

나눔의집 측은 12월 18일 “전 · 현직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기 등 비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관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기부금 모집 미등록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해 나눔의 집 대표자에 대해서는 양벌규정(법인의 직원 · 사용인 등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대표자도 처벌하는 행정형벌)에 따라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눔의 집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학대하거나,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운영진이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만으로 나눔의 집을 꾸려 가다 보니 마음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지적받은 위법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집은 올 5월경 일부 내부 직원들이 나눔의집 이사들이 후원금을 유용하고 할머니들을 학대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광주시와 경기도청 감사 결과 횡령 및 사적 유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기도청이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현재 경기도청은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을 최종통보했으며, 이는 경찰 조사결과와 상반돼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A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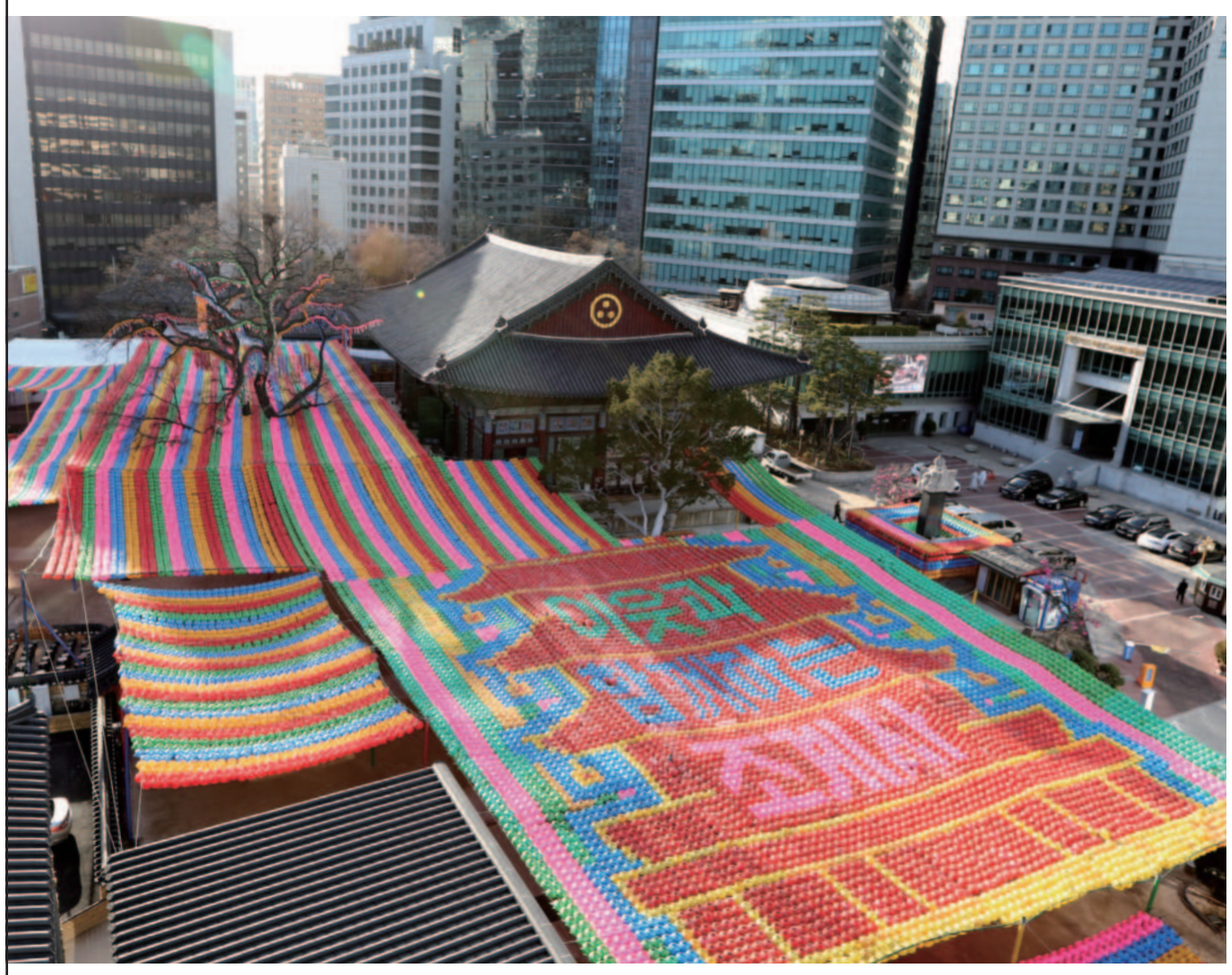
치유 코로나 블루로 칭해지는 국민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국민치유 행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새해 불교문화사업단은 사회공헌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힐링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도시락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명상페스티벌을 준비 중에 있다.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한 이번 페스티벌은 명상과 과학, IT, 심리상담 등이 접목돼 대중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화선 · 위빠사나와 같은 전통 수행과 새롭게 만들어진 응용 · 체험 명상법들도 소개될 예정이다. 동국대 명상페스티벌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내 중강당서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스마트 쉼 사업을 통해 각종 중독 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우울증과 각종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언택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살림법회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위로법회도 하반기에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축년 한 해,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POST CORONA 불교계는?

포스트코로나, 불교 '친환경 · IT'로 대응

한국불교학회 · 종학硏 · 불교사회硏 세미나 등서 담론 이어가



민정희

"불성론 해석, 생태윤리 구성"



최종석

"신도 공공성 강화 선결조건"



조기룡

"IT연등 도입, 사이버대 발전"



김응철

"촬영 등 새 신도교육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확산 일로 속 맞이하는 2021년, 불교계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친환경 · IT로 대응해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구랍 23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동계워크숍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종석 금강대 명예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불교철학의 지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한국불교의 역병 사례와 불교계의 해결책',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처장의 '기후변화에 대한 불교철학의 대응과 활로' 등이 발표됐다.

이날 민정희 사무총장은 "불자들 스스로 불교는 생태적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기후와 생태위기에서 관심을 갖고 행동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많지 않다. 생태위기 대응활동을 위해 연기설과 불성론의 재해석과 생태적 행동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종남 명예교수는 "보살의 공성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사찰이 소재한 지역 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생태 뿐만 아니라 인간환경 회복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와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구랍 17일 언택트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불교의 변화와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불교 시스템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학술대회서는 △조기룡 동국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사찰운영 방안'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도교육과 포교활성화 방안' △이필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시대,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등이 화상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먼저 조기룡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사찰운영 방안'에서 사찰의 공적 가치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기룡 교수는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로 칭해지는 시대, 뉴노멀의 핵심은 공공성, 공동선 실현"이라며 "사찰은 공적 영역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더욱 보여야 한다. 인권과 환경 등 사회 공적 가치에 더욱 부응하는 사찰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사 등에서도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 연등보시, IT와 접목한 온라인 종교체험을 통한 위로 등도 제안했다.

이어 조 교수는 "새 언택트 문화에서 사찰은 콘텐츠 구성의 훌륭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사찰만의 고유하면서 현대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크리에이터들의 양성과 섭외, IT에 친숙해지려는 스님들의 노력과 사이버 불교대학의 발전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도교육과 포교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신도교육과 전법교화의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전법교화를 실천하는 신도들 중 지도력을 갖춘 핵심신도가 보다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핵심신도들을 전문포교사로 키워내 전문영역에서 포교를 진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신도교육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신도교육은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전교육 외에도 실천과 체험의 교육이 증가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는 교육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김 교수는 SNS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영상촬영과 편집 등을 신도교육에도 포함시키고 SNS, 영상포교팀 등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필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불교의 사회적 실천방안이 중요하다. 사찰음식, 명상 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속 개발되어야 한다. 템플스테이 또한 국민치유에 활용 중이지만 코로나 확산을 대비해 비대면 운영 등도 개발하여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한국불교는 뉴노멀 사회에 분명한 방향타를 설정해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현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이를 불심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불교계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월정사, 새해 용맹정진기도 온라인 생중계

1월 1일~8일 168시간 기도
유튜브 채널서 실시간 공개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의 새해 용맹정진 철야기도 현장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새해 평안을 발원하기 위해 사찰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새해를 맞아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월 8일 오전 10시까지 7일간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불자와 국민의 지혜, 용기, 희망, 생명, 평화를 기원하는 용맹기도정진'을 봉행한다. 매일 24시간 총 168시간 동안 이어지는 정진기도는 월정사 대중 스님들이 집전하는 가운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진행된다. 특히 월정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이번 용맹기도정진을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를 통해 168시간 동안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공개한다.

월정사 측은 "스님들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맑혀 청정한 세상을 장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지극한 원력으로 기도 정진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과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도정진은 〈삼국유사(三國遺事)〉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 편의 내용에 근거해 봉행된다. 해당 자료는 삼국시대 오대산에서 화엄법회를 열어 청정한 스님이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도록 하며 나라의 화평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다는 기록이다. 월정사는 이 같은 전통을 이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불자와 국민을 위로하는 한편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구촌 인류가 불안과 고통의 시대에 직면해 살고 있으며, 그동안 물질문명과 과학문명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사(山寺)를 찾아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 월정사 스님들의 '새해맞이 용맹기도정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념 스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수행하고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연말연시에 가정이나 일터 등 각자의 공간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비암사 극락보전', 세종시 첫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발표
17세기 지역색 반영 평가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첫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비암사 극락보전'〈사진〉이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구랍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碑巖寺 極樂寶殿)'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12년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됐다.

비암사는 6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비암사에서 출토되었고, 지금까지도 비암사를 '삼한고찰(三韓古刹)'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의 창건 시기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여진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일반적인 측면 3칸형에서 벗어난 2칸형 불전으로, 전란 이후 사찰 경제가 축소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포의 구성은 크기에 따른 대첨차, 중첨차, 소첨차를 모두 사용한 특징을 보이며, 첨차를 배열한 방식, 내외부의 살미 모양 등에는 조선 중기 이후 다포 건축물에 보이는 특징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극락보전의 가구 구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는 측면 규모다. 보통 건물에서는 충량 1본을 두었으나, 극락보전은 충량을 좌우 협칸에 각각 3본씩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문화재청은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은 건물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비암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문학 · 스토리텔링 등 연재 대중성 강화

현대불교신문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대폭 강화했다. 논설위원들을 새로 교체하고 불교학 · 사회실천분야를 강화했다. 문학 · 문화 · 역사 · 스토리텔링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신규연재들도 확대했다. 신년 신규 필진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법장 스님


정운 스님


김형중


민정희

불교학·사회 분야 전문가 전문 오피니언 칼럼 강화

현대불교신문사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논설위원을 보강했다. 기존 필진 중 주경 스님 · 방영준 교수 · 석길암 교수 · 이화행 교수는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전문 필진을 모셨다.

법장 스님은 일본 하나조노 대학원에서 계율 전공으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교토 불교클럽 우수유학생상, 한국불교학회 학술진흥 최우수상, 일본 인도불교학회 학회상을 수상했다. 2018년부터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및 상주교수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운 스님은 1989년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 후 동국대 선학과에 입학,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지냈다. 2009년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전숲길(한권으로 읽는 경전)〉〈명상, 마음치유의 길〉〈경전의 힘〉〈인물로 보는 한국선사상사〉 등의 저서를 펴냈다.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한문교육을 전공했으며, 중국 연변대에서 〈휴정의 선시문학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국교법사단장, 동대부중 교감,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시교육청 교과서 심의위원, 동대부여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기후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이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 · 경제 · 사회정책위원 등을 맡고 있다.

문학

정찬주의 소설 '아쇼까대왕'



本紙에 '아쇼까대왕 유적기행'을 연재한 바 있는 정찬주 작가가 아쇼까왕의 흔적을 소설로 연재한다. 갠지즈강변의 신흥종교였던 불교를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바깥으로 전하는 데 크나큰 업적을 남겼던, 불자들에겐 벅찬 이름이 아닐 수 없는 아쇼까왕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난다.

문화

김혜신의 'Cinema Mandara'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카메라 필름 · 조명 · 사운드 등 근대 과학 기술의 급진적 발달로 탄생한 표현 도구를 이용하여, 영화작가가 그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작된 수많은 영화 중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은 무엇일까. 김혜신 평론가가 전하는 불교영화 해설들.

김종미의 '차(茶)와 사람을 잇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은 코로나 블루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과연 우리는 힘겨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좋은 차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철학으로 차와 사람을 이어온 김종미 교수가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차 생활'을 소개한다.

세계불교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미얀마 양곤대 오리엔탈학과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재희 씨가 올해는 미얀마를 움직이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미얀마 국민들의 존경받는 스님과 불교적 가치를 토대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등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들의 삶과 불교 이야기를 소개한다.

문화재 · 역사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세계를 놀라게 한 고려불화! 그 진면목은 무엇인가. 해외에 현존 작품이 약 98% 소장되어,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고려불화의 비밀. 그 비밀은 기상천외한 세부 묘사에 있다. 중진 불교미술사학자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약 7년 간 현지 촬영한, 생생한 세부 사진을 공개한다.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석보상절〉은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가 사망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한 부처님의 전기다. 유려한 문장 때문에 당시 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정작 〈석보상절〉에 담긴 의미를 살피지는 않았다. 〈석보상절〉 전문가 정진원 교수가 전하는 〈석보상절〉의 진면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교리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법화경〉은 〈반야경〉 〈유마경〉 〈화엄경〉과 함께 초기에 성립된 경전이다. 7권 28품으로 구성된 〈법화경〉은 모든 불교경전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수많은 민족들이 애호했던 대승경전이기도 하다.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역임한 반야불교연구원장 지안 스님이 〈법화경〉에 담긴 가르침을 독자 제호에게 전한다.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계율의 사전적 의미는 불자(佛者)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계는 깨끗하고 착한 습관을 익혀 지키기를 맹세하는 결의를 이르며, 율은 불교 교단의 규칙을 이른다. 불자라면 지켜야할 계율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불교학 박사 임상희 씨가 계율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전한다.

스토리텔링

박원자의 '母情佛心'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머니가 있었고, 우리가 아는 고승들도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내는 모정(母情)은 자비(慈悲)며, 불심(佛心)이다. 박원자 작가는 스님들의 출가기 등을 취재해 엮어낸 전문 라이프 스토리텔러다. 이번에는 자신이 만난 선지식들의 어머니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담마끼띠 스님이 마하위하라사원 주지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단상을 전한다. 특히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게재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호기심을 해소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 안에서'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모임 보리수아래 회원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코너다. 장애인불자들과 심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최명숙 대표가 불교와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는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를 통해 장애불자들과 함께하는 도반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한다.

'싯다르타 시대 문화읽기'



부처님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연재다. 누구도 정확한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상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불자로서 바라보는 불교가 아니라 학자가 바라보는 불교를 소개한다.

선문화

김호귀의 '한국禪 톺아보기'



김호귀의 '한국선 톺아보기'는 도의국사로부터 시작된 한국선 1200년을 맞아, 구산선문부터 한국선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기획이다. 동국대 선학과를 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로 재직중인 선 전문가 김호귀 교수의 글을 통해 한국 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여보자.

박희승의 '禪, 세상과 만나다'



박희승의 '禪 세상과 만나다'는 한국에 전래된 선문화의 현주소와 발전 상황,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연재다. 불교인재원 교수이자 선사상에 조예가 깊은 박희승 교수는 선 전래 1200주년을 맞아 지금 인류에게 선이 무엇인지, 선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문명사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의 지혜를 말한다.

수행 · 치유

유영일의 행복한 책읽기



유영일의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책읽기'는 〈지금 이순간을 살아라〉 〈내안의 나〉와 같은 번역, 기획자로 활동한 필자의 소개로 영성의 시대, 뉴클래식으로 자리잡은 마음수행에 관련된 책들의 면모를 소개한다. 행복한 책읽기는 글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신문 속 새로운 여행이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산스크리트어 모체로 현재까지 전해진 문자로써 신성한 언어문자로 칭해지는 실담범자 진언 다라니주 등은 한글과 닮아 51자로 구성 돼 있다. 이러한 실담범자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여년 동안 연구 매진한 안산 법륜사 주지 법헌 스님은 범어실담자 최고 학자로서, 범어 사경을 대중화시키고자 헌신 중이다.



studio GONG 구독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공

코로나 이전에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대세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힐링과 치유 프로그램이 대세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은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준비한 국민 힐링 채널이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부터 우리 곳곳의 사람사는 이야기까지. 불교 안팎의 다양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코로나 사태로 지친 우리들, 신축년 새해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과 함께 맞는 건 어떨까?

글 = 노덕현 기자 / 그래픽 = 송현석 PD



불·모·지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불교계 잡학의 신기원을 쓴다. 차원이 다른 TMI(Too Much Information)의 대향연.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불·모·지)는 현대불교신문사 신성민 취재부장의 재미있는 해설을 통해 그동안 불자들도 몰랐던 불교상식과 잡다한 정보를 전한다. 가끔은 분야를 넘나드는 지식을 통해 불교에 대한 세간의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도 함께 풀어낸다. 딱히 쓸데는 없지만 알아두면 가끔은 꺼내 볼 수 있는 신기한 수다 여행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불교계에서 유래없는 지식의 빅뱅이 매달 구독자들을 찾아가니 구독에 알람설정도 해달라고! 개봉박두!



피플 36.5

누구든 특별하지 않은 삶은 없다고 했다. '피플 36.5'는 우리사회에 깃들어 살아가는 각양각색의 삶을 진솔한 인터뷰로 만날 수 있는 코너다. 그 삶에 묻어나는 따뜻한 감성과 사람향기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화두를 던진다.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 일 수도 있고 그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 일 수 도 있다.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선 화제의 인물과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인물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구독자들은 때론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을, 때론 열정 넘치는 에너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해·불 (오늘의 해외 불교)

집안에만 콕 박혀 불교소식만 접하기도 지쳤다. 이제는 어떤 영상으로 무료함을 달래야 하나는 불자들이라면 '오늘의 해외불교'(오·해·불)를 주목하자. 한주 동안 일어난 세계 각국 불교의 소식을 정리해 소개해준다. 불교는 또 하나의 공동체로 그 곳에는 각국의 독특한 문화가 살아 숨 쉰다. 세계의 다양한 불교를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 삶의 모습을 통해 배워간다. 해외 불교 뉴스라고 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친절한 배경지식 설명과 함께 자막과 그래픽을 통해 뉴스를 보다 편하게 볼 수 있게 전한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 스님의 말씀을 통해 불교에서 전하는 삶의 지혜를 잔잔하게 전한다. 스님의 말씀은 어느 때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또 어느 때는 정겹고 따뜻한 속삭임으로 다가온다. 자칫 삶의 중심을 잃기 쉬운 오늘날의 일상 생활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무시로 찾아드는 욕망을 비우는 불교의 지혜를 영상을 통해 들어본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법문들이 지면을 통해서만 전달됐던 것에 비해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자세와 길잡이가 될 경구들을 엄선하여 전한다. 법문과 혜근 스님의 해설을 곁들여 어려운 선문답에 현실과 연관된 풍부한 해설을 달아 보는 이로 하여금 생활의 지침으로 삶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잇다 (it茶)

천연 원시림의 좋은 차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다. 차의 연결자 잇다 김종미 교수의 지도에 따라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보이차 고르는 법부터, 좋은 다기를 고르는 방법, 차의 인문학까지 두루 섭렵해보자. 혼자 생활하는 사람, 코로나19로 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취미로서 반려차, 차 생활 시작을 권한다. 김종미 교수의 차 강의를 듣다 보면 평범한 도시 속 공간도 천연 원시림으로 바뀐다. 차와 인문학, 차와 명상, 티스토리를 전달하는 재밌는 시간. 잇다 김종미 교수가 생활 속에 차가 착 붙을 수 있도록 격주로 구독자들을 찾아간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이산 현문

전계사	중산 혜남	보살선원장	천 진	포교국장	선 행
유 나	증 도	총무국장	종 현	호법국장	천 주
강 주	인 해	기획국장	지 범	박물관장	송 천
노 전	광 우	교무국장	인 경	원 주	범 용
율원장	덕 문	재무국장	현 담	농 감	서 일
염불원장	영 산	사회국장	성 오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萬法歸一 一歸何處… "마음법 일러준 평생 화두"

〈만법귀일 일귀하처〉



데스크초대석 | 지허 스님 태고종 제20세 종정

대담=김주일 본지 편집국장
정리=송지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신축년 새해를 맞아 순천 선암사 경내 대각암 종정원에 주석중인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 스님을 친견하고,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나아갈 길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다. 지허 스님은 소탈하고 천진한 미소 이면에 묵직함을 지닌 외유내강의 선지식이었다. 15세에 출가한 이후 오롯이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지허 스님.

이름처럼 맑고 청명한 기운의 직접 덖은 '천강월차' 한잔과 함께한 소참 법문을 지면에 옮긴다. 〈편집자주〉

약인수도도불행(若人修道道不行)이나,
만반사견경두생(萬般邪見競頭生)이로다.
지검출래무일물(智劍出來無一物)이나,
명두미현암두명(明頭未現暗頭明)이로다.

누가 도를 닦는다 하면 닦아지지 않는다.
온갖 그릇된 소견만 다투어 일어날 뿐
지혜의 칼 빼내 남기지 말고 베어 버려야
밝음이 나타나기 전에 어둠이 밝아지리라.

"여러분이 산 신심을 일으키고 산 분심을 일으켜, 언젠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도인이 나와 세상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된 지허 스님의 첫 일갈이다. 스님은 종정 수락 법어를 통해 수행자의 근본 지향점이 '견성성불'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종도들로 하여금 부단한 정진에 매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국불교를 이끄는 양대 산맥 중 하나인 태고종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본래 면목을 강조한 스님의 법어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지허 종정 스님은 손꼽히는 선승이다. 15세에 선암사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등 제방선원과 통영 미래사와 비로암 토굴 등지서 용맹정진해 일가를 이뤘다. 특히 종파를 초월해 고암 · 경봉 · 전강 · 구산 스님 등 당대 제방의 큰 스님들로부터 가르침과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내홍으로 흔들린 태고종 종지종풍이 다시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지허 스님을 일컬어 한 태고종 중진 스님은 "태고종의 정신을 상징할 뿐 아니라, 지계를 겸비한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스님은 "체구도 작고 천진한 웃음을 지닌 분이지만, 친견해 몇 말씀 들어보면 그가 왜 '작은 거인'이라고 칭해지는지, 그 이유를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종정원 다실서 천강월차 한잔과 함께 건낸 지허 스님의 법문은 남달랐다.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정진과 순간순간의 환희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럼에도 인자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으며, 한편으로 한국불교와 태고종의 미래를 향한 애정 어린 가르침은 더없이 묵직했다.

"출가? 개인 사정이지, 뭘" 출가 인연을 묻는 첫 질문부터 특유의 천진 미소가 피어났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스님의 뇌리에 자리한 큰 화두였으나, 막상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선배의 죽음이었다. 중학교 3학년 초여름 친한 선배가 수면제 50알을 한 번에 먹고 세연을 접은 것.

"유서에 '無' 자 세 개를 써놨더라고. 충격을 많이 받았지. 화장하고 보니 당시 유행했던 파커 만년필과 허리띠 버클, 그 두 개만 달랑 남기고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그걸 보고 또 유서를 보니 참 삶이 허망하더라고."

허무함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곱씹고 또 곱씹던 중 문득 생각 하나가 스쳤다. "아,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뭘까?"

1955년, 15세 염세주의적 소년은 선암사에서 무명초를 잘라냈다. 당시 일주문 석양 아래 은은히 울려 퍼지던 저녁 목탁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마음'을 찾겠다는 드높은 원력에도, 몸이 약한 행자는 앓아 눕기 일쑤였다. 어느 날엔 당시 조실인 선곡 스님 부름을 받고 칠전선원에 갔다. "너는 이제부터 차를 다려라" 다각 소임이 주어졌다. 그렇게 해서 평생의 도반인 '차'와의 첫 인연이 시작됐다.

"다각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된다기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매일 새벽 칠전 뒤에서 찻잎을 덖어 차를 만들고 우려내는 일이었죠. 그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대강 눈대중으로 했지. 그런데도 다 맛이 좋다고들 해. 지금 생각하니 진짜 차 맛이 좋았다기보다는 당시 나를 예뻐한 노장 스님들이 계속 중노릇하게 하려고 그랬지 싶어요.(웃음)"

다각 소임도 몇 달 하다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칠전선원 노장 스님들이 마시는 차의 양이 적지가 않았다. 차를 만들면 금새 없어졌다. 만들다 지쳐 다시 속퇴의 길을 떠올렸지만, 소임이 있기에 무책임하게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딱 3일간 마실 수 있는 차만 만들고 속퇴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도 3일치 양이 안되는거야. 거참, 만드는 족족 다 마셔버리니까. 내가 그때 차 3일치를 못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여기 있는 거에요. 무려 65년을. 그때 3일치만 다 만들었어도 그냥 가버릴 수 있었는데 말이야.(웃음) 참 인연이란 게 희한하지요."

몸이 약해 다각 소임을 맡았고, 3일치 차를 만들지 못해 절을 못떠난 어린 스님은 65년 세월이 지난 현재 태고종서 손꼽히는 선지식이자 법의 상징인 종정이 됐다.

"돌아보니 덧없고 다시 없을 요행의 길을 걸어왔어요. 출가해 중이 되고 한평생 수행자로 살아왔으니 지극한 행운이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에 미치지 못하기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허 스님이 팔순 노구에도 여전히 화두를 놓지 않은 이유다. 지허 스님은 "'중'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구하는 수행자여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목사가 성경 읽고 강연하듯이 스님들도 경전 외고 예불만 잘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스님은 성직자가 아니라 부처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부처가 되려면 수행 없이는 절대 안되요, 또 수행 속에 학문이 있지 않으면 대중에게 가 닿을 수가 없으니, 성직자 다움에만 치우치지 말고, 수행자로서 본질을 놓치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A7면에 계속

지허 종정 스님은… 15세 선암사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6년 선암사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래사 토굴 등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 · 경봉 · 전강 · 구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에 토굴을 짓고 3년 간 두문부출하며 수행에 전념한 지허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서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한국차문화 중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1979년 7월에는 순천 금둔사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 · 4 · 5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만다라천장 로비

요양병동

치유동산 약사여래불

(재)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입원대상자
- 치매, 뇌졸증, 당뇨 등 노인성 질환 환자
- 파킨슨병 등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
- 만성신경계 마비질환 환자
- 중증 질환자

♣ 호스피스병동 입원대상자
- 기대여명이 6개월 전후로 예견된 말기암 환자
-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암성통증 및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을 추천 받은 환자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라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석남사 부근)
요양병동 입원상담 대표번호 052)255-8400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상담 052)255-8457

“진정한 성찰, 코로나 위기와 우울감 타파 해법”

A6면에서 계속

Q. 다각 소임 보시면서 선곡 스님과의 인연도 남다르셨다는데. 용성 스님의 손상좌이고 당시 칠전 선원 조실이셨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어느 날 차를 갖다 드리는데 잠시 앉으라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세상에서 뭣이 제일 크냐’ 고 물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마음’ 이라고 답했죠. 애초부터 마음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고 〈초발심자경문〉도 〈사집〉〈경전〉도 결국은 마음 찾는 길이니까. 근데 스님께서 웃으시며 ‘마음이 어찌 제일 크냐, 하늘이 더 크지’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졌지요. ‘왜 하늘이 더 크다고 하셨을까. 마음이 커야 하늘이 큰데.’ 한 두달 있다가 다시 차를 갖고 갔어요. 그리고 물었지.

‘스님, 마음이 더 큰데 어찌 하늘이 크다고 하십니까.’ 한참을 차만 드시던 스님이 이윽고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차를 마셨다. 너는 안 마시지 않았느냐’ ‘네, 스님.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차는 네가 마셔야지’ ‘스님, 어떻게 하면 저도 제 차를 마실 수 있습니까?’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라. 이것이 네가 너의 차를 마실 수 있는 도리다.’ 선각 스님이 준 내 평생의 화두야. 강원을 졸업할 무렵, 스님이 다시 부르셔서 가 봤더니, 걸망을 준비하라시며 가사와 편지를 주셨어요. 합천 해인사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길로 해인사 용탑선원서 고암 스님을 2년 시봉하며 참선 공부를 했습니다.”

Q. 스님께서는 당대 큰스님들과 교류하고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행길에 남다른 가르침을 구한 스님이 적지 않았을 듯 합니다.

“경봉 스님과의 만남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경봉 스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도 명성이 대단했죠. 극락선원에 가서 대뜸 그랬지. ‘옛날 용성 스님이 제방선원에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일구(一句)를 일러라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를 랍니다.’

그리고는 ‘남산화(南山花) 북산홍(北山紅)이라. 남산의 꽃이 북쪽 산에 가서도 붉습니다’ 고 했지. ‘더 정진해라’ 하시더라고. 삼배 하고 문턱을 나서는데 ‘용성 스님이 없어 한이로다’ 하시데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우쭐함을 누르고 다시 들어가 ‘감사합니다’ 하며 삼배 올리고 나왔죠. 그리고는 한 10여년을 제방 선원을 돌며 만행했어요. 경봉 스님을 시작으로 고암 스님, 지월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을 모두 그때 친견했죠.”

Q. 여러 선원서 만행하며 수행하시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미래사와 비로암 등 토굴서 홀로 용맹정진을 하셨지요?

“선방서 대중과 함께 참선하면 대중의 치열함이 곧 수행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 10여년 선방을 돌며 참선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 화두가 한창 잘 들리는데 정해진 시간마다 죽비 치고 또 공양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대중을 떠나야겠구나 싶었지요.

통영 미래사로 갔어요. 미래사에는 서토굴과 동토굴이 있는데 서토굴은 효봉 스님의 출가처고, 동토굴은 구산 스님 정진처죠. 서토굴에 한 1년 좀 넘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1972~1973년 경인가, 30대 초반 무렵 선암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없던 비로암터에 작은 토굴을 하나 지어서 3년간 두문불출 했지. 사중서 한달에 한번 된장과 쌀 반말을 토굴 아래 비로대라는 돌에 두고 가기도 하고, 도토리, 고사리를 따먹기도 하면서 내내 앉아만 있었어요.”

Q. 실제로 비로암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순간 기러기가 구욱구욱하면서 산으로 날아가요. 하, 그 순간 뭐라고 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없는 공허로움이랄까. 그런 가없는 마음이 솟아. 말 그대로 천지가 다 무너져 내린 거지. 막대기로 마당에 지필을 새겼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써내려간거야.

천심비로화개홍(千深毘盧花開紅)이요
만리장천안성백(萬里長天雁聲白)이라.
용로중출청량월(鎔爐中出淸涼月)하니
삼라상두무영인(森羅相頭無影印)이로다



참부처가 되는 것은 강에 비친 달을 봐선 안되고 직접 달을 보는 것, 즉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부처가 되는 도리라고 강조하는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친구 죽음 통해 15세 때 선암사로 출가
비로암 토굴서 3년간 두문불출 수행해
금둔사 복원중창… 야생차대중화 앞장
코로나 사태, 인류 절제 삶살라는 경책



지허 종정 스님이 선암사 대각암 종정원에서 김주일 본지 편집국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로암은 천길이나 깊은데 꽃(진달래)은 피어 붉고
만리나 되는 너른 하늘에 기러기 소리 맑구나
용광로에서 서늘한 달이 뜨니
삼라만상은 머리 위에 그림자 없는 도장 찍었도다

Q. 마침내 화두를 타파하신 환희로운 순간입니다.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필을 휘갈겨두고 산을 내려오는데 보는 것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 길로 구산 스님이 조실로 계시는 삼일암을 찾아갔습니다. 머리가 길고 행색은 거지처럼 허망해도 삼배는 얌전히 하고 마주 앉았지.

‘어디서 왔냐’ 고 묻기에 ‘조계산 양지에서 왔다’ 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신은 음지에 산다는 의미라.(웃음) 몇 번 질답이 오갔지. 그리고 비로암에 갈겨두고 온 지필을 다시 써보였더니, 스님께서 손을 꽉 잡으시데요. 보니 또 가을이 한창이라. ‘스님, 가을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감도 익은 감도 떨어진다’ 고 하셔. ‘전 선감도 익은 감도 다 먹습니다’ 라 했지요.(웃음) 스님이 아주 환희스럽게 웃으셨어요. 이후에도 인연이 계속 이어졌죠.”

Q. 1979년 선암사 주지 소임 이후에는, 그간 수행에만 매진했던 바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셨는데요. 태고종단 소임도 맡으셨지요. 야생차밭을 일구시는가 하면, 당시 터만 남았던 금둔사 복원불사도 이뤄내셨습니다.

“당시 비로암서 3년 살다 선암사로 내려왔더니 조계종과 소유권 분쟁이 한창이더군요. 노장 스님들 명의로 법집행이 들어오니 절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주지를 맡았어. 임기가 원래 4년인데, 2년 좀 넘게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겠다고 관뒀지.(웃음) 그래도 나중에 다시 주지하면서 선암사 전각 복원불사도 꽤 했어요.

금둔사는 1979년 선암사 주지 소임 당시에 인연이 됐어요. 우연히 그 터에 방치된 탑과 불상을 봤지. 내내 마음이 쓰여서 결국 부처님 사진을 찍어 군청에 갔어요. 보물급 문화재인데 이렇게 방치중이니 바로 모셔달라면서,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인 200만원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한달쯤 지났나, 군청서 돈을 도로 돌려주고는 ‘스님이 불사하시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고 하대요. 그 길로 금둔사터 복원불사를 시작해서 탑도 세우고 부처님도 모셨지요.”

Q. 종정 스님 하면 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라져 가는 한국 야생차를 지켜내기 위해 직접 차밭을 일구시고 이를 토대로 한국차문화를 복원, 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예로부터 다선일미라 했습니다. 차와 선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참선 맛을 모르면 차의 맛도 몰라요. 차의 맛을 제대로 알려면 참선을 통해 깊은 수행의 경지에 들어야지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차가 몇시간이고 좌선을 하다가 마시는 차예요. 그 순간 마시는 한 잔의 차는 정말 기가 막히지요. 선다일여라, 요즘 선지식이 없고 스님들 공부가 시원찮은 것은 차를 안 마셔서 그런겁니다.(웃음)

Q. 스님께서는 어떤 종정이 되고자 하십니까?

“태고종 종조인 태고보우 스님께서 17세에 출가해 장흥 보림사까지 걸어와 참선을 시작했고 일생을 참선만 하신 분입니다. 이런 태고 스님의 종지종풍을 번창시키는 것이 우리 종단의 목표이자 종정으로서 제 개인의 목표입니다. 최근 태고종 선풍이 약하다고 하는데, 시절인연이 닿으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 믿습니다.”

Q.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새해 벽두 가르침을 주신다면요.

“한국의 전통을 계승해 온 불교의 강점을 확실히 알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분명 밝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류에게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경책이예요. 너무 방만하게 살지 말고 물질에 의존하지 말라는 경고지요. 이럴 때일수록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참나를 찾는 성찰이 작금에 닥친 위기와 개개인의 우울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韓國佛教太古宗

宗正指墟 예경실장 印峯

僧正院

僧正 德化,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 議長 道光
首席副議長 大隱
次席副議長 雪雲
議院 德山, 錦龍, 山翁, 泰宇, 性雨, 鏡潭, 覺林, 南坡 青山, 明月, 智弘, 雪山, 法宣, 吉祥, 智山, 保惠

中央宗會 議長 法潭
首席副議長 祥明
次席副議長 慧日

護法院長 智玄
副院長 觀正
委院 智淸, 普雲, 虎山, 淸山, 晩愚, 惺應, 六和

初審院長 九山
副院長 晩愚
委院 金輪, 德明, 碧岩, 法能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月峰
副委員長 法蓮
委院 鳳峰, 法一, 智海

總務院長 虎溟
副院長 善慧
總務部長 道惺
教務部長 正眼
財務部長 曉能
文化部長 圓悟
社會部長 峰震
弘報部長 晴空
糾正部長 眞華
校任·傳法部長 心圓
宗務委員 道宗

宗策委員長 智弘

教育院長 法眼
布教院長 法京
考試委員長 才弘
法規委員長 慧周
社會福祉院長 休完
東邦佛教大學學長 常眞
教學處長 哲悟

全國信徒會長 裵錫瑩
靑年會長 이승윤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Tel 02) 739-3450, Fax 02) 739-3470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
수석부의장 청명
부의장 혜일
종회의원 법륜, 정수, 송월, 혜담, 법윤, 혜신, 혜경, 원만, 정수, 보경, 법화심

종무원장 진성
부원장 도홍
총무국장 행담
교무국장 연수
규정국장 대공
포교국장 명각
재무국장 현진
문화국장 법진
사회국장 지오
교임국장 명현
주재기자 문선희

사부대중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장 혜정
부회장 혜안(보유자)
총무 정수
교무 법전
재무 지오
사무국장 법진

사부대중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 (부평리)
전화 : 031-527-1956, 1950~2 팩스 : 031-527-1958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봉선사템플스테이 2019년 템플스테이 우수운영사찰
참가문의 : 031-527-9969, 010-5262-9969
홈페이지 : www.bongsunsatemplestay.com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서성 초격 부주지 가산 선우

문화원장 오봉 종책실장 덕암 총무국장 보관 기획국장 도일
교무국장 법등 재무국장 혜복 사회국장 지공 복지국장 혜공
포교국장 보타 연수국장 혜아 문화특보 하만 대외특보 천산해
교구신도회장 벽송 김남명 봉선사신도회장 이도피안

사부대중일동

부설운영기관
연꽃유치원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장자어린이집 .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 구리시 실버인력뱅크
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

수행연금조성 '승보공양' 동참안내
공양중에 으뜸이라는 '승보공양'은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으로 부처님 재세시부터 전해온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자동이체 : 우리 1006-001-534062 봉선사승려복지회
동참문의 : 031-527-1956, 010-7357-1958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산 호 압 사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압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 (02)803-4779 Fax (02)891-0770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 산 사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낙산사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노인복지관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sksa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기 쁨 정 사

주지 지 인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9 TEL 031)974-8550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벽암 지홍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서주 태원
이 사 선효 성학 감 사 월암 덕상
이 사 장산 도업 감 사 대해 일광
이 사 월천 혜총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이 사 금아 혜국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이 사 장산 성춘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태 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 765-2701 / Fax. (02) 741-1385

대한불교조계종 금 강 정 사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 지 벽 암 지 홍
신도회장 정광자 김희남

사부대중일동



우.143332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 58(소하동) Tel 02)898-8200 Fax 02)898-1844 www.sejon.org




녹색연합 제공

인류 역사상 '6번째 대멸종' 향해 가나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태풍과 폭염, 폭우, 쓰나미와 대형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과 이로 인한 재난재해, 지난해 전 세계를 펜데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이 모두가 지구의 경고이자 기후 재앙을 알리는 서막이라는 시각이 많다.

산업혁명 이후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인류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대어, 개발이라는 명복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산업 확장에 매진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자재 및 도구로 전락시켰고, 지구가 가진 자정범위를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우를 범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행위로 인해 지구에 가장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 '공업(共業)'의 산물이다. 동시에 지구상에 발 딛고 살아 온 모든 생명들의 생존과 지구의 존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고 있다. 인류로 인해 지구는 멸망 위기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인과 사회의 급속한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지구와 인류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어쩌면 현 인류는 기후위기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른다.

〈편집자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구 온도 상승 막지 못하면
더이상 지구·인류 미래 없어
남극·북극의 빙하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동물들도 위기

전문가들은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지구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인류의 삶 형태가 바뀌는 역사적인 지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도 지구의 기온과 바다, 공기질의 화학적 성분까지 변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인류의 행위로 인해 지구는 태초부터 가져온 자정기능이 마비되고 자연 생태계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지구의 미래가 그만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방증이다. 급기야 5억년 지구역사상 6번째 대멸망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지구온도 상승임계점 1.5℃

지구 상승온도 1.5℃가 인류의 한계온도이자 임계점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경고다. 1.5℃가 상승할 경우 항시적 위험, 2℃ 상승시 회복력과 탄성력을 상실하고, 3℃ 상승시 파국적 혼돈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지구상 여섯 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기온은 약 1℃ 상승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인류에게 남은 기회는 0.5℃에 불과하다. IPCC 역시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이 0.5℃를 넘는다면 더이상 이를 억제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은 물론,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도 상승의 원인은 이산화탄소다.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지고 지구가 과하게 따뜻해져 생기는 문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구 기온이 1℃ 올라갈 경우, 대기 중 수증기량이 7% 증가한다. 기후 양상이 달라져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가뭄이나 폭우, 혹한 등 극단적 기후재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포화상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며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질 것이라는 경고다. 물부족·식량부족·해수면 상승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기후위기 현상

지난해 '북극 최후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 충격을 안겼다. 과학자들은 2035년에는 북극해의 빙하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구 기온 상승과 함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것이다. 남극 빙하가 녹는 속도 역시 최근 5년간 3배 이상 빨라졌다. 지난 1992년 이후 25년간 남극에서는 약 3조 톤의 빙하가 녹았고, 해수면은 약 8cm 상승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70년 해수면은 25cm~100cm까지도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 주요 해안 도시와 섬나라 국가는 침수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

해빙의 감소는 지구의 태양복사 반사율 감소로도 이어져, 결국 온실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영구동토층이 융해되면서 배출되는 탄소도 온실효과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지구 곳곳에 온실효과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지구 기온상승은 해수면 상승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류 생존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식량생산의 감소와 생명체들의 멸종, 물 부족 현상, 전염병의 증가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한국, '기후악당국가' 오명
파리 기후협정에도 무관심
대대적 에너지 전환 없다면
현인류, 마지막 세대될수도

죽어가는 동물들

지구온난화에 의한 생태환경의 변화로 이미 많은 생물들이 죽음에 직면해 있다.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극지방이다.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얇아진 탓에 사냥이 어려워진 곰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최근 북극곰이 굶주림으로 동족을 사냥하는 현상이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그 아래 서식하던 크릴새우가 사라지자 이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아델리펭귄이 집단 폐사한 사례도 대표적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같은 이유로 코끼리섬에서만 턱끈펭귄 7만 쌍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눈이 녹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철새들의 생존도 위태롭다. 번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치타와 자이언트 판다, 뱅갈호랑이, 바다거북 등이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동물로 거론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번식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해수면 상승으로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거북의 경우 모래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암수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상 생물 다양성은 이미 멸종 수준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분석이다.

기후악당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정)이 올해로 6주년을 맞았다. 파리협정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도 195개국 중 하나지만, 여전히 '기후깡패국가(climate villain)'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평가기구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2021년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61개국 가운데 53위에 랭크됐다. 2020년 58위에 머물렀던 데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큰 변화로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은 지구에 순환면적 3.5배를 요구할 만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사회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률도 세계적으로 높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가장 둔감하고 무관심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불기2565(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BONG EUN SA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연기적 세계관으로 대대적 전환 필요

기후위기, 불교가 답하다

② 대안, 불교에서 찾는다

기후위기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제기돼 온 모든 환경문제들의 총체적인 집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그동안 자연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분야별로 진행돼 온 그간의 환경운동들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화두 앞에서 아연실색한 채 좀처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그만큼 거대하고 포괄적인 문제이며, 개인의 실천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넘어선 전지구적이고 급박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문제 본질은 인간의 탐욕에 정당성을 부여한 물질문명의 폐해다. 이제 지구는 18세기 이후 인류를 지배해 온 물질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철학적인 성찰에 기반한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유다. 바로 이 지점에 불교의 역할이 있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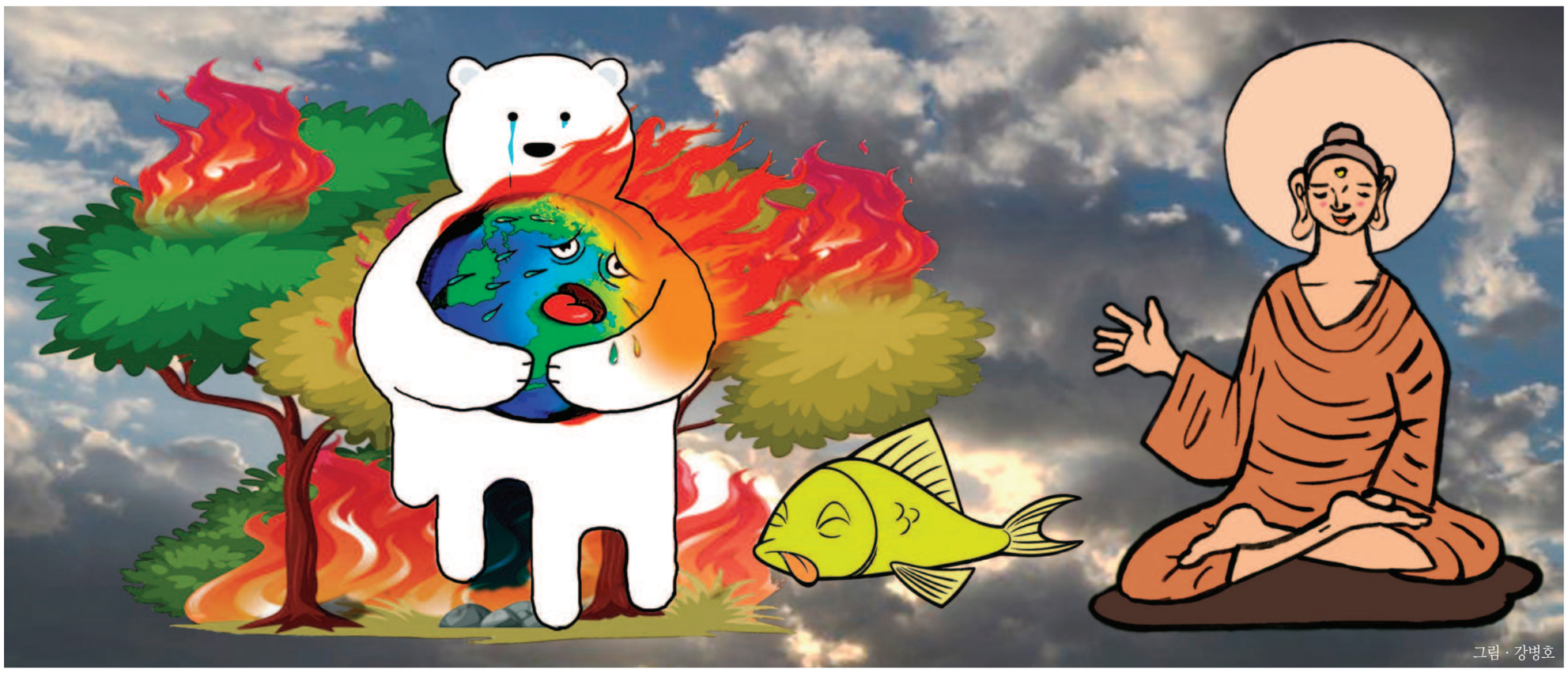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기후 위기는 거대한 담론
과거 환경 문제들의 총체
인본주의 가치 종말 예고
불교, 대안적 세계관 제시



틱낫한 스님



달라이 라마

불교적인 성찰이 대안 제시
인간 · 자연 하나임을 인식
달라이라마 · 틱낫한스님도
지속적인 관심 · 실천 촉구

불교의 핵심적 사상은 모든 존재를 상호적 관계로 통찰하는 '연기(緣起)'이다. 연기법은 '제법(諸法)'이라 칭해지는 모든 존재가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화엄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일체 법계가 인드라망의 그물과 같음을 아신다' 고 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온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코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인드라망의 씨줄과 날줄을 잇는 각각의 그물코가 우주법계와 연결돼 있듯이, 하나의 개체도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에 대한 생태적 통찰과 맥을 함께한다. 19세기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은 행태학에 대해 "유기체와 그 유기체들을 둘러싼 외부세계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이라고 정의했다. 생태학 역시 각각의 생물종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을 시스템 속에서 통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에(自他不二)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과 보살핌으로 대변되는 자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불보살이 중생을 향해 대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역시 동체대비(同體大悲), 중생과 자신이 동일체임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 불성(佛性)이 있으며,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을 삼계라는 가정의 가장이자 자비로운 아버지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사생자부(四生慈父)'다. 사생은 생명이 태어나는 네 가지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 간 차별이나 위계적 서열이 아닌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불교에서 중생은 육도를 윤회한다고 보는데 중생은 인간 뿐 아니라 유정(有情),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갖춘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다. 모든 중생이 윤회를 통해 형태를 달리하며 태어나기에, 현재의 동물도 전생에는 인간이었을 수 있고 인간 역시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모습은 인연관계에 따라 드러난 일시적인 모습이기에,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불교의 자연관은 '의정불이(依正不二)'로 대변된다.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곧 자연이며, 자연이 곧 인간인 동질성을 드러낸다.

"대체로 몸뚱이는 흙 · 물 · 불 · 바람이다. 강한 것은 흙이 되고 연한 것은 물이 되며, 더운 것은 불이 되고, 숨 쉬는 것은 바람이다. 목숨이 다해 혼신이 가고 4대가 각각 흩어지면 능히 보전할 것이 없으니 몸이 아니다."〈육도집경〉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하느니라. …. 때로는 산, 숲, 내, 강, 목,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며…."〈지장본원경〉

이처럼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인류가 반드시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혁명 이후 인류를 지배해 온 가치관인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과 차별된 가운데 지배적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금의 기후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됐다.

때문에 전지구의 위기 속에서 불교적 대안으로 '에코 다르마'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에코 다르마는 생태적인 관심에 불교의 가르침과 그에 연관된 영적 전통을 결합한 것이다.

불교학자이자 선수행자인 데이비드 로이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불광출판사)' 서문을 통해 "우리와 지구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지구와 관계맺는 방식 또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불교의 많은 가르침에는 생태적으로 적용할 것들이 있기에, 소비주의에 사로잡힌 삶은 불교의 길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들 역시 기후위기와 관련한 지속적인 발언으로 인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위기라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해 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방식'은 계속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세계를 바로잡고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며, 모든 인간과 모든 종을 위해 안전한 기후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이미 2010년대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2015년에는 "기후 변화 문제는 인류 전체의 책임"이라며 "'세계의 지붕'인 티베트 고원을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기후변화 캠페인'을 주도하며 수차례에 걸쳐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티베트 고원은 남극과 북극 다음으로 빙하가 많은 지역이지만, 지난 50년간 티베트 고원의 기온은 세계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1.3℃ 상승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해 7월에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7 가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세계 기상 이변 위기에 대해 긴급하고 단결된 조치'를 촉구한데 이어, "기후위기 문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며 70억 인류를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낫한 스님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유엔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낸 숨은 공로자로 평가된다.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이번 성과는 틱낫한 스님의 불교적 가르침 덕분이며 그는 기후협정의 영웅"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스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우리 안에서 지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채식식단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우리 초록별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모두 안다.…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끝없이 소비하며, 애써 종소리를 못 듣는 척 외면한다…우리는 깨어 있는 마음의 종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 지구별의 운명을 결정할 힘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상태를 모두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의 집단적 의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틱낫한 스님)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산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탁성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부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지현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일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원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지공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김진우(明眞) 법무사 이익렬(雲虛)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이재인)
부원장 혜 담(이정민)
국 장 불심화(정형숙)
무 용 무애심(박순애)
연 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 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종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채식·빈그릇 운동 전개…대정부정책 참여도

기후위기, 불교가 답하다

③ 과제와 실천방안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첫걸음은 '관심'이다. 사진은 지난해 '종교인기후행동'이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선언한 모습.

인류 역사상 유례없을 기후위기 상황에서, 불교 그리고 불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관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너무 거대해 자칫 내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방관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야기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를 인지하게 됐다면, 보다 깊은 관심으로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문제로 고통 받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과 연대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게 관련 활동가들의 조언이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과 연기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실천행이자, 우리 사회 나아가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일 것이다.

〈편집자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원인에 대한 관심 확대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이상할 정도로 적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와 폭염이 이어져도 관심은 그때 뿐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캐나다 국민들은 '전염병'보다 '기후변화'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 속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등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기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KBS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우리나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반수 이상인 51.7%가 '전염병'을 선택했다. 기후위기를 꼽은 응답자는 19.2%에 그쳤고 이어 17.7%가 경제위기를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른다기보다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실제 기후위기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86.9%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세대에 대해서는 '내 다음세대'라고 답한 사람이 52.7%, '손주세대'가 37.0%인 반면 '내 세대'는 8.6%에 그쳤다. 결국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알지만, 지금이 아닌 먼 훗날 닥쳐올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나와 내 가족의 문제'로 인식해야 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나마 끊어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교계 역시 불자들을 대상으로 인식확산과 실천을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활 속 실천 방안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일부 대중들을 중심으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패트병 분리배출 시엔 비닐을 제거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의 재활용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콘센트를 제거하는 등의 여러 방법도 인터넷상으로 공유된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다.

이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채식과 음식물쓰레기 제로운동이다. 특히 채식의 경우 이미 그 효용성이 상당히 증명된 방안이다. UN '토지 이용과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기와 유제품의 높은 소비율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며, 공장식 축산은 탄소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축산용지 확보를 위해 지구상 숲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숲은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채식주의는 지구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UN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육식 위주의 식단을 채식으로 전환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는 실천은 생각보다 많은 일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불교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찰이 살아온 문화형태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익숙하고, 불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주요종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 기후의위기 알지만
'내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연기·생명존중 가르침토대
불자들 역할 상당히 중요해
중생 위한 연대가 핵심과제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노력이 결집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조계종을 비롯한 교단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불자들, 나아가 국민을 대상으로 채식의 사회화, 빈그릇 운동 등 구체적인 실천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공동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정책·입법 촉구 운동

기후위기는 일부의 개인적인 실천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판단이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파리기후협약 등 전세계 국가의 정책적 실천을 권고하는 것도,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점점더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 탄소 순배출량 급감 등 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순적이게도 개인의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다. 실천하는 개인은 기후위기 극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실천하는 개인은 사회적 대전환을 이끄는 연대로 이어지며, 나아가 정부의 정책 전환과 입법화를 주도하는 힘이 된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대중들의 실천을 이끌고 그 실천을 여론으로 모아내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이유다.

일례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는 UN 산하 국제정부간협의체(ipcc)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협약의 일환이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즉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산림·토양 등을 통한 자연 흡수량이 같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측면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목소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즉 온실가스 다배출 요소인 산업구조, 즉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기업 차원의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해고가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탄소중립 선언문에 대해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우려를 드러내는 이유다.

민 사무총장은 "특히 고용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기후위기 대안의 향방을 결정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큰 틀에서의 정책부터 관련 입법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불자 개개인의 대사회 참여는 '나'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실천행에 있는 셈이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사) 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원로원장 성인 (대덕사)
규정원장 혜윤 (금강사)
교육원장 보현 (보광사)
포교원장 혜선 (효암사)
선 원 장 진보 (법등사)
문화원장 일락 (중산정사)
(사)법불교조계종종정사서실장
사무총장 본산 대성사 주지 성관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학산 직 지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Tel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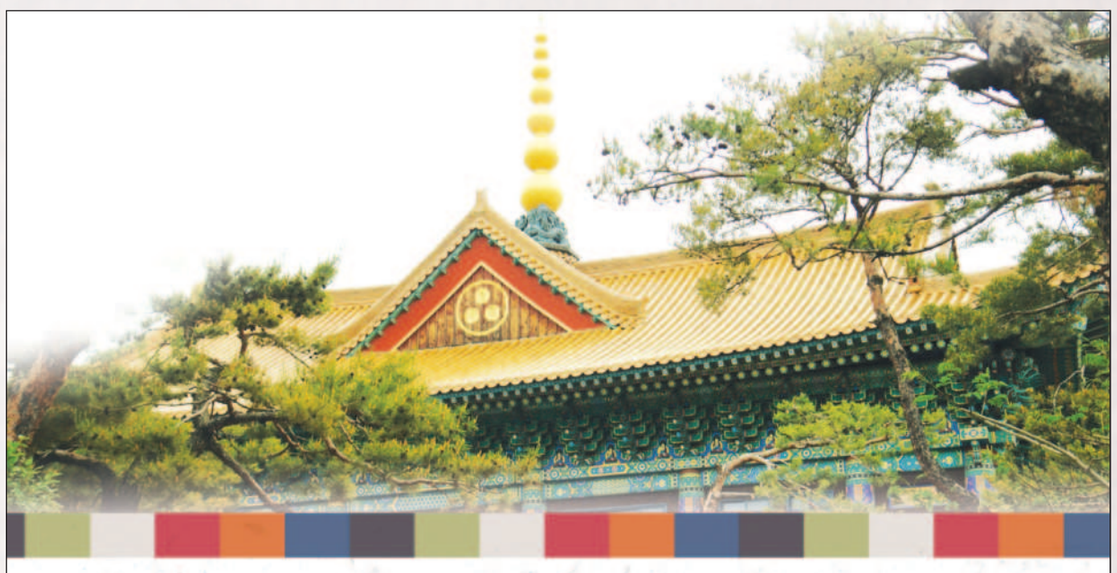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 구 지 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함께하는 불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 륜**

회원사찰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Tel:(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 음 사

원로의원 **삼이 우경**
주 지 **무소 허운**

교구 신도회장 **백련화**(김문자)
본사 신도회장 **도 경**(양방규)
화주단 도화주 **관음행**(양정임)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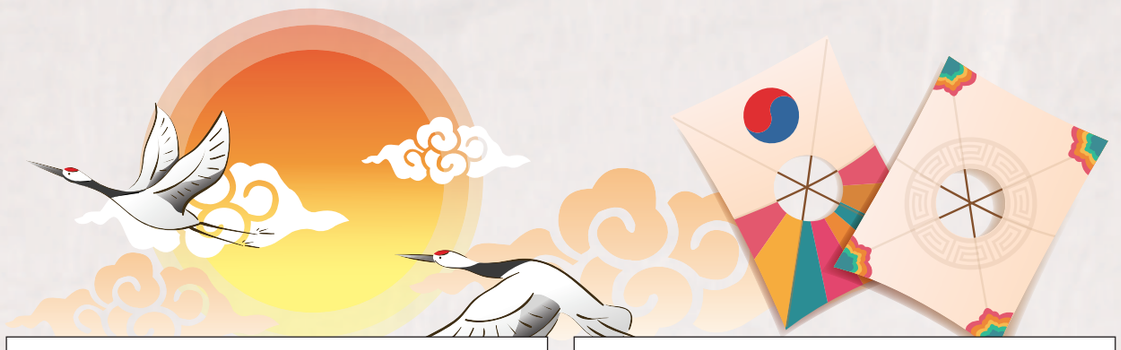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60
전화 064)724-6830 팩스 064)756-2202
www.jejugwaneumsa.or.kr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영천불교연합회

회장 **성 상**

회원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서문길 69 (교촌동 237)
Tel (054)334-3526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증 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부설)

우학스님의 유튜브강의
(생활법문, 경전·조사어록강의)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일선원 : 054)753-8228

高靈 Goryeong Roofing Tile Selection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054)954-8008(代) FAX.054)954-5335

원 진 사

주 지 **자 신**

납골당 봉안
수목장 안치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로438번길 108
Tel (054) 274-9443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보광명문화 장학재단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Tel 053)710-3700, 053)523-2886
Fax 053)252-2886

보 현 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1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회 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 진 규**

사부대중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 ~ 1
Fax 054)955-8202

연우개발(주)

대표이사

윤 상 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50-1, 302호
(두암동, 두암2차무등파크맨션 상가동)
TEL 062)262-0480 FAX 062)262-0481

신년 진단 언택트 대담

코로나 & 기후위기 & 4차산업

초연결사회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 시급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보세요

현대불교신문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한해 전망과 과제를 살피는 언택트 대담을 진행했다. 구랍 22일 이뤄진 언택트 대담의 진행은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대담자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민정희 국제기후종교네트워크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언택트 대담은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 스튜디오 공' 에서도 만날 수 있다.

(https://youtu.be/m0E5VVPqOdk)

정리=송지희 기자 · 영상편집=송현석 PD



현대불교신문사는 구랍 22일 2021년 한해를 전망하는 '신년 진단 언택트 대담' 을 진행했다. 사진은 대담을 진행하는 김주일 본지 편집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포스트코로나&불교

김주일 2020년 세계를 멈추게 만든 코로나 사태가 2021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신축년 불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시는지요.

정념 스님: 올 상반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이미 우리가 마주한 언택트, 비대면 문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소통 형태에 기반한 일상 문화들은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과학발달로 인한 문명 전환의 시대에서, 과거의 세계관에 매몰된 종교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지도력과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흐름 속에서 종교가 새로운 아젠다와 세계관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성 고갈의 시대, 세상은 더 큰 영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성 종교들이 과거의 문화나 양식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교적 가치를 토대로 힐링, 치유, 명상 등 새롭게 요구되는 가치로의 전환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석길암: 지난해 불교계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산문폐쇄 등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미 불자들의 종교행위와 신행생활에서 대면형태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했던 현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는 우리 불교계에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면 불교계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대한 빨리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위축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살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교계가 더 바짝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민정희: 코로나 사태 이후 사찰 재정난과 양극화 편차가 심화된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요. 신도들이 절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전국 사찰들에 재정적인 압박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비대면 문화가 제시되고 있는데, 정작 신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행활동을 대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의문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교신자 대부분은 고연령층입니다. 비대면 신행활동 혹은 법회, 교육에 접근하기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비대면 문화 접근성 실태에 대한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나 조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불교계는 여전히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막연하게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보다 체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김주일 관람료 수입에 의존했던 전통사찰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찰들은 재정 수입 구조 다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런지요.

정념 스님: 재정문제는 불교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주어진 화두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대면방식에 토대를 둔 보시금과 문화재관람료 등으로 예산을 확충하고 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찻집이나 불교용품점, 영농법인 등 사회와 함께하는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대안을 가지고 예산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죠. 전통적인 대면방식이 비대면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 오프라인 양측을 모두 활용한 예산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석길암: 재정수입 다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경영이지만, 사실 사찰 재정문제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찰은 국가가 아닌 불교의 사유재산입니다. 불교의 사유재산이 문화경관 혹은 자연경관으로 국가법에 의해 지정돼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찰과 사찰 주변환경은 불교계가 오랜 세월 지켜온 자산인만큼, 정부 혹은 우리사회가 이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더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죠.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 내 포함된 사찰이 많은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찰을 제약하는 규정도 문제입니다. 전통사찰은 불교공동체 또는 신행공동체가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온 공동체의 공간임에도 자연보존 위주로 묶어두고 있어요. 사찰이 묶여야 될 카테고리는 문화경관보존 카테고리이며, 전통사찰을 둘러싼 생태환경의 변화까지 포함한 카테고리로 변경되야 합니다. 변화된 제도 속에서 국민들이 함께 공감해야 사찰이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민정희: 석길암 교수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민 정서 및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국가나 정부로부터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에 따르는 자율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사찰마다 보시금의 차이가 있고 재정의 유무가 다른 상황임을 살펴볼 때, 사찰재정의 재분배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계종에 속한 사찰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따라서 재정이 많은 사찰은 재정이 적은 사찰을 지원하는 형태로 종단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김주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과 인력이 취약한 소형 사찰들과 대형 사찰들 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 런지요.

석길암: 코로나 사태가 꼭 대형사찰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교계가 공동체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소형사찰이든 대형사찰이든 가장 큰 문제는, 불교계에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단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모든 사찰, 그리고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응이 불교계 전체의 미래를 갈음할 것으로 봅니다.

정념 스님: 공동체 시스템에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단순하게 돌본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조계종의 경우 교구본사라는 행정관리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은 지역단위 거점사찰을 중심으로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찰 하나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현 불교계 상황에서 쉽지 않아요. 아무리 큰 사찰이 예산 많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춘 큰 사찰이 몇 개 되지 않는 것이 불교계 현실입니다. 때문에 교구본사가 잘 살펴서 최대한 보존 · 유지 · 계승될 수 있는 곳들은 별도 관리하면서 관리 효율과 예산을 살펴 뒷받침해야 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찰은 지역사회와 정부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일 코로나19가 불교에 던진 화두는 무엇이며 또 불교계는 한국사회, 그리고 지친 국민들을 위해 어떤 가치들을 제시해야 할까요?

A15면에 계속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辛丑年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사부대중일동

일요가족법회(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년회		토요일	오후 4시
나한대학생법회		일요일	오후 1시
학생회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회		일요일	오전10시
일요참선법회(수선회)		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철야정진(선우회)		토요일	오후 9시~새벽3시
불교대학		화~일요일	오후1시
열린시민선방		월~금요일	오전9시~9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수유동)
Tel. 02)902-2663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코로나 & 기후위기 & 4차산업

신년 진단 언택트 대담

영성 고갈 시대… 불교, '사회치유' 이끌어야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문명의 전환 외면해선 안돼
새로운 아젠다 제시 없다면
외면 받고 존재감도 가라져

영성치유 등 사회적 요구에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이 답
현대적 언어로 대중화 해야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코로나사태, 위기이자 기회
비대면 콘텐츠 개발도 시급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전통사찰의 환경보존 기여도
국가·국민으로부터 인정돼야
마음·문화 주도하는 해 되길



민정희 국제기후종교네트워크 사무총장

코로나 위기는 자연의 경고
너무 거대한 문제라 무관심
외면한다면 '인류공멸' 자명

4차 산업혁명에 의한 큰변화
인간 소외·우울감 심화될것
'마음'에 더 깊이 주목을 해야

A14면에서 계속

석길암: 불교가 새로운 가치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오래된 가치가 중요하죠. 불교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인식하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사회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다만 옳고 그름이라는 시비분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이 시대 불교가 줄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가르침이자,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강조돼야 하는 불교적 가치라고 봅니다.

민정희: 코로나 펜데믹의 근본 원인은 과거 신성하게 여겨졌던 영역에 대한 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이 대표적이죠. 그로 인해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해하지 않는 것, 바로 오계 중 '불살생' 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불교의 정신이 뭔지, 가치가 뭔지 대중에게 알리 수 없어요. 불살생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사회에 제시하고, 나아가 실천을 이끌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육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윤리적인 행동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행동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념 스님: 영성 고갈의 시대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또 물질중심으로 발전해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성은 자연스레 고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사회적 우울감에 고통 받고 있어요. 우리 사회공동체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것이 곧 종교의 관점이며 역할입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극단적인 개인주의 속에서 최소한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가치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불교가 우리 마음의 문제, 또 연기적 공동체관을 현대적 언어로 쉽고 대중적인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힐링 등 영성 회복과 치유 분야는 불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관점에서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 불교

김주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민정희: 인간이 지구상 나타난 이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과거에도 인간이 영향을 미친 것이 있긴 하지만, 공기나 바다의 화학적 성분 자체를 바꾸거나 지구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인 사례는 없었죠.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온도가 1.2℃ 정도 상승했고 해수면이 20cm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고 계절변화에 익숙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죠. 남반구의 경우 그 변화가 대단히 직접적이고 심각합니다. 인도의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자살이 6만5000건에 달하고,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식량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47% 밖에 안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기 때문이죠.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더 이상 식량공급을 중단하게 될 것이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김주일 기후위기, 사회적 무관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정희: 오히려 너무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불교계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대안으로서 '빈그릇 운동' 을 확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세계 배출되는 탄소량의 8%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불교계가 대사회적운동의 차원에서 캠페인이나 전환운동의 일환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념 스님: 환경 문제는 전지구촌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문제이나, 절박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죠. 궁극적으로는 종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생명의 문제이고 지구공동체의 문제이며, 모든 생명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탐·진·치라는 근본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현대 문명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종교계가 인식전환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곧 종교적 가치의 실현이기에, 불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 관심갖고 앞장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4차산업 & 불교

김주일 코로나19 확산이 4차산업 시대를 앞당겼다고 하죠. '언택트'로 대표되는 디지털 일상으로 전환은 향후 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망해주신다면.

정념 스님: 불교, 나아가 종교도 결국 우리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존재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물론 불교의 가치나 세계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유효한 사회관이겠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 정신적 영역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심리상태, 특히 우울증은 50% 이상이 될 것이란 진단이 많습니다. 결국 영성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죠. 영성이 고갈된 만큼 그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불교가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 그 지점에 불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석길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언택트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불교의 강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마음치유적 요소, 문화치유적 요소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불교에 강점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죠. 문제는 과연 불교의 대응과 준비인데, 대단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국 호기(好期)임에도 잘못하면 실기(失期)할 수 있습니다.

민정희: 과거는 인간으로부터 자연이 소외받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기계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자연히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속에서 종교적 해답에 의지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간 존재로서의 소외감에 대해 불교는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적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의 종교인 불교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김주일 언택트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해주십시오.

정념 스님: 언택트 시대에 걸 맞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구축은 우리 불교계의 중대한 과제죠. 데이터는 온라인·디지털 시스템의 연료와 같아서, 이것이 없다면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렵고 전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불교계가 앞으로 빅데이터에 근거한 포교 및 영향, 미래 예측을 통한 유무형의 기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오프라인의 존재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앉아서는 더 이상 대중과 만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쉼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도록 해야 하죠.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석길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대세를 뒤집긴 힘들죠. 초연결사회에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그에 걸맞게 활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스토리 콘텐츠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폭넓게 활용되는 가운데, 불교의 가치와 정신이 확산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은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 즉, 실제 공간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충분한 콘텐츠를 제공하되 그것이 불교계의 자원과 어떤 지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아주 조심스런 접근과 데이터 연구, 활용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종단이나 종립학교, 학술기관 등이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이 쉽도록 가공하는 것이 포교활성화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정희: 시민사회활동가이자 불교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생태·환경적 이슈와 관련해 경전 구절이나 사례, 스토리를 활용할 경우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대안 제시에 훨씬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접근이 단편적이고 쉽지 않아 아쉬움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데이터화 된다면 대단히 의미 있고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해수관음보살상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FAX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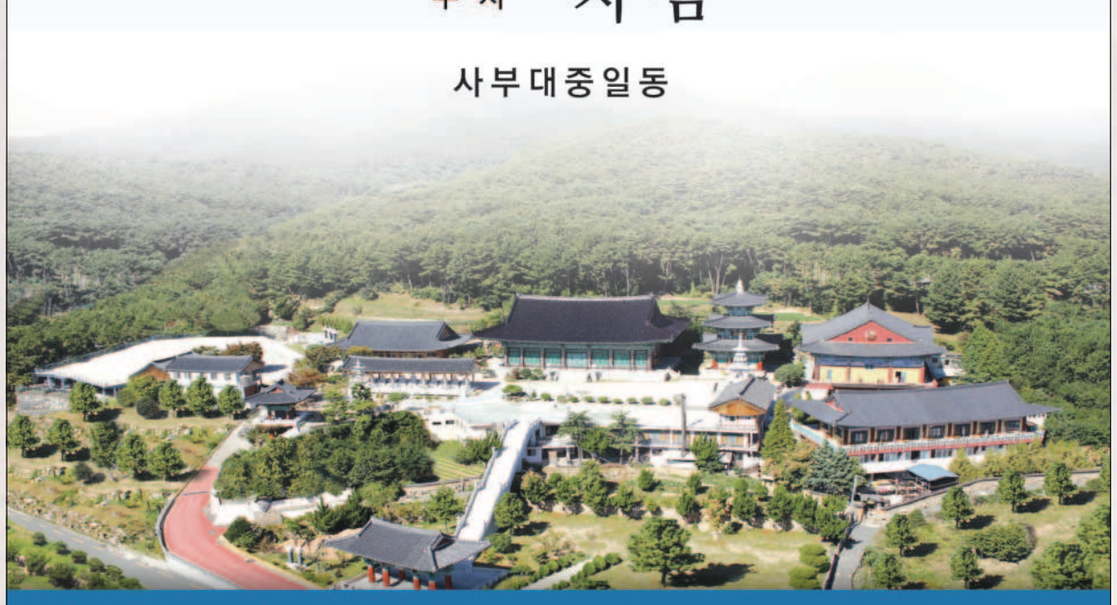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종정예하 주석도량

해운대 **해운정사**

주지 지삼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화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www.seon.or.kr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지 무관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051)727-2393

홍법

弘法寺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 산 深山 주지
양 재 생 신도회장
이 영 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금정구자원봉사센터 행복드림센터

부산불교교육대학

40년 전통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에*

새 지평을 열어가는 **명품 교육기관**

2021년 신입생 모집

- **불교엘리트 1기** (1년 , 목)
  - 연세대 신규탁 교수의 「화엄경」
  - 前 해인사 강주 보윤 스님의 「금강경」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불교학과** (1년, 월)
- **불교문화포교사** (수), **불교문화전문지도사** (금)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2021년 승려 연수교육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교 수 : 문일수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 일 정 : 8/30(월)~9/3일(금) 총 5일간
- 시 간 : 13:30~16:30

YouTube와 SNS입문과정 (6개월, 수)
- 승려 · 일반인 모두 수강 가능(오후2시~4시)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설 한마음유치원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진철** (숭림사)
회 장 **현엽** (청량사)
기획실장 **자인** (길상사)
수석부회장 **청원** (강서예술촌)
상임부회장 **연담** (용화사)
부 회 장 **정광** (문수암)
진종 (대성암)
사업본부장 **산해** (성불암)
감 사 **심행** (수능엄사)
사무총장 **평산** (산양사)
총무국장 **대일** (여여사)

강서구 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29 TEL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장 상 화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기장군을 기원하며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

회 장 **정오 스님** 외 회원스님일동
신도회장 **성환필** 외 임원일동 합장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28번길 77 고불사
Tel 051)721-2927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이 사 장 **박영근**
상임이사 **박희채**

이사 김성규 김경조 이인수 허장욱 조성두 안수근
이재동 강동수 김수일 강석진 김배경
감사 **서재형 고영배** 신도회장 **성재곤**
수석부회장 **오현주** 부 회 장 **이상수 이원옥**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TEL 051)626-4337, 624-7667 FAX 051)626-4330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림**

사부대중합장

맑은 마음 밝은 세상

CM 명상상담센터
CLEARMIND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TEL 051)253-8687~8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백옥 관음도량
6월에 수국이 아름다운 산사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전통사찰 **고 불 사**

회 주 **산 해**
주 지 **도 은**

개산77주년 및 제1회 만리향 및 상사화 축제
기간 : 9월 29일 ~

불교대학 : 매주 수요일
금강경강의(설법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안평역 3번 출구 700m 전화 051)721-2927 | 법당문의 010-3891-2137

사)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 혜**

동행장학회 회장 정원기
기장차문화대학 회장 이원숙
원장 김진옥
청량선문화원 원장 장외숙

문화사찰 청량사 주지 석 보혜 外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KUmuda
복합문화공간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옥상 바다법당(기도 및 명상공간), 옥상정원
8F 스위트
7F 쿠무다스테이 스탠다드
6F 스탠다드
5F 문화교육센터, 프론트, 인터넷방송국
4F 퓨전 레스토랑
3F 프렌치 레스토랑
2F Cafe KUmuda, 갤러리
1F 주차장 휴게시설
B1 문화예술 공연시설(220석 규모)
B2 KUmuda 사무국, 베이커리 교육공간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62
Tel. 051-701-7559

현재기준 2020년 12월 10일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1.8%

2019년 출자 배당률 3.5% 실현 !!



● 범천동 부산성의신협 빌딩

-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과)
- 출자금 1,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만 65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 신협 예적금은 신협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빠르고 편한 신협대출

● 담보대출, 신용대출, 햇살론 대출, 신협 8.15대출 취급



부산성의신협

연지지점 051) 816-7131
양정지점 051) 867-8321
초읍지점 051) 809-4154
범천지점 051) 633-9120
동래지점 051) 867-3641

평생어부바 신협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경호(법성사) 성비(영수암) 자문위원장 혜산(봉덕사)

회 장 성문(선광사)
수석부회 성림(관음사)
부 회 장 지관(약수암) 대둔(용운사) 무문(옥천사) 범일(운수사)
총무국장 법경(광명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사회국장 향공(견강암)
감 사 자륜(낙은사)

사상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장 심인택
신도부회장 전수택
신도회봉사회장 박유진

사상구불교연합회
연합신도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선광사) Tel. 051)303-4848

화합으로 포교에 앞장서는

부산진구 불교 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탄경 세운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여산 원타
부 회 장 지명 지원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월륜 춘제
총 무 해운 도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석만 도관, 대유 시광
무심 법지, 승호 원종, 원상 정사
보문 효진, 덕난 무애, 선각 운곡
안국, 법담, 상보, 지공, 지선
선혜, 원여 도경, 우당 무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교연합회

원로의원 월봉스님(효자암) 월광스님(금어암) 혜성스님(금강사)
자문위원 도문스님(전등사) 대원스님(금불사)
회 장 효문(효심사)
직전회장 자관(자비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법관(몽불사)
사무총장 용하(용문사)
재무국장 휴담(심불사)
감 사 법천(무량사) 법광(무량정사)
회 원 혜민(천불암) 안국(부전선원) 각진(법륜사) 무상(미타사) 유심(반야선원) 지훈(영주암) 성화(용와사) 지훈(해동암) 해륜(해륜정사) 혜인(참회지장사) 정훈(해동암) 취산(무량선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31
효심사 內 | Tel 051)558-2108

대한불교조계종

쇠미산 금용암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지곡로111(거제동) 전화 : 051)501-6300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광명사

주지스님 이개문
신도회장 이창욱
신도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1 T.051)581-1331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로사

조 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 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무경원 교무경무
재무경증 사회경동
포교경소 복지경지
연수경상 교육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 809-0926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강암

주 지 향공

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약수사

주 지 혜우
신도회장 김미자
총 무 김정녀

자비회 회원 일동



부산 사하구 감천로139번가길 41
TEL 051)291-9681

맑은소리맑은나라 |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월간·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불교의 삶에서 찾은 행복

맑은소리맑은나라 전문분야

법요집 · 사찰사보 · 불교단행본 · 불교기획물 출판 · 유튜브 제작

맑은소리맑은나라 부대 사업

불교 전문 전시 기획 · 산사음악회(이야기콘서트) 기획
불교 전문 작가의 그림과 사진으로 특화된 카렌다 기획 · 제작

[본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2 동방빌딩 4F
Tel. 051)244-0263, 255-0263 Fax. 051-255-0953 www.puremind-ms.com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1613호)

부처님 법 연꽃에 비유하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① 법화경의 특징

법화경은 화엄경과 더불어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경이다. 화엄경이 불(佛)을 설했다면 법화경은 법(法)을 설하여 두 경전이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을 다 설했다고 말해 왔다. 원래 이름 묘법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 온 예가 많았고 법화삼매참법 등 특별한 불교의식이 이 경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였다.

경명의 범어 이름은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Sadharma pundarika sutra)로 미묘한 법이 마치 연꽃이 물에서 자라되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푼다리카는 흰 연꽃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의 이름을 두고 말한 것이다. 한역본이 7역이 있는데 똑같은 원전을 의지하여 붙인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이 7역중 구마라습 역의 묘법연화경(406년 번역)7권과 축법호가 번역한 정법화경(286년 번역)10권과 수나라 때 사나굴다가 번역한 첨품묘법연화경(601년 번역)7권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널리 유통된 것은 구마라습의 역본이며 이 역본을 주해한 계환해본(戒環解本)이 널리 의용되어 왔다.

법화경은 한역본 외에도 범어본, 티베트본, 위구르어본, 서하어본, 몽고어본, 만주어본 등이 있어 다른 경전들 보다 일찍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물론 영역본도 나왔다.

"뭇 별 가운데 달이 으뜸이듯이 수많은 경전 가운데 법화경이 으뜸이다." 하여 법화경을 경중의 왕이라고 말해 오기까지 하였다.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되어 있다. 제1 서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드시니 하늘에서 가지가지 꽃이 뿌려지고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큰 광명을 놓으시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시니 미륵보살이 대중을 대표하여 문수보살에게 그러한 신통 변화가 생기는 까닭을 묻는다. 문수는 과거의 부처님들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반드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났으니 이제 또 그러하니 법화경을 설하실 게 틀림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법화경은 전반부 후반부를 적문(迹門) 본문(本門)으로 구분하여 그 대의를 찾기도 했다. 28품 가운데 제1 서품부터 제14 안락행품까지를 적문법문이라 하고 제15 종지용출품부터 제28 보현보살권발품까지를 본문법문이라 한다.

적문이란 자취를 남겼다는 뜻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세상에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말하는 것이요, 본문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응신불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근본 원인과 보처의 본체를 밝힌 법문을 말한다.

적문 법문에서는 방편품이 가장 중요하고 본문 법문에서는 여래수량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왔다. 또 전체 28품 가운데 예로부터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여래수량품, 약왕보살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의 7품을 법화경 요품이라 하여 다른 품보다 더 중요시 여겨왔다.

법화경의 법문을 실교법문(實敎法門)이라 일컫듯이 대승의 요의인 제법실상과 일불승(一佛乘)의 이치를 드러낸 법문이라 한다. 이를 회삼승 귀일승(會三乘 歸一乘)이라는 말로 대의를 나타내왔다. 광대하고 심심한 일승 실상법으로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한다는 요지에서, 방편으로 설해진 권교법문인 삼승법을 회통해 일승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어떠한 것도 구경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화경의 특징은 신앙적 측면의 종교성과 교리적 측면의 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종합되어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승의 보살 원력이 법화경 수지로 비롯된다는 상징적 법문도 설해져 있다. 일체중생 모두를 성불의 길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원력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해 놓고 있다. 법화경의 내용을 숫자로 간추려 표현해 온 말이 있다. 일승(一乘), 이문(二門) 삼주(三周), 사행(四行), 오사(五師), 육공(六功), 칠유(七喩), 팔보(八喜), 구유(九喩), 십여시(十如是)로 정리하여 이를 통해 법화경의 내용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五戒, '다섯 가지 큰 결심'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① 새해의 큰 결심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우울했던 한 해가 지나고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이, 장밋빛 희망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 지난해에 아쉬웠던 점들을 새해에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이를테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해 결심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아마도 실천하기 힘든 목표를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성급한 마음이 더해져서 몇 번의 시도로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해마다 번번이 실패하지만, 이런 결심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습관으로 인해 그것을 쉽사리 실천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폭식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눈앞의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성적으로는 폭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어떤 이는 이성적인 판단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압도당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불교 용어 가운데 습기(習氣, ⓢ vāsanā)의 뜻을 알면 금방 수긍할 것이다. 애초에 아무런 향기도 없는 의복에 꽃의 향기를 옮기면 그 향기가 배어든다. 향기가 의복에 배어들듯이, 경험이 무의식(=알라야식)에 뭔가의 형태로 배어 들어간다. 그렇게 배어든 경험, 즉 경험의 잠복 형태가 바로 습기이며, 그것은 미래의 경험을 산출해간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결심은 깊숙이 숨어 있는 경험으로 인해 쉽사리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해 결심을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큰 결심'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새해 결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단한 노력이 '큰 결심'을 실천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선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진 욕구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통제력을 높여야만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교의 계율(戒律)이다. 왜냐하면 초심자는 무의식중에 터져 나오는 본능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결심'을 되새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결심은 습관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변화된 행동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불자가 수지(受持)해야 하는 오계(五戒), 즉 다섯 가지 금지사항도 '다섯 가지 결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심을 되새겨서 계속 반복한다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다섯 가지 결심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에 다섯 가지 결심을 되새긴다면, 적어도 악행(惡行)이라는 구렁텅이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직 모르지만, 새로운 결심으로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타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① 연재를 시작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불과 2, 3년 전이었다. 불교학자 데이비드 드루스(David Drewes)는 국제불교학회지(JIABS)에 석가모니 붓다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신선한 점은 그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가장 공신력 있는 불교학술지에 실렸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중앙아시아와 티벳불교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벡위드(Christopher Beckwith)는 프린스턴 대학출판사에서 '그리스인 붓다'를 출간했다. 벡위드는 여기서 석가모니가 룸비니에서 태어나 비하르 지방 근처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아니라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역의 이란인이라고 주장했다. 벡위드가 한국을 방문해 그의 주장을 피력할 때, 필자는 우연히 그를 대회장에서 논평할 기회가 있었다.

두 학자는 꽤 저명한 학자이며 신뢰할만한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기고해왔던 터라 이들의 돌발적인 주장에 한국의 불교학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고사하고 해외 학계조차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침묵했다. 무시한 것이거나 그럴 리가 없다는 심증이 더 강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들은 거의 2백 년 전 불교연구가 시작될 무렵 유럽의 학자들이 논의해왔던 아주 구태한 주제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불연 이기영 선생이 늘 영민한 학자로 칭찬해 마지않았던,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는 최근의 책, '일천번의 삶을 살았던 붓다'를 통해 위의 학자들과 같은 극단적인 회의론의 전선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르는 붓다의 일생이라는 것이 전설의 문턱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 전설의 의미는 허구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반복해서 읽을 만한 이야기 꺼리를 의미할 것이다. 어쨌든 붓다의 일생은 오랜 창작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석가모니 붓다의 '역사적' 일생을 기술할 수 없다는 속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학자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자 커밍아웃일는지 모른다.

솔직히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교학자들의 글을 달갑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이 도전받거나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곤 한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할 때 더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상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의심하거나 그 근거를 되돌아본 적이 있던가. 석가모니는 정말 룸비니에서 탄생했을까, 그의 부모는 정말 정반왕과 마야부인이었을까, 그는 베다를 공부했을까.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 어떤 근거로. 누군가는 해외 학술서를 뒤적이고 조금 더 부지런한 불교인은 산스크리트 경전이나 팔리 경전을 뒤적여볼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일 것이다. 그 정보들의 근거는 과연 신뢰할만한 것일까. 불교학자들의 임무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일이다. 불교학자들이 하는 일은 심지어 경전 자체를 의심하는 일이며, 룸비니에서 출토된 토기가 진품인지 후대의 모사품인지를 검토하는 일 따위도 포함된다. 불교학은 불교를 위한 시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연재를 통해 필자에게 던져진 요청은, 고타마 싯다르타 당시의 사회적 풍속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싯다르타는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사회적 구조와 사상적 풍토 속에서 그가 살아왔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질문은 사실 대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세계의 어떤 불교학자도 이에 관해서 확정적인 대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최소한의 개연성 있는 대답이 어떤 것인지는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개연성 있는 대답은 때때로 우리가 읽는 경전과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경전도 역시 후대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을지언정,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범행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주제2본산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15층,14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치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중앙대로 1070 ☎ 042-525-5325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062)279-3332

대한불교조계종

보 은 사

주지 **도 제**

보은사 법회안내

- 일요가족법회 : 일요일 오전 11시
- 어린이법회 : 토요일 오후 2시
- 경전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목련합창단 : 매주 수요일 1시
- 아함경강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7월 개강 예정)
- 불교입문(기본교리) 모집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7월 개강 예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108
062)954-440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TEL 062)226-0108 FAX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법 공**

신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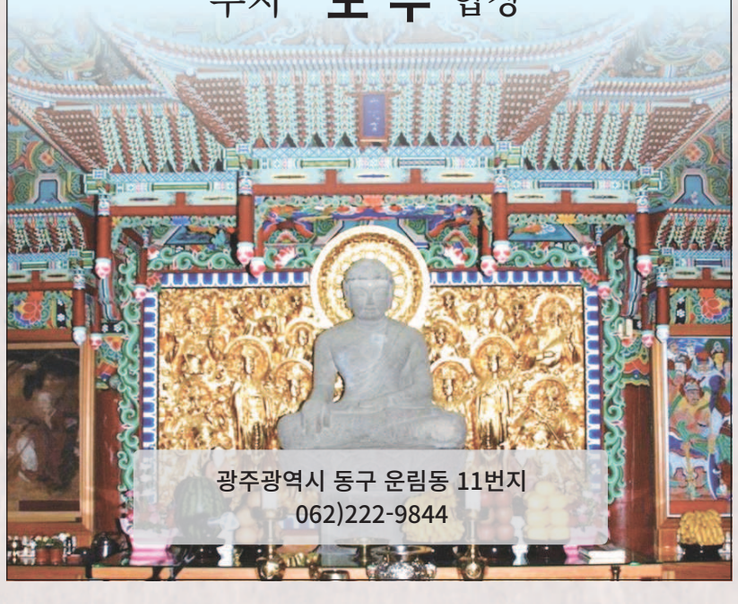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061)554-2634

무등산 소원성취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주 **범 종**
주지 **도 무**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천불천탑(千佛千塔) 도량

주 지 **무 안**

사부대중일동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종무소 061-374-0660, www.unjusa.kr
템플스테이 010-5850-0661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추운 겨울, 자비나눔으로 온기 전해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연탄 2만장 · 김장김치 3500kg 전달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구랍 23일 사랑의 연탄 및 김장김치 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대표 박수관)은 구랍 23일 사랑의 연탄 및 김장김치 전달식을 진행했다. 연탄은 총 2만장이며 김장김치는 3500kg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300만원에 해당한다.

연탄 나눔을 위해 동참 회원들은 직접 장갑을 끼고 배달도 자처했다. 연탄 배달을 마무리 하자 해당 세대 어르신이 현장으로 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을 본 회원들은 건강하시라며 인사했고 박수관 회장은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성금을 즉석에서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선사했다.

연탄은 부산진구 부암동 노인 부부세대(부산진구 백양대로 42번가길 30)에 배달됐고 전문 업체가 소외 이웃 및 독거어르신 등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장김치는 부산진구청에 전달됐으며, 구청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 총350세대에게 전달한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동참했다. 박수관 회장은 이번 나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랑의 연탄과 김장김치 전달 행사는 코로나19와 장기 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제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며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줘야한다며 박수관 회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서은숙 구청장은 "너무나 힘든 시기이다. 어르신들에게 나눔으로 위로해주신 회장님과 임원진들께 감사하다"며 "나눔의 크기도 넉넉해서 부산진구 모두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기부와 봉사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매년 장학금 전달,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성품 전달, 섬마을 의료봉사, 사랑의 연탄 및 김치 전달, 설과 추석맞이 이웃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락서암은 구랍 23일 대학생 등 16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전달됐다.

제2회 락서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부산 서구 동대신1동에 위치한 락서암이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불사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락서암(주지 수월)은 구랍 23일 락서암 대웅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대학생 5명, 고등학생 7명, 초등학생 4명 등 16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전달됐다.

학생들은 불자로 신행생활을 하며 선한 활동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추천받아 선별했다.

주지 수월 스님은 학생들에게 "바르게 마음을 잡고 말하고 행동하면 주변에 아무도 적이 없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면 아무것도 어긋나는 것이 없다"며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시라"며 격려를 전했다.

한편, 락서암은 자비 나눔을 위해 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처로 활동해 왔다. 인연이 된 어르신이 사찰에서 쉴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했으며 마지막 장례 의식까지 집전해 따뜻한 회향을 선사했다. 장학금은 주지 수월 스님이 일체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화엄승가회, 부산불교교육대 등 전기요 나눔



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구랍 17일 부산 영도구청 소회의실에서 '희망 2021 행복나눔 전기요 전달식'을 개최했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와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구랍 17일 부산 영도구청 소회의실에서 '희망 2021 행복나눔 전기요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기요는 총 200장(1000만원 상당)이며 전기요는 화엄승가회 스님들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재학생과 동문, 용석사 주지 일공 스님 등 스님들과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전달식은 인사말 및 전기요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상임부회장 일공 스님(용석사 주지) 및 회원 스님들과 김철훈 영도구청장을 비롯해 권혁란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장, 김진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회장 등 20여명이 동참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신 한 번 더 감사하며 영도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전기요처럼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고 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석사, 새터민에게 방한품 선물



용석사(주지 일공)는 구랍 23일 용석사 경내에서 새터민을 위한 전기요 전달식을 개최했다.

용석사는 새터민 31가구에 총 33개의 전기요를 전달했으며 전달식은 △개회사 △내빈소개 △인사말 △전기요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용석사 주지 일공, 원주 정현 스님, 안천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영도구협의회 수석부회장, 관내 새터민 등이 참석했다.

주지 일공 스님은 "고향을 떠나서 멀고 먼 곳으로 와 외롭고 힘이 들 것이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녹이시라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행복한 나날 보내시고 앞으로 여러분과 인연은 소중히 이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선운사복지재단 독거노인에 난방품 전달



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이 위기 및 독거어르신 지원을 위한 겨울난방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구랍 23일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조계종선운사복지재단 법인대표이사 경우 스님, 유기상 고창군수, 프로그텍서비스 변지훈 대표, 지원대상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지원물품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전지장판, 겨울이불, 김장김치 등으로 위기 및 독거어르신 184여 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선운사복지재단은 고창군 14개 읍면 독거어르신 4,530명을 대상으로 초콜릿 1,000박스와 1500만원 상당의 마스크도 전달했다.

경우 스님은 "코로나19로 개별 복지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찾아가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구랍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나눔의 온도에 온기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協, 백설기 떡 나눔



전주교도소교정협의회(협회장 진성.태고종 전북종무원장)는 구랍 18일 전주교도소에 1400명분의 백설기 떡을 전달했다.

기독교, 천주교와 함께 전달된 사랑의 백설기 전달식에는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명예회장 오성택 목사, 부회장 허동은 목사, 기독교 위원장 이계하 목사, 천주교 유영신부, 교정협의회장 진성 스님, 수석부회장 원불교 안현숙 교무, 사무국장 남상준 위원 등 교정협의 회원들과 최병록 전주교도소장을 비롯한 전주교도소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백설기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면회가 금지되는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정된 자아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한편 고향의 떡맛을 보여줌으로서 선한 마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성 스님은 "종파를 초월하여 다종교 시대에서 상호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준 종교분과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대원사, 동지 자비나눔 실천



대구 북구 학정동 신행기도 도량 대원사(주지 현정)는 구랍 21일 동지날에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대원사 주지 현정 스님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작은 정성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길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물품은 라면 300박스, 찹살떡 ,팥죽 300인분으로 관내 소방서, 동사무소 등에 전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021 謹賀新年 신축년

'恒明의 誦'

"일심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라.
무슨 일이든 순하게 받아들여
지혜의 눈을 떠라.
혜안을 열어 앞날을 밝게 보라.
신심을 부동으로 하라.
강하게 하라."

- 개조 이또 신죠 -

南無 眞如 Shinsoji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은 나를 이끌어
번민의 구름을 없애주시네
믿는 마음에 보여주시는
깊은 자비에 감사하자
기도하라, 기도하라
깊은 자비에 南無眞如

- 원주(苑主) 희망의 노래 -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0개국 42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거제 총명사

주지 호 석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용문사

주지 지 각

사부대중일동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녹색사찰 백련사

주지 천 도

신도회일동

울산시 울주군 향산 다개로 405-66
052)262-6610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사부대중일동

정토만일봉사회
53구법성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430-34
Tel 055)672-0078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내원사

주지 동 조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055)973-6799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회 주 대휴당 녹원
주 지 성 각
신도회장 김종인, 손경례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사천 신해사

회주 무 공

사부대중일동

신해사말사 금천암

주지 도 연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2821-46번길
Tel 055)855-1772 Fax 055)855-0247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포교원당 구룡사

주지 무 성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Tel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 묵

사부대중일동

템플스테이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Tel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자기근본을 믿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샘물을 먹을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33관음성지 치술령

울주 **법왕사**

주지 **혜 경**

사부대중일동

불사금 마련(메주, 된장) 주문 받습니다.



경남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치술령길199
TEL 055)262-8555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월봉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운영 울산광역시 시립노인 요양원

주지 **보 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5번지(화정동)
TEL 052-251-4602 팩스 052-235-4602
메일 wolbong sa33@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좋은 인연 지혜로운 삶

✷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Tel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적멸보궁**

와불와산

4백4병 코로나 일시소멸 천일기도 도량
시회대중합장



경남 고성군 개천면 월곡리446
Tel 055)673-1007

대한불교조계종

정인사

주지 **원 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어린이집,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
마산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상남도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마산시니어 클럽,
마산회원 시니어클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055)299-545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Tel 055)342-6639, 345-9900 Fax 055)346-2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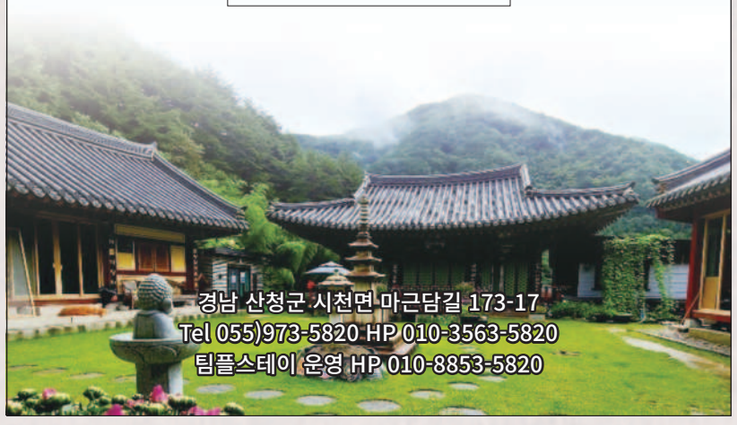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산청 **문수암**

주지 **기 영**

신도회일동

팀플스테이 사찰



경남 산청군 시천면 마근담길 173-17
Tel 055)973-5820 HP 010-3563-5820
팀플스테이 운영 HP 010-8853-5820

대한불교조계종

진불선원

진불선불교대학

선원장 **설 우** 주지 **무 아**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 112(용호동)
Tel 055)275-3222 Fax 055)275-1222
http://cafe.daum.net/jinbulcenter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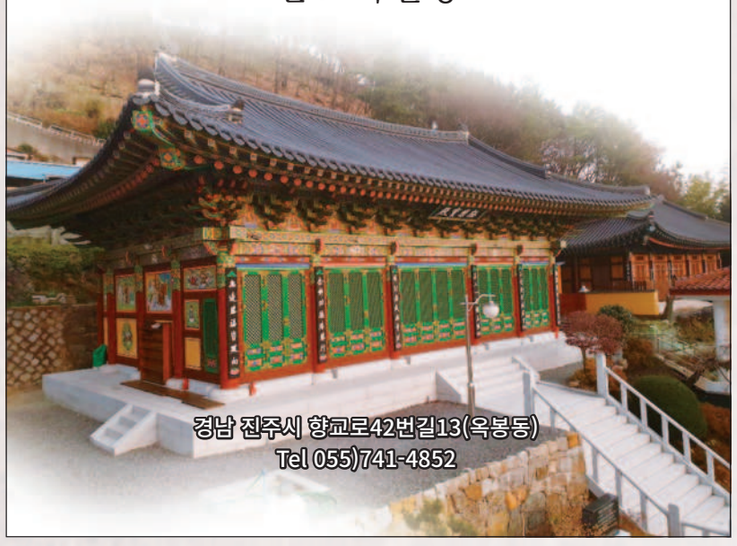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주지 **성 륜**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진해 천자암

주지 **해 초**

신도회일동

백옥천수천안관세음보살 조성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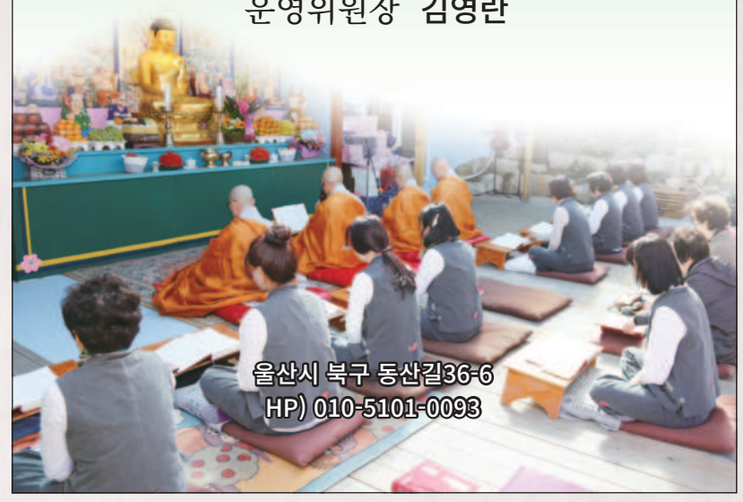
대한불교 원효종

야단법석

벽 선 암

주지 **홍법혜진**

회장 **손규익**
부회장 **전순님**
자문위원장 **양범수**
운영위원장 **김영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사부대중일동

구정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 값진 보배가 모두에게 있다.
- 대행선사법어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 주 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삼산 도문**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신도회 회장 **정갑윤** 부회장 **김명호** 고문 **법성심**
동문회장 **김기호** 봉사회장 **오정학** 유마회장 **문성욱**
학생회장 **진서연** 주지 **혜 원**

**"해남사는 수행정진 도량입니다.
다함께 열심히 정진합시다."**

- **법성심**(85세. 해남사 노보살님)
해남사 금강경 21일 정진대법회 회향발원 중에서



함 안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원 명**
총 무 **영 공**
감 사 **정 광**

신행단체

함안 불교신도회 회장 **조용찬**
함안 바웃다합창단 단장 **박문자**
함안 공무원 불자회장 **심은숙**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055)587-8419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 하 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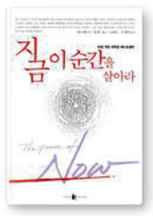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❶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 편집자, 기획자, 번역자, 저자로서 책과 함께 살아왔다. 책읽기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큰 울림을 체험하고, 저마다 자기 안에 배태되어 있는 '성스러움의 씨앗'(불성, 신성)을 발아시키고 꽃을 피우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게 되었다. 옮긴 책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내 안의 나〉 〈볼텍스〉 〈춤추는 공(空)〉 등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백일 감사: 백일만 하면 행복이 춤춘다〉 〈마하무스 이야기〉(우화) 〈말할 수 없는 위안〉 등이 있다.

'영원한 현재' 살기 위한 비결은?



에카르트 톨레는…

독일에서 태어나 런던 대학을 졸업,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원이자 개인지도 교수로 일했다. 스물아홉 살에 찾아온 심오한 영적 변화는 그의 과거를 용해시키고, 인생행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열정적인 내면 여행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변화를 이해하고 종합하고 깊게 하는 일에 몰두했다. 지난 십여 년간 상담자이자 영적 지도자로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작은 모임들을 이끌어 왔으며,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그의 가르침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태어나서 침묵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며, 살아 있는 동안에도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를 존재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소리, 모든 곡조, 모든 노래, 모든 말이 지닌 특성임과 동시에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일부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에서 침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묵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단어 사이의 공백, 문장 사이의 무언의 틈새를 의식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당신의 내면은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내면이 고요하지 않으면, 침묵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밖에는 침묵이 흐르고 안에는 고요함이 자리잡으면,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 타고 노는 어린이가 되라

어린이를 볼 때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흐를 정도로 사랑이 솟아나는 것은 어째서일까?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하다. 어른이 어린이를 볼 때, 어른은 그 어린이의 전도유망한 미래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는 지금 이 순간에만 실존한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의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일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내맡김'을 통해서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시간 없는 현존의 영역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中에서

시간은 한 순간도 머무는 법이 없다. 붙잡으려 하는 순간, 달아나 버린다. 어린이는 시간의 그런 속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타고 놀면서 즐긴다.

어른은 어린이에게 무엇이(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어른의 이런 교육에 따라 어린이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차츰 중독이 되면서 어린이를 상실해 가고 성장해 가지만, 실제로는 늙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그럴듯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중독이 된 어른은, 노인이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져도 늘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오직 그 순간만이 존재하는 현재'를 즐길 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은 시간 전체를 놓치는 것이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끝없이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변신을 꾀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화가 어떻게 장미가 될 수 있겠는가? 코스모스가 어떻게 목련이 될 수 있겠는가? 다른 누군가가 되는 데에 성공하여 '유명한 과학자', '이름난 부자'가 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이름표와 직함과 소유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다. 포장지가 달라질 뿐, 본질은 변할 수 없다.

'무엇이 된다는 것'에 중독이 되면, 이 순간의 충만함을 놓치고, 신기루 같은 미래에 오늘을 팔아버린다. 욕망, 소망, 희망은 우리를 지금이 아닌 먼 미래로 떠나가라고 충동질하지만, 미래는 실재하지 않는다.

어른이 되어서도 '현재에 가만히 있어 볼 줄 아는' 어른은 '축복받은 어린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한시도 쉬지 않는 호흡과 맥박을 고스란히 느끼며, 과거로도 미래로도 달아나지 않는 어른-아이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현재(Eternal Now)'를 타고 놀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현재'를 타고 놀면서 '시간의 울타리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몸-마음 또한 아무런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경계가 없어진 '깨달은 이'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예수는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가. 깨달은 어른-아이가 어린이와 다른 점은, 사회화에 길들여지고 중독된 상태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법화경(신해품, 長子窮子의 비유)과 신약성경('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똑같이 등장하는 우화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돌아온 탕자는 예전과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탕자로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도저히 획득할 수 없는 깊이를 존재에 더하게 된 것이다.

내맡김, 시간없는 현존서 영원히 존재
저자 "외부 침묵 집중하면 내면 창조"
무엇이 된다는 것 집착하면 순간 놓쳐
모든위기 영원한 현재 살기 위한 기회

존재의 새로운 경지

무엇이 된다는 것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사회화의 과정이 모두가 다 에고의 놀음이고 거짓 탈을 쓰고 벌이는 광대극임을 깨우치게 되면, 있지도 않은 과거와 미래의 허상 놀음에서도 한 걸음 벗어나게 되지만, 이것은 단지 '번뇌의 끝'인 것만은 아니다. '번뇌의 끝'임과 동시에 '존재의 새로운 경지'에 진입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어디 먼 데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요,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도 아니다. 톨레에게 있어서 깨달음이란 자신의 본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이므로, 깨달음(enlightenment)보다는 깨어남(awakening)에 더 가깝다. 본래의 나를 회복함으로써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겉거죽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에 연결된 상태'에서는, 에고가 만들어내는 과거와 미래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영원한 현재'가 실존할 뿐이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현재'를 살 수 있을까?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 에고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이 에고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신도 모르게 에고에게 점령을 당하고, 자신을 점령하고 있는 그 허상을 자기 자신의 실체라고 여기면서 한평생을 보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점령군인 에고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에 있다. 생각에 자기를 다 넘겨주지 않고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된다.

에고와의 동일시를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된 그 상태는, 모든 생명 현상의 배후에 깔려 있는 '큰 사랑'과 접속된 '열림의 상태'이기도 하다.

침묵의 위대한 힘

살아 움직거리는 만물의 배후에 자리한 '큰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도 스며 있고, 형상과 형상 사이에도 스며 있다. 우주 만물을 이루는 빛과 소리, 그 사이사이 구석구석에 없는 곳 없이 스며 있다. 개가 짖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 소리에 감각을 다 빼앗기지 말고, 소리가 나오고 있는 침묵의 바탕을 느껴보라. '음악은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에서 나온다'고 했던가. 톨레는 '외부의 침묵에 주의를 집중하면, 내면의 침묵이 창조된다'고 말한다.

영원한 현재를 사는 연금술

존재가 거짓 경계를 지우고 침묵의 사랑 안에 몸담게 되기 위한 으뜸가는 조건은 '내맡김'이다. '내맡김'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지혜'이다. 삶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이므로, 내맡김이란 '지금의 순간을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흙탕에 빠졌을 때, '좋아, 단념을 하고 진흙탕 속에 빠져 있겠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내맡김은 그렇게 단념하는 것이 아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 괜찮다고 달래려고 할 필요도 없다. 단지 거기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는 것이 첫번째로 할 일이다. '상황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표를 붙여 단정짓지 말고,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의 '있음'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병에 걸리면, 누구라도 실망하거나 자책하기 쉽다. 병(disease) 자체가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러움에 대한 저항이 쌓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병이라는 것도 어떤 존재 상태에 대해 무슨 무슨 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병의 실체는 없다! 병을 앓는 이가 첫번째로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병자와 동일시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톨레는 '질병으로부터 시간을 철수시키'라고 말한다. '거기에 과거나 미래를 부여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병을 앓는 시간을 '강한 현존의 깨어 있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한다.

모든 위기는 '영원한 현재'를 살기 위한 기회일 수 있다. 어찌 위기의 때나 병을 앓는 시기뿐이겠는가? 삶 전체가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고통을 깨어 있는 의식으로, 재난을 깨달음으로' 연금술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로서 주어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법'을 나의 삶 속에 들여놓기 위한 기회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천호월서희망재단

코로나19 함께 잘 이겨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사장 월서 큰스님 합장



https://cwhope.tistory.com/1 [천호월서희망재단]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27, ㉾04185 ☎ (02)713-4100 Fax 02)701-1705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Tel 061-781-4544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및 신행단체 문화교실 ☎ 052) 258-9944
초하루, 일요,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 다라니·금강경·행원참법 기도 등
어린이, 학생, 청년, 거사회, 108순례·일요순례회, 신도회, 동문회
합창단, 요가반, 민화반, 다도반, 난타반, 관현악단, 혼성합창단 등

◉ 장학 복지 봉사단체 사)참좋은세상/ 행복한평생교육원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장 이병호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0번길 1 (농민빌딩 4층)
Tel 052)271-1310 Fax 052)258-1370

봉래산 **용석사**

주지 일 공
원주 정 현

신도일동

부산시 영도구 청학서로 73-3
HP 010-3601-8201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주지 호 성

신도회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문화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Tel (054)853-4181, 4187 / Fax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보궁기도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054)672-7579



풍기정품인삼 **풍삼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삼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월 인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Tel 062-375-1820, Fax 062-381-0944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슬산 **대견사**

주지 법 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Tel. 053)746-002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지원장 청 보
총 무 청 훈

사부대중일동

부처님의 향기는 어떤마음에도 꽃을 피운다.

황토방 템플스테이 운영

경북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054)555-8871

우직한 풍요의 동물…인간 본성 상징

[특집] 불교와 소

풍요 · 의로움 · 우직함의 대명사
농사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 대상
인간게으름 경책하는 수단이기도
불성 등 인간 진면목으로도 비유
고승들 법호도 소관련 명칭 많아
사찰창건 연기 설화에 많이 등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다. 십이지의 두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소는 북북동 방향과 음력 12월, 그리고 새벽 1~3시를 지키는 방향신이자 시간신이다. 풍요, 부유함, 길조, 의로움, 자애, 여유, 우직함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특히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힘든 농사일의 주역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유일한 운송 · 이동수단이기도 했으며, 재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뛰어났기에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때문에 소는 예로부터 부를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존재로도 여겨져 왔다. '꿈에 황소가 집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설날 새벽 송아지 우는 소리는 풍조(豊兆)'라는 속설도 이런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무엇보다 소의 우직하고 성실한 면모는 인간의 게으름을 경책하는 방편으로도 활용돼 왔으며,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소가 말이 없어도 열두 가지 덕이 있다'는 말은 우리조상들이 소의 이러한 성품을 높이 샀던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이 땅의 정신문화를 주도해 온 불교는 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불교에서 소는 인간의 본성을 뜻한다. 초기경전인 〈증일아함경〉(목우품)에 이와 관련한 부처님 가르침이 전한다. 부처님은 소치는 사람이 소를 잘 기르기 위해 알아야 할 열 한 가지 법에 빗대어, 수행자가 깨달음을 위해 성취해야 할 도리를 설하셨다. 소를 치는 것과 같이 불성을 닦고 수양하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사찰의 법당 벽화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심우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우도는 인간의 진면목인 불성을 소에 비유하고,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10단계 깨달음의 과정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을 찾아나서는 첫 단계인 심우(尋牛)에서부터 본성의 자취인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견적(見跡), 견우(見牛), 득우(得牛), 목우(牧牛)의 과정을 거쳐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우귀가(騎牛歸家)의 그림이 있다.

심우도는 선재동자가 소(자신의 본성)를 찾아나서는 심우(尋牛)로 시작된다. 선재동자는 소의 자취를 찾아 헤맨 끝에 소를 발견하고 고삐를 매 올라타 길들인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꿰뚫어 보고 수행을 통해 길들이는 다섯 번째 단계 목우(牧牛)다.

선재동자는 이어 소도 사람도 모두 실체가 없는 공임을 깨닫는 인우구망(人牛俱忘)을 거쳐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육도중생의 길(입전수수)로 들어선다. 이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행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중생구제에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조 국사 지눌의 호가 '소 치는 사람'을 뜻하는 목우자(牧牛子), 경허 선사의 호가 '깨어있는 소' 성우(惺牛)인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또 만해 한용운은 자신이 머물렀던 집을 '소를 찾는 곳'이라는 뜻의 심우장(尋牛莊)이라 이름 짓기도 했다. 이처럼 소는 오랜 세월 동안 고승과 수행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사찰 창건설화 중에서도 소와 관련한 일화가 전한다. 대표적인 사찰은 공주 갑사, 해남 미황사, 보은 법주사 등으로, 갑사에는 대웅전 중창불사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정유재란(1597년)으로 소실된 갑사를 재건하기 위해 인호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이 대웅전복원에 나섰다. 그러나 그 원력에 비해 공사의 진행은 너무나 더뎠고, 불사에 필요한 자재조차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호 스님의 꿈에 소 한 마리가 나와 "불사를 도울 것이니 걱정 말라"며 절 안으로 성큼 들어선다. 꿈에서 깬 인호 스님이 방문을 열자 문 밖에 그 소가 서있었다. 이후 소는 매일 같이 향나무와 기와 등 법당 중건에 필요한 자재를 구해와 힘을 보탰다. 소의 도움으로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됐고 마침내 불사의 회향을 앞둔 어느 날, 기력을 다한 소는 지쳐 쓰러진 채로 숨을 거뒀다. 갑사 스님들은 소의 공덕을 기려 탑을 세웠는데, 그 탑이 바로 갑사를 오르는 길목에 지금껏 자리 잡고 있는 '공우탑(功牛塔)'이다.

법주사가 위치한 속리산은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명칭의 유래에 대해 법주사를 창건한 진표율사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속리산은 당시 구봉산으로 불렸는데, 신라 선덕왕 5년 진표 율사가 법주사를 건립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러자 인근 논밭에서 일을 하던 소들이 일제히 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이에 농부들이 감명 받아 속세를 버리고 율사를 따라 출가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사람들은 구봉산을 속리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황사의 창건설화는 조선 숙종 18년 병조판서 민암이 쓴 사적기를 통해 전해내려 온다. 신라 경덕왕 8년의 어느 날 땅끝마을 사자포에 화엄경, 법화경 등의 경전과 문수 · 보현보살상이 담겨 있는 금합, 그리고 검은 소를 실은 돌배가 나타났다. 같은 날 밤 의조화상의 꿈에 금인(金人)이 나타나 "나는 인도 우전국의 왕인데 불상과 경전을 소에 싣고 가다가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 곳에 절을 짓는다면 국운과 불교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고 일렀다. 의조 화상은 이를 그대로 따랐고, 소가 멈춘 곳에 절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미황사다. 특히 미황사의 창건설화는 불교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서 바다를 통해 유입됐다는 해로유입설을 뒷받침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신축년 불교 소사

- △617년 신라 원효대사 탄생
- △665년 신라 고승 혜통 당에서 구법하고 귀국
- △689년 승려 전길(詮吉) 등 50여명, 일본에 건너감.
- △725년 법천사 창건
- △809년 해안사(海眼寺, 조선 인조 때 은해사라 개칭)를 창건, 원찰(願刹)로 삼음.
- △833년 진주 연지사종 주성
- △929년 천축 삼장법사 마후라 내왕
- △953년 황룡사탑 벼락 맞고 소실
- △989년 여가, 공사 · 한인경 등과 함께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귀국.
- △1109년 예종(睿宗) 2월 29일 및 9월 24일에 각각 회경전에서 백좌회(百座會)를 개설, 중외(中外)에서 승려 3만을 공양.
- △1229년 정각 지겸 스님 화엄사서 입적.
- △1289년 보각국존 견명 스님, 인각사에서 입적
- △1397년 흥천사 준공, 선종의 수찰로 삼음
- △1409년 일본 승려 주호(周護), 대장경 요청.
- △1457년 세조 〈능엄경〉 〈법화경〉 등을 수교하고 함허당 〈금강경설의〉 교정.
- △1469년 경국대전 초안 완성.
- △1553년 양종 시경승 2천 5백여명에게 도첩을 줌
- △1877년 일본 진종 대곡파 본원사 조선개교사 오촌원심 방문
- △1889년 제2차 사찰승니(寺刹僧尼) 비호령(庇護令).
- △1913년 택성 김탄허 스님 탄생. 5월 25일 만해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간행. 11월30일 월간 '해동불보' 창간
- △1925년 조선불교청년회 창립. 9월1일 총독부, 해인사 대장경 인출시작
- △1949년 맥아더사령관, 일제 침탈 문화재 반환
- △1961년 대법원, 비구승단 인정. 5월 22일 운허 스님 불교사전 간행. 6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승니법 제정 공포.
- △1973년 전국 유명 사찰에서 관람료 징수 시작.



사진제공=국립민속박물관

dongguk UNIVERSITY | 동국대학교 전산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내신·수능없이 입성하다

면접 100% 선발 (타 대학 합격자도 지원 가능)
대학 수시 · 정시 복수지원 가능
2년 내외 단기간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18년도 300명, 19년도 231명, 20년도 255명 대학 및 대학원 합격
수도권 외 거주자 매월 주거비 지원 + 다양한 장학 혜택

동국대학교 전산원 신입생 모집

◆ 주간학사과정

전공	세부트랙	학위구분	모집인원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공학사	160
	인공지능(AI)		80
멀티미디어학	멀티미디어	공학사	40
	시각디자인		40
정보보호학	정보보안	공학사	40
	사이버보안		40
경영학	경영	경영학사	120
	글로벌경영		80
	경제통상		40
광고학	광고홍보	광고학사	80
관광경영학	호텔관광경영	관광학사	40
	외식경영		40
심리학	상담심리	문학사	80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행정학사	40
	아동사회복지		40
행정학	공무원행정	행정학사	40
	경찰행정		40
영화학	영화영상제작	예술학사	30
	연기		30

◆ 주말학사과정

전공	세부트랙	학위구분	모집인원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공학사	40
경영학	경영	경영학사	40
심리학	상담심리	문학사	40
행정학	행정	행정학사	40
부동산학	부동산학	행정학사	40

◆ The 플러스과정

전공	세부트랙	학위구분	모집인원
컴퓨터공학	융합소프트웨어	공학사	80

◆ 전산원만의 편입 노하우를 활용한 1:1맞춤 개별지도
◆ 학사편입에 최적화 된 무료 영어 교육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편의시설 이용 가능!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령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대학교 제적자, 전문학사 소지자
◆ 입학문의 02-2260-3333 (반야관 1층 입학관리팀)
◆ 카톡문의 @동국대전산원

★ 신입생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ucsi.ac.kr)를 참고해 주세요.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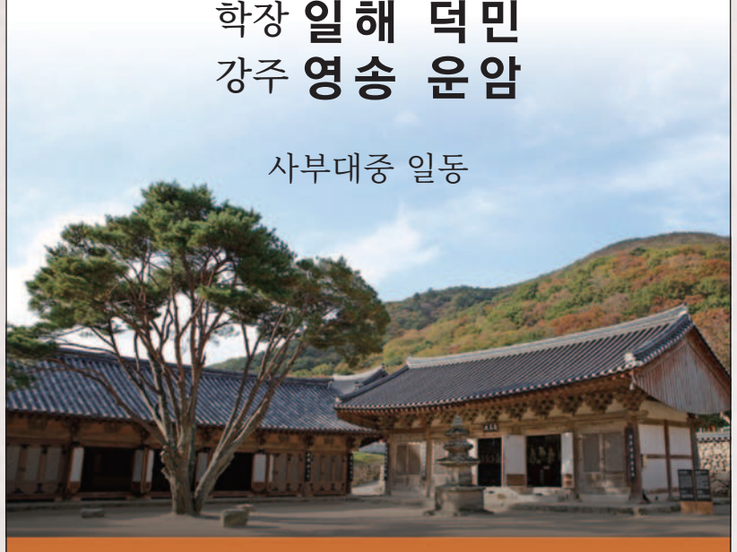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전통교육의 중흥도량'

함월산 기림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학장 **일해 덕민**
강주 **영송 운암**

사부대중 일동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9
Tel (054)744-2292, Fax (054)744-5569

대한불교조계종

극락도량 약천사

무료시설 **포산승가원**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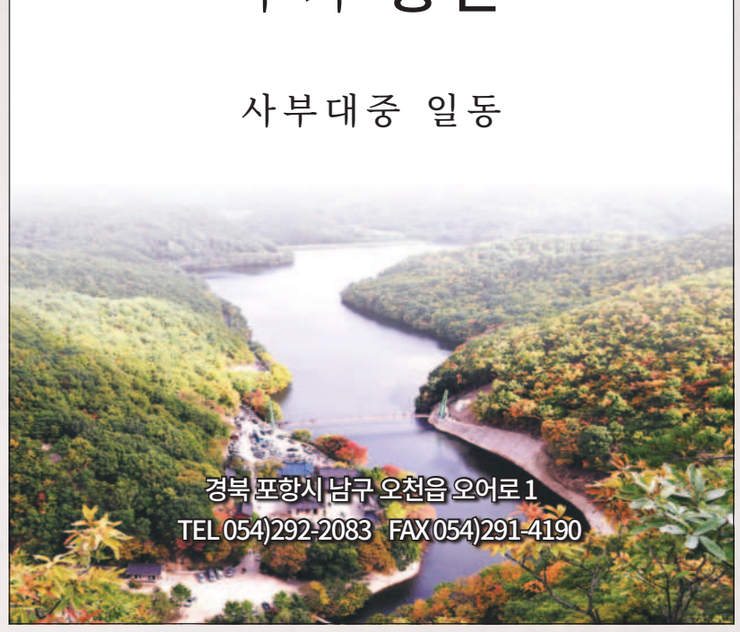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 지 **종천**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 실 **청운 도원**
주 지 **허 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TEL 053)984-4550 FAX 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 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본산

정 림 사

종 정 **보 명**
총무원장 **혜 법**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구길 253-46
Tel (054)338-6300, Fax (054)338-6302



봉화산 대 명 사

회 주 **석 해**
주 지 **석 불**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동마을길 100-122
TEL. 054)334-0705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종화 도진**
교 법 사 **문수**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김 원 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중학교 053-232-9104 / 고등학교 053-235-4414 / 법인 053-232-9175





대행 스님

자기 마음 안에서 부처를 구하고 자기 성품 안에서 법을 구하라

바깥으로만 공부하는 척했어요

질문 : 저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새벽에 108배 정진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저도 제대로 마음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돌아보니 제가 너무 바깥으로만 공부하는 척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우리가 수 해를 두고 이날까지 이렇게 봐 왔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복으로만 많은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그것이 아주 배서 인제는 바깥에서 빌고 또 바깥에서 구하고 그러는 일들이 아주 습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녹이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가도 성품 바깥에서 법을 구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도 안 되거니와 성품 바깥에서, 즉 법을 구해도 안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나가 이 몸으로써 내가 고행을 해서 그 법을 구하겠다고, 또 옛 성현들이 그 마음을 깨달아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좇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서는 절대, 그것은 바깥에서 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내 몸으로써 아주 하루 종일 앉아서 눕지를 않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를 짜내서 대경(大經)을 쓴다고 해도 아니 되고, 또는 내 몸을 잘라서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부처를 구하지 못하고 성품의 법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부르터서 디딜 수가 없이 만들어서 고행을 하면서 정말 몸을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이리 잘라지고 저리 잘라지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도록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마음 바깥에서 구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겁을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참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찾는 자는, 바깥에서 그렇게 구하고 성품 바깥에서 법을 구하는 자들은, 몸을 또 그렇게 패대길 쳐서 그렇게 고행을 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은 모래로 밥을 지어서 바로 법을 구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소립니다. 모래로 밥을 지어서 밥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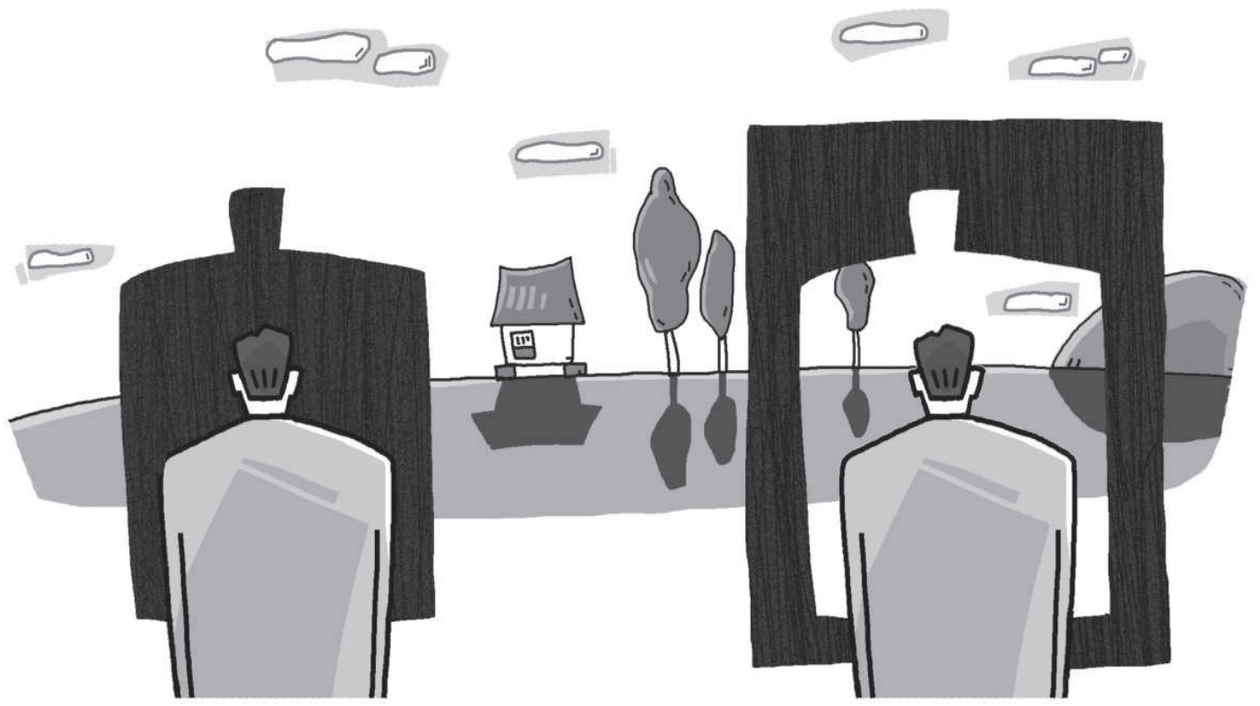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많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되, 어느 절에 가더라도 말과 뜻과 행을, 세 가지를 종합해 봐서 이 견해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을 진실히 믿고 따르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 부처를 구하고 자기 성품 안에서 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히 믿는다 해도 기복을 가지고 한다면 견해가 밝지 못해서 그것은 바로 마구니로 빠지기가 십중팔구 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견해가 밝아야 밝게 보고 옳게 행을 하면서 믿음을 진실하게 마음 안으로 굴려서 자기를 자기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량의 스님네들은 앉는다 선다 생각 없이 공한 그 자기 몸을, 즉 말하자면 화두로 삼아서 일상생활에 일분일초도 끊어지지 않게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넓으나 점점 가면서 좁아들고 막다른 골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는 좁되 점점 가면서 넓어지면서 이 천지 만물이 다 화창하게 빛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심원 안에, 온 누리의 삼천대천 세계 모두가, 모든 법이, 찰나찰나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법이 한마음 심원에 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갖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따지지 않아도, '무슨 경에는 무슨 말씀, 무슨 경에는 무슨 말씀' 하지 않아도 그 하나하나의 이름이나 그 말씀 자체나 또 그 뜻 자체가 그 심원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자 눈 따로 귀 따로 코 따로, 이것은 눈은 뭘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봐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 따지고 또 귀, 듣는 것 따지고 이러다 보면, 내 몸 전체의 모든 것을 일일이 따지게 되면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내고 들이는 것이, 내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법이 다 있고, 법 안에 바로 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든 많든 이 뜻을 정렬하게 생각해서, 마음 밖에서 내 부처를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는 이 성품 안에서 법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만 깨닫는다면 만법의 원리가 내 심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문 아닌 게 없고 시 아닌 게 없어요. 법 아닌 게 없고 보배 아닌 게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닫는 데에 역점을 둘 때에 바깥에서 끄달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 해를 걸쳐 놓고 바깥에서 끄달리고 부적이나 해 들고 다니고, 또는 밥이나 놓고 빌려는 생각이나 하고, 내가 잘되려는 생각이나 하고…. 그거 잘되는 거는 뿌리만 성성하면 가지도 성성하고 이파리도 성성할 것을, 괜히 뿌리는 썩어 들어가는데 아니, 그렇게만 하고 돌아다니면 내 가정의 풍파나 우환이나 가난이나 그 아픔의 쓰라림이 다 메워질까요? 점점 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힘으로써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조어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화목하게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며 사회가 되며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생각이 얼마나 묘한지 이 국가를 다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상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한 인간의 법이 얼마나 참 좋은 법입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급급하게 내가 가난하다고 울고 빌어야만 하고…. 그 값싼 울음은 울지도 말아요. 어차피 울려면, 온 우주에 근원을 두고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그 눈물이 아마 온 바다를 메우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값싼 웃음도 웃지 말 것이며, 값싼 눈물도 흘리지 말 것이며, 값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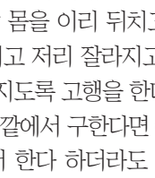
우리가 이날까지 기복으로 참 많은 세월을 흘러 내려왔으니까 인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진심으로서의 내 마음 안에서 내 자부처를 구하면서, 내 성품 안에서 모든 법을 구하면서…, 만법의 진리가 바로 내 마음 안에 들어 있으니. 이 마음 안에 들어 있는 이 묘법을 두고 그냥 가시렵니까?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그 만법 좋은 거를, 묘법을 두고!

어렁더렁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또 허무하게 떨어진다면 세세생생에 이렇게 굴러야 하는 것을 면치 못하며, 더 나아가서는 좌천이 돼서 짐승의 허물을 쓰고 또 그렇게 굴러야 하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거하고 바깥에서만 구하고 항시 그렇게 어리석게만 나간다면 우린 그 인과응보, 이런 것을 떠날 수가 없으며 유전성을 떠날 수가 없다고 수차에 두고 말을 했죠. 자기가 한 것만치 받는다고요. 그러나 이 공한 도리를 알고 묘법을 안다면, 바로 내가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

☞ A30면으로 계속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동행승가단



회장 성각

총 재 **무 송**
회 장 **성 각**(부산)

사무총장	**성군**	수석고문	**성각**(하동)
초대총재	**정공**	초대회장	**정오**
2대회장	**석경**	감 사	**보강.성혜**
영상홍보실장	**상운**		

전국 각 시·도·운영위원장
심오, 해원, 혜정, 성오, 무한, 여육, 현덕, 광명, 자문, 도선

본 승가 동행단은 중생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세계평화수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뜻을 모아 국내외 재난구호와 국내역사탐방, 건국열사, 호국선열참배 및 코로나19퇴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하는 위험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닌 인류 스스로가 만든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구요, 자연환경은 인류가 생존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편익과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 자연환경을 이용한다면 인간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佛光遍照十方世(불광편조시방세) 새해는부처님의자비광명이시방세계를 비추나니
地球村病魔一消(지구촌병마일소) 지구촌모든병마는단번에소멸되고
衆動生靈咸歡笑(중동생령함환소) 생명가진모든 것은 환희의 웃음으로 가득하소서

승가동행단회원일동

만법의 진리가 바로 내 심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 A29면에서 계속

도 없이 그렇게 화창한 날씨에 온 누리에 꽃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바로 무르익어서 온 누리의 여러 부처들이 다 그 맛을 볼 수 있는 불국토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난 글자 한 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게 보는 대로 글이요, 말이요, 법이요, 이것이 말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한 데 떨어뜨린다면 안 되는 진실, 그 진실을 그 마음 가운데에는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거지든 부자든 다 누구나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질하고 못 배우고 했으니까 나는 이 부처님 법도 못 배우지.' 이런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소동파도, 그렇게 영리하고 말을 타고 가면서 병풍 글씨를 다 외워 두는 그 소동파도 그 승허 선사한테는 바로 대답 한마디 못하고 분해서 묵묵히 달아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건 글자로 따지려도 따질 수 없고, 글귀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귀에 들어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깨달아서 결국은 그 글귀의 말씀을 말씀대로 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이 한데 떨어지면 말인 것이고, 그 말이 말씀이 된다면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한데 떨어뜨릴 게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산천초목의 바로 그 푸른 잎은 전부 여러분의 몸이 되고, 폭포수가 흐르는 것은 바로 지혜로서 설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이치를 잘 안다면 어느 거 하나 떨어뜨려서 던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던질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 했던 것입니다. 너무 문이 많고 너무 묘하기 때문입니다.

사후에도 업보를 받게 되는지요

질문 : 우리가 업을 짓고 죽으면 그 사후에도 업보를 받게 되는지요.

답변 : 영적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습을 가지고 우리가 고정되게 나가기만 하면 그것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차원이 멈춰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깐 이 진리가 멈춰 버리지 않고 찰나찰나 돌아간다는 걸 아시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각나고 행하고 말하고 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다시 놓을 때는 바로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의 문제라는 건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알면 사후에도 그렇게…, 즉 말하자면 눈멀고 귀머거리고 그렇지를 않으니까요. 현재에 알면 다른 미래에도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저께 모른 것이라면 오늘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후 일이라는 것은 오늘 겸했다는 얘깁니다. 과거 일이 현재로 겸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억겁을 거쳐 온 것이 한데,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억겁이 그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이 거쳐 오면서 축소됐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콩나무도 그냥 콩나무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만약에 콩나무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콩나무도 콩나무로 되기 싫다, 하여튼 콩나무에서 좀 더 화해서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돼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콩나무라는 그 콩나무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겁니다. 콩씨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도 인간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자신'으로서 벗어난다면 바로 중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나 또는 과거의 업보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없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지어서 그렇게 자꾸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도 고통스럽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앙갚음을 했으니까 나도 앙갚음을 하겠다는 생각으로서, 참, 자기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앙심을 품게 되지마는, 그거는 또 좀 덜합니다. 그네 대의 가정, 즉 말하자면 자식들이나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모두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이 업보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고, 엉클어지고 설크러지고 이런 것이 사후에 돌아오는 거죠. 현재에도 들어올 뿐 아니라 사후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 부모를 그 어떠한 문제의 건으로 인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의 국록을 먹게 되는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 인군 앞에서 해 가지곤 밥줄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반으로서, 밥줄이 끊어진 것보다도 양반으로서의 그…, 옛날에는 그런 걸 중시했죠.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조상을 만나 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주 그 집을 증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아들이 말입니다, 하도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참 항상 그 방에서 나오시질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집에서 또 원수를 갚는다고 하다가 고만 미수에 그치곤 말았답니다.

그 뒤에 그 아버지가, 방에서만 계시던 그 아버지가 참 이 마음으로 무척 닦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머리가 허옇게 다 돼 가지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애야, 네가 그렇게 한 까닭에 원수는 원수대로 갚지도 못하고…. 그게 갚아서 갚아지는 일이 아니니라. 그렇게 네가 했기 때문에, 요다음에 삼 대에 내려가서 태어나는 네 손주가 그렇게 또 죽게 됐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면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걸 풀려면 인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을 말고 그 집 가서 매일같이 아침 문안을 드리면서 그 전자의 그런 모든 것을 그저 잘못했노라고 항상, 하루 한 번씩 가서 사과를 하되 백 일을 하라." 그러더랍니다. 백 일을 해야 그것이 녹는다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 마음들이 녹아야 그게 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살아나가는 것도 지금 고정된 관념으로서의 생각도, 고정된 행도, 고정되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우리가 사는 거지 고정되게 그냥 뭐, 백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백 년을 산 게 없습니다. 여직껏 걸어 다니셨다 할지라도 걸어 다니신 그 자체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살림살이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짓는 거, 그것은 마음의 영원한 그 자기의 전체 컴퓨터, 자기를 리드해 가지고 가는 자연 컴퓨터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이죠. 그 잠재해 있던 그 자체가 바로 자기가 한 거를 일기장 써 놓듯이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고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받게 돼 있거든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요. 그러니 사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사후를 물을 게 뭐 있습니까?

>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묘법을 두고 그냥 가시렵니까!**
>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 **그 만법 좋은 거를, 묘법을 두고!**

그런데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스럽기 때문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문젠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른다면 반드시 엊그저께 과거의 나를…. 만약에 우리 부모들을 죽였다든가 또는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 갔다든가 또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나를 갖다가 물씬 그냥…,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나 전부 죽이는 게 됐다 이랬을 때에 그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것이 누적돼서 사후의 일로 벌어져요.

현실에도 너로 인해서 내가 망했다든가 너로 인해서 내 가족의 밥줄이 끊어졌다든가 내 돈을 떼어먹고 어디로 가서 우리 식구가 그 십 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이렇게 고초를 받고 지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엉클어진 이 문제를, 즉 말하자면 고정되게 내가 증오하고 있거나 그런다면 그것이 인제 사후 일로 벌어집니다. 현재에 내가 또 갚을 수도 있고요. 그 놈을 징역을 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아주 반쯤 죽여 놓고 '저희 죽고 나 죽는다' 이렇게 또 벌어지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벌어져서 물씬 두들겨 주고 말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질문 : 요즘은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여 법당에 가서 좀 앉아서 참선하고 싶은데 요즘은 상황도 이러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가요?

답변 : 될 수 있으면 서나 앉으나, 누우나 일을 하나…, 이것을 입선, 좌선, 와선, 행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할 때도 자기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이 속의 자기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자기 내면의 주인공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차가 있다면 무슨 차든지 운전수가 몰지, 차가 운전수를 몰고 다니는 법은 없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주인공이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는 것은 운전수가 차 끌고 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차가 고장이 나면 운전수가 고쳐서 끌고 다닙니다. 딴 사람이 해 주지 않습니다. 꼭 운전수가 어디 뭐, 차 고치는 데로 가든지, 자기가 손수 고치든지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를 내가 끌고 다니는 것과 같은데, 그 주인공이란 수억겁 광년 전부터 나를 진화시키면서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지금 현재만 운전수가 아니라 과거도 운전수였고, 지금 현재도 운전수고, 미래도 운전수일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운전수를 믿고,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생각이 나면 거기다가 맡겨야 하는 거죠. 일하면서 부아증이 일어나면 '그것도 당신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거기 놓고…. '해 주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입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앉아 있다가도 생각나면 거기다 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따로 정해 놓지 말고 시시때때로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주고, 거기서만이 해결해 주고, 거기서만이 낫게 해 주고, 거기서만이 화목하게 해 주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그러는 데도, 부부지간에 살고 부모 자식지간에 살고 이러는데도요, 항상 나쁘게 생각을 하고, 밉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한다고 "너는 평생 가도 그 꼴밖에 못 돼!" 하고 욕을 한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일이 더 많지 어떻게 잘하는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잘못하는 대로 욕을 해 대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냥 신경질을 내고 이런다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그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팔자 운명이라는 게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그런 상대성 원리, 인연에 따라서 아주 곧바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쓰고 아주 부드럽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 속을 안 썩이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속을 삼분의 일을 썩이는 사람도 있고, 반을 썩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썩이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속이 상하든지 저렇게 속이 상하든지, 속 썩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기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으로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부드럽게 하시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고 부드럽게 해야 그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냥 '옛다, 봐라.' 이렇게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아니 됩니다. 컴퓨터도 사람이 입력을 해 놔야 쓰듯이, 꼭 자동적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놓고 부드럽게 행동을 하시라 이겁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지 홍
주 지 상 진
총무(원주) 벽 산
교 무 거 진
재 무 심 곡
서 무 효 능
서 무 보 보 휴
대 중 일 허, 효 진
지 휴, 혜 명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업무과장 이진미(소봉)
경리계장 공성희(여진)
업무계장 최진호

재단법인
천년고찰청련사

이사장 상 진
이 사 해 경, 지 홍, 심 곡, 벽 산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추모관)
전 무 고영민 상 무 장진우
이 사 박광수 홍 보 박범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 031)836-2439, 1080 / Fax.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新年隨想

새해 부디 힘내세요!



그림 · 최주현

'망친지구 모습을 보라'는 코로나19 화두
'오비이락' 일화 사냥꾼처럼 업을 끊어야
신년엔 모두 바른 방향으로 살아 갑시다



원영 스님
서울 청룡암 주지

동이 터 오려면 아직 먼 시간, 법당에 불을 켜고 부처님 전에 향 한 자루 사루어 올린다. 절집에선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양력 새해에 뵙는 부처님의 존안 또한 뭔지 모르게 지난해의 아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마음 한 켠이 새로운 기운에 파도 치듯 철썩 거리는 듯도 하다. 오늘따라 더 온화해 보이는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정성껏 소망을 빌어본다.

"부처님! 또 이렇게 한해를 맞이하는 건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요. 부처님 성도하신 나이보다도 이젠 훨씬 더 많답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새해에는 더욱 마음 굳건히 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장애도 이겨내게 하시며,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올해는 제발 마스크 좀 벗고 살게 해주시고요!"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엉거주춤 최대한 몸을 웅크려 절을 하고 일어섰다. 겨울엔 절 좌복도 차갑기만 하다. 겨우 추스르고 일어나 외등을 끄러 나갔다. 마당에 눈이 하얗다. 세상의 모든 병균들도 이렇게 하얀 눈 앞에선 자취를 감춘듯하다. '코로나야 너도 어딘가에 숨었겠구나.'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세상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색으로 덮는 하얀 눈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제발 싸우는 사람들, 나쁜 병균들도 다 덮어버리렴. 꼼짝 못 하게!'

'그나저나 언제 이렇게 왔지?'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모자에 장갑. 마스크와 목도리까지 완전무장을 하고 나와 눈을 쓸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보니 이른 아침부터 길 나서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총총 남겨져 있다. 신기하게도 모두 한 방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쪽 큰길을 향하고 있다. 이래서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눈 덮힌 들길 걸어 갈 제 어지러이 걷지마라)' 이라 했던가. 어느 곳으로 가야 큰길이 나오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발자취였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는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신문, 방송, 인터넷이 오로지 코로나19 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간 인류가 걸어온 발전의 역사가 지구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반성도 많이 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은 맞지만,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는 걸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게 된듯하다.

사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물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돈이나 권력, 명성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요,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이나 지나간 역사 등일 테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속적인 부와 욕망을 추구하며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아왔나보다.

그 결과로 코로나19는 혹독하게 '너희가 망친 지구의 모습을 좀 보라' 고 질책했고, 일상생활을 멈추게 만들어 '열심히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 라는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탐욕스럽게 살아온 우리들 자신이 야기해온 업보(業報)임을 가르쳐주며 말이다.

업보라고 말하고 보니, '오비이락과 사두(烏飛梨落破蛇頭)' 가 생각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는 의미의 오비이락(烏飛梨落)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우연한 일이 겹치게 일어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업보의 고리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지 여실히 알려준다.

사연은 이러하다. 어느 날 배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퍼드득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러자 가지가 흔들리면서 거기 달렸던 배가 하나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 배나무 아래에 쉬고 있던 뱀이 머리를 맞아 죽고 말았다. 이후 뱀은 죽어 멧돼지로 태어났고, 뜻하지 않게 뱀을 죽게 한 까마귀는 꿩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엔 꿩 차례다. 어느 봄날 꿩이 산 밑에서 볕을 쬐고 있는데, 마침 산비탈을 지나던 멧돼지가 그만 돌을 헛디뎌 바위가 굴러 떨어졌고, 볕을 즐기던 꿩은 바위에 치여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후 꿩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사냥꾼이 되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러 산에 간 사냥꾼은 멧돼지를 발견했고, 놀란 멧돼지는 산속 암자로 숨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여기 암자에 눈 밝은 스님이 있어 멧돼지를 잡으러 온 사냥꾼에게 멧돼지와의 인연을 설명하며 더 이상 살생하지 말기를 권하였고, 사냥꾼은 마음을 돌려 불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다.

경봉 스님은 "온갖 것 중에 가져갈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오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자기가 지은 업(業)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저승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법,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비이락' 을 설명하며 되짚어보니 더 와 닿는 말씀이다.

그러고 보면 불교수행은 자신의 업(業)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일상생활 그 자체의 행위가 업(카르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 바로 수행(修行)이기에 그렇다.

지난해 동안 환경오염과 바이러스 창궐의 업보에 시달린 우리는 앞으로 자연과의 원한을 풀어내는 것이 급선무일지 모른다. 살생을 멈춘 저 사냥꾼처럼 말이다. 이제 그만 자연과 화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틱낫한 스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묻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지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왜 지구가 우는지, 왜 물과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하는지, 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되었는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들어보아야 생각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지구와 얽힌 업보도 풀 수 있다는 말씀이리라.

집에만 갇혀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나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분명 우리 삶에도 좋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올곧게만 산다면 불보살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너무 힘들이지 않고 회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원영 스님은
불교 계율을 전공해 일본 하나조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율과 불교윤리 분야의 조계종 교육아사리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서 강의했다. 불교계 청년멘토링 프로그램 '청년출가학교' 와 고3 수험생을 위한 '청춘캠프' 지도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BBS불교방송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 를 진행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社說

치유 속 一步 전진하는 한해 되길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멈췄던 2020년을 지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올 한해까지 이어져 새로운 형태로 불교계를 이끌어갈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그리고 치유가 대표적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자결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은 올해 언택트 문화의 본격적인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합동수계법회를 언택트로 시행할 방침이며, 유튜브 활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신행 · 포교단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가 올해 특히 유념해야 할 분야는 '치유' 다. 코로나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종의 사회적 회향이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 사회공헌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동국대는 올 4월경 명상페스티벌을 통해 명상과 수행을 매개로 대중과 만난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각종 중독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스마트쉼 사업' 도 주목할 만 한 치유방안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해동 초조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선을 전래한지 1200년이 되는 해다. 이에 한국선학회와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전국선원수좌회 등이 학술대회를 비롯한 법회 및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핵심수행법인 선(禪)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한국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과 명상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더욱 반가울 것이다.

신축년 새해, 묵묵한 소의 걸음처럼 불교가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해가 되길 발원해 본다.

기후위기, 불교적 세계관이 대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생존문제다. 어느 한 집단이나 국가의 변화만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인류공동체 차원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의제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를 지배해 온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은 결국 지구를 병들게 했고, 이는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공업(共業)' 의 산물이다. 누구 하나, 어느 국가나 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그동안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오면서, 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소비해 온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관계성을 성찰하고 그것이 삶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구공동체를 일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구시대적인 전통의 답습이 아닌, 부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와 구체적인 대안의 형대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인류에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불자들의 삶이, 보다 더 실천적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끝을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직시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구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범불교차원의 사회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 불교가 답을 해야 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智異山 華嚴寺
조실 금성 명선 대종사
문장 은산 종국
회주 송천 종열
주지 초암 덕문
신도회 & 사부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종 무 소 | 061-783-7600
기도접수처 | 061-782-0011
www.hwaeomsa.com

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

대목망나장

기근본을믿고

가는힘이있어야

음의샘물을

을수있다

대행선사법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박종수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진영. 도의국사는 한반도에 육조혜능의 남돈선을 처음 전래한 '해동 달마'다. 사진제공=조계종

'海東 달마' 도의국사 한반도 禪法 전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禪).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는 수식어를 붙게 해준 수행법. 범어로는 디야나(dhya-na), 팔리어로는 쟈나(jha-na)이다. 이를 음사하여 선나(禪那)·사유수(思惟修)라 하며, 음사와 의역을 합해 선정(禪定)이라고도 한다.

인도의 불교가 동진(東進)하며 중국에 전래되고 경전 중심의 교학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종파 간 경쟁이 심해지고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던 중 보리달마(菩提達磨)는 자신의 법을 펴기 위해 중국에 들어와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라는 선의 기치를 알리게 된다.

달마조사로부터 시작된 선불교는 중국의 색채가 깊게 가미된 '신불교'였다. 〈선학의 황금시대〉 저자 오경웅은 "선불교는 인도적인 아버지와 중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닮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달마 이후 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으로 법이 이어지면서 선불교는 중국서 전성기를 맞는다. 인도에서 시작돼 중국에서 새롭게 정립·확산된 선은 이내 한반도에도 전래됐다. 바로 도의국사를 통해서다.

37년 동안 중국에서 수학하며 서당지장·백장회해의 법을 받은 도의국사는 821년(헌강왕 13) 신라로 귀국한다. 6조 혜능의 남돈선(南頓禪)이 해동으로 전래된 순간으로 한국선 1200년 역사의 시작이다. 도의국사가 전래한 선법은 손제자 보조체징에게 이어졌고, 보조체징은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열어 선풍을 크게 펼쳤다.

도의 국사 821년 韓 귀국
한반도에 禪 전래된 원년
현재 조계종 성립에 뿌리

명상 확산… 대중화 기회
시대 맞는 지도법 개발을

대륙에서 선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한반도와의 접촉이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반도의 승려들이 대륙의 지성사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선의 역사는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 성립에 뿌리가 됐다. 도의국사는 현재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고 있다.

한국의 선 수행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마음챙김 등 다양한 명상 수행법이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언택트 명상 수행이 유행하고 있어서다. 대중과의 소통, 시대 언어에 맞는 수행지도법 등은 앞으로 한국선이 풀어나가야 할 화두가 됐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선수행 지도방편을 구사해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앱 개발,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비대면 명상문화 창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필코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원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중생과 더불어 공감하고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대중과의 소통 부재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보물 제439호 도의국사 부도탑.

INSIDE

B11~13 신년특집 신년법어 · 신년사

B17 기획연재 정찬주 역사소설 '아쇼까대왕'

B19 기획연재 김호귀의 '한국선 톺아보기'

B21 기획연재 강소연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B23 기획연재 박원자의 '母情佛心'

한국禪 1200년

선 전래 역사와 사상적 특징

부처님 마음법 한반도에 오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당지장의 법을 받아 백장사에서 선법을 펼치고 있던 백장회해(百丈懷海).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는 선농일치의 전통을 세운 그에게 해동에서 온 승려가 가르침을 구하며, 자신을 찾아온다. 해동 승려의 지극한 구도열에 감복한 백장회해는 이렇게 감탄한다.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江西禪脈, 總屬東國之僧歟)"

당대의 선지식을 감탄하게 만든 해동의 승려는 바로 한반도에 선법을 전한 '해동 달마' 도의국사다. 그의 구도행은 한반도 선 전래의 중요한 전기가 된다.

도의국사의 당나라 구법행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불교의 교세도 확대된다. 당시 신라불교는 교종 중심이었는데 특히 화엄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사진 위는 821년 신라로 귀국한 도의국사가 머물며 은둔하며 수행한 진전사 전경. 이곳에서 도의국사는 40여년을 수행하며 제자 염거에게 법을 전했다. 염거는 보조체징에게 선법을 전했는데, 체징은 전남 장흥 가지산 보림사서 '가지산문' 을 개창하고 본격적으로 도의가 전한 선법을 펼쳤다. 사진 아래가 가지산문이 있었던 보림사 전경.

도의국사 신라 귀국 선종 홍기 계기

손상좌 체징 가지산문 열고 법 펼쳐

선종의 첫 전래는 4조 도신 선사의 법을 이은 법랑 스님을 들 수 있다. 최치원이 쓴 '봉암사지 증대사적조탑비' 비문에 의하면 "법랑이 중국으로 건너가 도신의 법을 이어왔다"고 기록돼 있다. '단속사신행선사비' 에는 법랑이 제자 신행에게 법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법랑의 행적이나 사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한국선의 초조를 도의국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의국사의 생애 전기에 대한 기록은 〈조당집〉 17권 '설악진전사원적선사전' 이 유일하다. 〈조당집〉에 나온 도의국사의 생애를 살펴보면, 도의국사는 북한군(北漢郡, 현 서울) 사람으로 성은 왕(王)씨다. 도의국사의 부친은 임신 전 흰 무지개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모친은 고승을 친견하는 태몽을 꾸었다. 보름 후 태기가 있음을 느끼고, 39개월 만에 도의국사를 낳았다.

출가한 이후 784년(선덕왕 5년)에 사신들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수학했다. 도의국사는 광동성 광주 보단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조계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에서 신이한 일이 있었다. 도의국사가 육조 혜능의 조사당에 참배를 하려고 하니 문이 저절로 열렸고 삼배를 올리고 나오니 문이 닫혔다.

비슷한 사례가 사굴산문을 개창한 범일 선사에게도 전해지는데 前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은 "도의국사나 범일선사가 한결같이 육조 혜능의 탑을 참배하고 똑같이 신이의 상서가 일어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신라 선종이 혜능의 선불교를 계승한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의국사는 강서 홍주 개원사(현재 우민사)로 가서 마조도일의 수제장인 서당지장의 법을 얻었다. 서당지장은 '돌더미에서 옥을 얻은 듯, 조개 속에서 진주를 주은 것' 처럼 기뻐하며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고 말했다. 이후 도의국사는 백장회해를 찾아가 감탄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본 스님은 "서당지장의 선법을 이은 4인 중 3인이 신라 구법승 도의와 홍척, 혜철이었다는 사실과 그 중에서도 도의선사는 서당의 선법을 전해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조사선의 선구자인 마조의 선법이 신라로 전래된 사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선 전래와 구산선문 형성

이렇게 서당지장의 법을 이은 도의국사는 821년(헌강왕 13)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지 37년만에 신라로 돌아온다. 신라 귀국 후 행적은 최치원이 쓴 '지증대사적조탑비' 에 기록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국사는 귀국 후 자신의 선법을 펼치려 했으나 당시 신라 불교의 주류였던 교종들은 이를 '마구니의 교설(魔語)' 이라고 비난하며 배척했다. 결국 도의국사는 설악산 북산 진전사에 머물면서 40년동안 은둔 수행했다가 제자 염거에게 법을 전하고 원적에 들었다.

도의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염거 스님도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음을 알고 수행에 전념했고, 제자 보조체징에게 법을 전했다. 육조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서당지장-도의국사로 이어진 선법은 보조체징 대에 가서야 비로소 한반도에 꽃을 피워낸다. 보조체징은 전남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서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열고 크게 선풍을 펼쳤다.

이처럼 선법을 배운 선지식들이 한반도 곳곳에 선문을 세운다. 선을 한반도에 가져온 것은 도의국사이나 나말여초에 형성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시초는 홍척이 세운 '실상산문(實相山門)' 이다. 홍척은 826년에 귀국해 지리산서 선법을 전했는데 '북산의남악척(北山義南岳陟)' 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화력이 있었다.

이에 홍척이 실상사를 창건하고 선법을 크게 선양하게 됨에 따라 실상산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곳에서 교화한 제자는 수백 명에 이르며, 흥덕왕과 태자 선강(宣康)이 귀의하기도 했다. 홍척의 귀국은 도의보다 늦었지만 신라에 선문이 개산된 것은 이 실상산파를 효시로 보아야 한다.

고려와 조선의 선 문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 초기에는 선불교가 크게 유행했다. 태조 왕건은 선종뿐만 아니라 교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각국사 의천이 구산선문에 대한 비판적 안목에서 천태종을 세우고 선교회통(禪敎會通)을 도모하고자 했고, 선종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 선종을 진흥시킨 선지식은 보조국사 지눌이다. 지눌은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했으며, 1200년(신종 3)에는 송광산 길상사로 옮겨 11년 동안 수행에 힘썼다. 희종은 지눌이 거처하는 송광산 길상사에 친서로 제방(題榜)을 내려 '조계산수선사(曹溪山修禪社)' 로 고친 후 이곳을 엄격한 수도도량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지눌은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교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과 교는 서로 떨어질 수

고려代 간화선 전개… 조선代 유지

'선교겸수 · 삼문일치' 강조 특징 보여

없는 사이"라고 선교합일을 주장했다.

고려 후기의 선종을 꽃피운 고승으로는 복구 · 보우 · 혜근 등이다. 특히 보우는 임제종을 도입해 새로운 선문의 조류를 형성하며 고려 말기의 불교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구산선문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건의했고, 간화선으로 후학들을 지도했다.

조선시대의 선종은 고려 말기의 고승 가운데 보우의 계열이 중심을 이루게 됐다. 조선시대 선지식 휴정은 선과 교의 병행보다는 선과 교의 기초 위에 조사선을 지향하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을 천명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선종의 법맥을 잇고 있으면서도 선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선과 함께 교학과 염불에도 크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련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선 만의 특징이 나타난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특징은 선교(禪敎)일치와 삼문(三門)일치다. 역사 내 선사들은 전반적으로 선을 바탕에 두고 교를 일치시켰다. 수행법에 있어서는 염불문(淨土)과 원돈문(敎), 경절문(禪)을 모두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선과 바라밀행이 하나되는 선행일치 사상을 통해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이념을 실천해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조계종 前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조계종은 선을 표방하지만 다양한 교리와 수행법이 존속돼 왔다. 하지만 조계종의 근간은 선(禪)이고 수행을 통해 해탈한 선사들이 있어 면면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서 "눈 밝은 선지식의 배출은 조계종의 힘"이라고 봤다.



한국禪 1200년

한국선 위상과 과제

명상 홍수 시대… 禪 가치 더 빛난다

도의국사로부터 전해진 한국선이 1200년을 맞았다. 조사선에서 간화선으로 전개되는 한국선은 새 시대의 치료약이자 생명과도 같은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처님 이래 인도와 중국을 거치면서 본래 성품을 깨닫는 방법 중에서 간화선만큼 발달된 수행법은 없다. 1,700년 전통의 한국불교가 '실전 간화선'으로 더 많은 세계인에게 불연(佛緣)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충주 석종사 보월선원에서 선원장 혜국 스님이 재가불자들과 함께 좌선을 하고 있다. 명상의 확산 속에 선수행의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행의 위상 제고와 명상산업 확대

시대 변화에 따라 현대인들의 삶은 각박해져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행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월가의 성공한 투자자 중 한명인 레이 달리오는 최근 명상 습관이 투자 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출판계에서는 명상과 관련된 책들이 연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대기업이나 시, 도 등 단체의 지원을 받는 명상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명상 붐으로 일어나 삶의 양식이 된 서양에서는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되어 '마음치유' '마음코칭' '심리상담' 등 심리치료에 자기계발, 춤과 음악 등 예술 등이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명상수행법은 심신치료 분야로 확산되고 심리치료사의 40% 이상이 명상법을 활용한다. 매년 명상 관련 논문이 1000여 편 이상 발표되고 700여 곳 이상에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BSR)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명상은 이제 생활의학의 단계까지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뇌과학과 양자물리학 등이 결합하여 마음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명상 효과나 의미에 대한 과학적 규명도 이어지고 있다.

명상열풍 속 선수행의 위치는?

이러한 명상열풍 속에 '선'으로 칭해지는 한국불교 전통수행문화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명상열풍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선수행과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선수행과 마음치유와 휴식 등을 목표로 하는 명상은 그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재현 동명대 교수는 이에 대해 "명상이 치료의 성격을 갖는데 비해 선수행은 피동되지 않는 참 사람을 구현하기 위한 인간교육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정의했다. 가령 명상지도자는 치료자의 성격이 강하다면, 선사는 스승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명상과 선수행이 혼재되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명상프로그램은 '명상수행'이라는 말로 유통된다. 수행이라는 불교용어가 붙으며 사마타, 위빠사나, 지관 등 불교용어를 응용하여 불교수행과 비슷해 보이는 모습을 띈다. 선수행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이 아닌 '공'함을 체득하고 그 번뇌없음에 기반해 본래 부처임을 깨닫고 부처로 행하는데 있음을 비춰볼 때 명확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명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뇌파가 달라지고, 신체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등의 통계로 치유효과를 증명하기가 쉽다.

하지만 선수행은 깨달음의 과정이기에 일반인들에게 그 과정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은 "명상 열풍이 선의 기회이자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선수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명상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선수행 자체에서의 변화도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깨달음 위한 선수행의 방편
명상수행 기법을 적극 활용
'수행' 속 의미 혼재는 단점
대중화 위한 10여년 불교 노력
생활참선 · 지도자 양성 꽃피워
코로나 사태 계기, 가치 부각돼

불교계,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선수행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불교계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템플스테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맞이해 불교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지만, 사찰의 문화와 불교 사상을 전하는 귀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수행을 지도하는 단체들도 변화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4년 8월 결성된 전국선원수좌회(의장 선법)는 선림회를 대신하여 수좌 스님들의 대의체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승가 내 선풍 진작에 주력해왔다면 최근의 행보는 이채롭다. 지난해 7월 재가불자모임 선주회(禪主會) 창립을 통해 매달 재가자들의 간화선 수행정진을 돕는다. 선주회는 3000여 재가불자를 회원으로 둔 조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창립 이후 행보가 정체되어 있지만 찾아가는 선원 프로그램, 수좌 스님과의 참선 지도 등 간화선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좌회와 별개로 수좌 스님들 중에서 이미 이러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곳이 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수좌 스님들과 명상지도자로 칭해지는 스님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선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간화선에 명상기법을 활용하여 대중화된 '선명상'을 내건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올해 4기까지 진행된 참선아카데미다. 혜국 스님 등 제방선원장 스님들을 초청해 간화선 이론실참 등 수행법을 현대화된 방법으로 배우는 참선아카데미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유튜브 강의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여기에 자격증 부여까지 나서 구랍 22일 해인사선림원에서 참선아카데미 심화교육인 '참선지도사 자격증' 1급 과정 집중수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집중수행에서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과 수좌회 의장 선법 스님, 수좌 정과 스님 등을 비롯해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이시형 힐리언스선마을 촌장, 전현수 전문의도 참여해 간화선의 생활화에 대해 논의했다.

오대산명상마을 옴뷔도 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와 함께 개발한 간화선 대중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도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함께 2012년부터 생활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입문과 심화, 전문과정이 상설로 진행돼 입문 12기, 심화 10기, 전문 6기까지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지도자코스도 개설, 재가 선지도사 양성도 나서고 있다. 불교계에서 선수행 대중화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선수행 대중화 과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간화선을 필두로 한 선수행의 대중화가 지속적으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선수행 대중화의 극복은 인식의 문제에 있다.

한국선학회장 정도 스님은 "학자들과 스님들의 경우 스승에게서 지도받고 참구하여 깨닫는 간화선의 특성상 대중화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는 수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위빠사나에서의 차제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는 의견도 많다. 산중에 수승한 법이 이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보았듯 시대적 위기 속에서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현대인들을 위해 입문과 심화, 전문과정 등으로 나눠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언택트 방식도 파격적으로 도입할 만 하다"고 말했다.

수행풍토가 조금씩 변화하는 지금,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재가수행도량 개창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수행지침 보급 등도 꾸준히 행해야 할 부분이다.

목우선원장 인경 스님은 "대중적 현장에서 간화선 수행을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접근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도 얻어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장에서는 간화선을 명상으로부터 독립시켜 구분하기 보다 오히려 명상의 일부로 이해했고, 이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한 방법들을 대중들이 수용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명상과의 접점을 활용한 대중화 가능성을 비쳤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코로나가 야기시킨 문명의 위기 속에서 선(禪) 사상은 생명과도 같은 희망이 될 것"이라며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선'이다. 실제 효용이 삶의 전반에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생활 속 선수행에 선의 참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 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 (02)3411-8103~4 kbhiksuni.org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금정구 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스님(범어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 동원스님(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스님(법연원 회주)
회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스님(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혜창스님(원효사)
부 회 장 법일스님(법장사) 개문스님(광명사)
홍일스님(법전사)
사무총장 동암스님(금용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기획국장 석산스님(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스님(대운사)
사회국장 혜공스님(구룡암)
포교국장 현수스님(홍법사)
사업국장 박 분 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스님(천불정사)
회 원 승공스님(칠보사) 진여스님(다보사)
청명스님(분다사)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Tel 051)583-9233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범산, 정현, 명현, 성문, 세운,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Tel 051)243-3531 http://www.bswia.org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정분남
감 사 김영신 김병관
부단장 송재린 박종안 이양희 주태돈
사무국장 손삼호
총괄팀장 임한규 이수임 김옥희 최우성 서영우
황기훈 심태섭 진상근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Tel (051) 633-3011, 3015 Fax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여여선원**

(양정시장 꽃상가 5층)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
산청보현사 주지 도일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
거제 여래선원 주지 효산
사량도관음낙가사 주지 효원
울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
동래 효심사 주지 효문
양산 보현선원 주지 효범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TEL 051)702-9944

지장기도도량

천 불 정 사

주 지 선 묵 고 담
법 사 범 성
원 주 조정자

신도회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총무 김영애
거사림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Tel 051)583-9233 Fax 051)583-6362

남 운 정 사

주지 **민 지 효** 합장

남운정사 홍익범패단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83번길 65
TEL 010-4466-3575

대한불교조계종

부산하고도 사상에 있는 **옥 천 사**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68번길 96-10(덕포동)
전화 010-2384-3450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TEL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각 사

범어사 정통 호국무예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달빛명상센터

주지 **안 도**

매월 음 14일 달빛 걷기명상
매월 음 15,16,17일 달빛 다라니기도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장산마을
전화 051)701-8827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현정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찬불가지도 이복금
피아노연주 김순옥

회원일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대법주 도 성 큰스님
정 각 큰스님

고 문 혜주, 해정, 법공
명준, 해문
회 장 호법
부 회 장 혜도, 해암, 혜진
정오, 혜각, 현여
사무총장 석인정사
이 사 대범, 성연, 청우
대수, 진명
감 사 해암, 혜진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발원사內 Tel 051)405-2326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김유리자 강명자
	김정순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부 회 장	윤미자 안상희
운영위원장	윤정희
감 사	강행순
총 무	박명자
재 무	강지원
팀 장	신미자 최옥희
	최말순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051)633-4020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7268-9959 (회장 장상목 교수)

법륜 불자 교수회

회 장 김성규 (영남대학교)
명예회장 조현춘 (전 경북대학교)
부 회 장 김남경 (경북대학교) 서상곤 (영남대학교)
김경회 (대구대학교) 장호경 (대구한의대학교)
이준일 (대구보건대)
감 사 김철진 (경북전문대학) 이정희 (대구한의대학교)
총무이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무이사 김보영 (전 대구예술대학교)
재무이사 이영애 (전 대구보건대학교)
편집이사 이동석 (동국대학교, 경주)
정보이사 김성삼 (대구한의대학교)
사업이사 김한철 (영남대학교)
제도복지이사 성희자 (경북대학교)
불교문제위원회 강수균 (전 대구대학교)
불교문화재위원회 최영식 (전 영남이공대학교)
불교사회위원회 신준식 (전 대구대학교)

법륜 불자 교수회 일동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신성애
기획이사 마나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외 이사 일동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부산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 2층(수정동, 은정빌딩)
전화(051)853-0429 팩스(051)853-0429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

차 한잔하듯 나누는 스님과의 고민 문답
36개의 일상적 고민, 36개의 부처님 해답



목종스님 지음

YouTube 불교 바로보기TV 검색하세요.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TEL 051) 742-7610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박민식 정홍섭
김수현
부 회 장 김종백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허성하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총무이사 안천일
홍보이사 박차수
섭외이사 이헌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상호 박효근 윤경석
이재동
회 원 강석진 곽방보 김인석 박기원 방택훈
손만형 손봉주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양승찬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정출 이학우 조보익 최대경 진남일
재무총장 이현수
친목이사 배도정
기획이사 박창근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지 무 아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Tel 051)646-0843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신선덕행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종합 어린이집
문수 노인 통합지원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Tel 051)624-3754, 7848
Fax 051)623-9253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포교사반(1년) · 입문자반(3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전송 051)271-0936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진 광
종무국장 원 경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9
Tel 051)464-0668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지원장 김 수 현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한국禪 1200년

한국선 대중화 현장

ART禪 · APP禪 · Street禪… 새 수행 발견

간화선 대중화의 필요성이 강조된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선수행은 새로운 변화 양상을 띄고 있다. 산중에서 선사들의 수행과 함께 도시에서는 현대 IT와 예술이 맞닿은 새로운 수행문화로 전개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Street 산중서 거리로, 선수행의 변화

2019년 10월 5일 강남 한복판에서는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강남한류 명상페스티벌을 연 것이다. 청명한 날씨 속에 이날 명상페스티벌에 참가한 1000여 대중들은 각산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입정에 들었다.

시민선방 등 전국 각지에 대중들을 위한 선수행처는 많지만 이처럼 대중들이 선수행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 선수행을 접할 수 있는 계기는 소중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에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스님은 "참선과 명상은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얻는 과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참선, 명상을 통해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한다.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참선을 할 수 있기에 조금씩 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선지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22일 해인사 선림원에서 3일간 참선지도사 자격증 1급 과정으로 집중수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집중수행에서는 불교수행법과 정신의학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수행과 현대과학과의 접점도 함께 모색돼 눈길을 끌었다.



2019년 10월 5일 서울 가로수길서 열린 페스티벌 당시 모습.

Art 예술과 융합된 선문화 진화

선수행을 넘어 선문화가 예술작품과 만나는 것 또한 일반 대중들이 선수행에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한국禪-잇: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서는 예술작품으로 선을 접할 수 있도록 참선 수행과 명상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작품과 현대미술작가들의 예술 작품이 함께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 석주 스님, 성철 스님, 월하 스님, 중광 스님, 한암 스님, 법정 스님, 탄허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의 글씨와 그림을 비롯해 김중만, 박혜숙, 김영진, 김윤 작가 등 12인의 작품 100여 점이 함께 전시됐다.

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스님은 "선은 개혁이다. 지금까지의 나를 바꾸는 일"이라며 "선과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전시 의미를 전했다.

이와 함께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 의정)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근현대 선지식들이 남긴 선서화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선서화전을 열기도 했다. 전시에는 경봉 스님의 '무진장', 청담 스님의 서예 '불불불', 서옹 스님의 서예 '수처작주', 송담 스님의 '달마도' 등이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0월 20일 탄허기념불교박물관서 열린 선과 현대미술의 융합 전시전.

App '화두' 제시 애플리케이션 눈길

전국선원수좌회가 선보인 스마트폰 앱 '엠티(Empty)'는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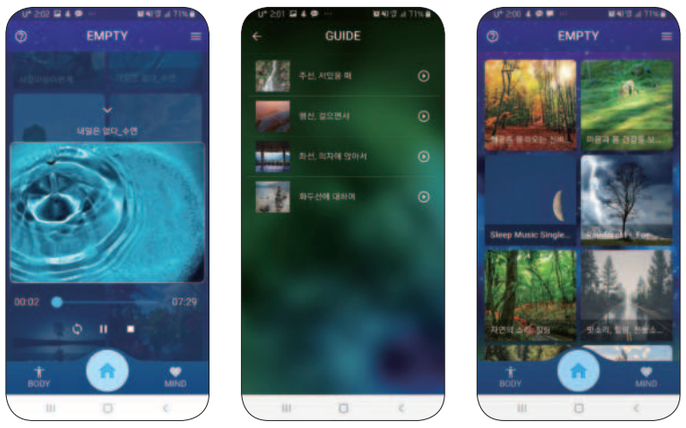
지난해 6월 20일 출시된 엠티는 선수행 앱으로 한국 전통선에 기반해 마음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최근에는 개인 프로필 기능도 업로드 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은 "좌선해서만 참선하는게 아니고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화두만 들면 선"이라며 간화선을 생활화하기 위해 '엠티(Empty)'를 개발한 배경을 밝혔다.

2년간 연구·개발을 거친 '엠티(Empty)'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10분간 화두참구를 하며 간화선에 대한 지도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뭣꼬'라는 화두가 탑재돼있으며, 고선 스님의 '이별통보', 수연 스님의 '내일은 없다', 월암 스님의 '구경행복' 등 선사들의 마음치유 선시낭독도 함께 들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식마음수행법, 슬리핑 뮤직 등 실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음원 등을 함께 제공한다.

현재 개발사는 '엠티(Empty)'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말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고민상담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고민상담소에서는 수좌 스님들이 직접 수행자들의 고민에 대해 온라인으로 답한다.



Youtube 온라인 '참선' 콘텐츠 봇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는 언택트 선수행도 하나의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자 공간에서 참선수행하는 불자들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도점검해 주는 활동들이다.

재가자 생활참선 문화를 이끌고 있는 불교인재원도 최근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행 지도에 나섰다. '생활참선 공부' 네이버 카페에서는 특히 참선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하고 즉석에서 질문도 바로 받는다. 그날 온라인 강좌가 끝나면 복습용 영상을 카페에 별도로 게재한다.

이 같은 방식은 쌍방향 소통이란 점에서 간화선에서의 스승과의 법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댓글을 통해 수행 중에 든 의문 등을 남기고 이에 대해 지도하는 강사가 답해준다. 다만 동시시청으로 인한 1:1이 아닌 1:다수의 지도가 차이점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선수행 관련 콘텐츠도 늘고 있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의 경우 '참선과 명상 차이와 주의할 점' '생활 속 선수행 방법' 등이 2만회가 넘는 조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다.

해운정사 채널의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바른 참선법', 불광미디어의 '월암 스님의 시공간 경계를 허문 간화선 수행법', BBS불교방송의 '간화선 대법회, 선사들의 즉문즉설' 등도 일반 대중들이 간화선을 비롯한 선수행에 친밀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선과 명상의 차이와 입문과정을 설명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2021 謹賀新年 신축년

한국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TEL 1670-2010

한국禪 1200년

4人4色 전문가 대담

‘K-참선’ 미래, ‘인재양성’에 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821년. 도의국사가 신라로 돌아왔다. 귀국한 도의국사는 설악산으로 들어가 운둔했고, 그곳에서 선법을 펼쳤다. 2021년은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선을 전한지 꼭 1200년이 되는 해이다.

선 전래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선의 전래로 한반도에 수행과 깨달음을 통한 인간해방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봤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교학불교와 의례불교가 성행하던 통일신라 말, 도의선사에 의해 드디어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直指人心) 그 성품을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見性成佛)’는 조사선의 종지가 도입된 것은 한국불교사와 사상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중생이 부처요, 사람이 부처인 선불교의 도래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에 수행과 깨달음을 통한 인간해방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동명대 선명상치유학과 교수는 “선의 전래와 그것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은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당시 한반도가 대륙의 지성사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월암 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禪 전래, ‘한국 인본주의’ 기틀

‘朝參夕聚’ 선원 전통 되살려야

언택트 시대 맞는 지도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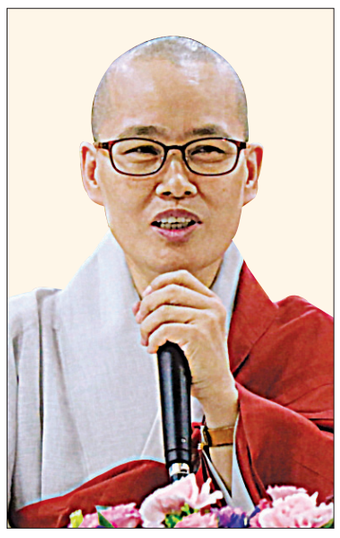


정도 스님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선문단련설, 내 · 외전 겸수 강조

시대언어로 해설 · 지도는 ‘과제’

다양한 역량 갖춘 납자 양성을



정운 스님 조계종 前 불학연구소장

선·교·염불… ‘삼문일치’ 강조해

한국선 알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사대주의 벗어나 고유성 찾아야



박재현 동명대 선명상치유학과 교수

사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결과

현 교육체계, 선지식 배출 어려워

“영상 지도, 자세 흉내내기 정도”

禪, 한반도 정신문화 영향지대

중국서 시작된 선은 한국으로 전래되며 한국 선만의 사상 · 문화를 형성했고, 한반도 정신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종파를 중심으로 중국불교가 형성됐다면 한국은 ‘구산선문’이라는 선문(禪門)을 중심으로 선법이 펼쳐졌다”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는 선사상이 깃들어 있다. 끽다거와 화두,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같은 표현들은 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조계종 前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한국의 선은 오롯이 선만을 지향한 경우보다는 선과 교를 모두 인정하며 일치를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선을 바탕에 두고, 교를 일치시켰다. 선주교종(禪主敎從) · 통교귀선(通敎歸禪) 적인 선교일치”라고 설명하며 “수행법에 있어 염불문(念佛門 · 정토) · 원돈문(圓頓門 · 교) · 경절문(徑截門 · 선) 삼문을 지향한다. 선교일치와도 맞닿는데 조선 중기부터 시작해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 삼문일치가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월암 스님 역시 선교겸수와 선행일치를 한국 선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과 바라밀행이 하나 되는 선행일치 사상을 통해 선 수행은 안심입명의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요익중생이라는 실천행으로 중생에게 회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심이 불심’이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선불교 사상은 신이나 부처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며, 훗날 동학의 ‘사람이 하늘(人乃天)’이라는 사상과 실천 또한 이러한 인본사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원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지난해 11월 전국선원수좌회 좌담회에서 “좌선 일변도의 수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일갈한 前 해인사 선원장 효담 스님의 비판과도 맞닿는다.

정운 스님은 “현실을 성찰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의 발전은 없다. 효담 스님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 이 비판은 곧 우리나라 선이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며 “생사(生死) 자체가 열반 경지이므로 굳이 좌선이 강조되어야할 이유가 없다(道不用修 但莫汚染). 좌선만이 강조된다면, 임제종계의 간화선이 아니라 조동종의 묵조선(只管打坐)”이라고 지적했다.

‘선교겸수’가 한국 선 수행의 본령임을 재차 강조한 월암 스님은 “불조의 가르침은 선과 바라밀행이 둘이 아닌 선행불이(禪行不二)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선문의 병폐는 분명 일률적으로 좌선에 함몰되어 오직 고목선(枯木禪, 고목처럼 앉아만 있는 선)만을 지향하는 선원 행태일 것”이라며 “모든 경전이나 어록이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착안해 보면 현재 선문의 수행풍토 또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의 상당(上堂) · 보설(普說) · 참문(參問) · 소참(小參) · 선강(禪講) · 거량(擧揚) · 탁마(琢磨) · 점검(點檢) 등 다양한 선수행 방편의 장점을 되살려내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행 납자를 위한 충언도 이어졌다. 월암 스님은 “선원청규 상 총림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조참석취(朝參夕聚, 아침에 묻고 저녁에 모인다)’로 매일 장로 선지식에게 법을 묻고 법문을 듣는다는 의미다. 우리 선문에 이러한 전통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선문의 납자도 당연히 단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선자(修禪者)가 지극한 단련을 통하여 얻은 중도정견(中道正見)의 선지를 시대 언어와 문자로 대중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은 기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도 스님은 “명나라 회산 스님이 지은 〈선문단련설〉에서는 외학과 내학, 내전과 외전을 모두 충실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에 맞는 맥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현재 선문화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상 붐, 기회이자 위기

최근 명상 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도 스님은 “명상이 일반인에게 친숙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라며 “한국불교의 간화선은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그 내용은 매우 깊은데 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망했다.

월암 스님은 “신심안정과 정신치유 등 낮은 단계의 여러 명상문화의 현상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종국에는 선으로 인도하는 것은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특히 뇌과학과의 접목은 현대인들에게 선의 대중화와 과학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교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만큼, 가짜정보도 넘쳐날 수밖에 없다. 명상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도래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선 수행 지도에 대해서는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라고 강조한 정운 스님은 세계적 가수로 성장한 아이돌 BTS의 예를 들었다. 2010년 데뷔한 BTS는 인지도가 낮아 방송 출연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2013년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4년 만에 미국에서 엄청난 팬덤이 생기더니 2017년 아메리칸 뮤직어워드(AMA) 소셜 아티스트 1위를 차지했다.

정운 스님은 “한국불교 역시 이 같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 △한국선의 역사 △조사선과 간화선의 이론 △간화선 실참 △한국의 명안종사 소개 △조계종의 역사 및 여러 수행법 소개 △현 승려들의 삶과 수행 등을 소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월암 스님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선수행 지도방편을 구사해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앱 개발,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비대면 명상문화 창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필코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원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재현 교수는 언택트 수행 지도는 한계점이 여실하다고 봤다. 박재현 교수는 “배우이자 제작자로 유명한 송승환 씨는 ‘언택트 시대에 공연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연은 대체 불가능하다. 생선회를 통조림에 넣어서 팔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 수행은 공연보다 더욱 그렇다”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줌(Zoom)을 통해서 좌선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의 선 수행은 딱 거기까지”라고 밝혔다.

한국선문화 진흥 어떻게

한국 선수행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 과제에 대해서는 인재양성, 한국불교 고유성 찾기 등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월암 스님은 “선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중생과 더불어 공감하고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조계종의 모든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선수행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기본선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이력과정에 혹은 이력과정 이후라도 3년 이상 선의 이론과 실참을 병행해 출가자라면 누구나 기본과정의 선(명상) 지도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도 스님은 인재 불사를 강조했다. 스님은 “세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저력은 20년 가량의 철저한 교육제도”라면서 “최근 동국대 선학과에서는 명상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개설했다. 선을 배우고 수행하며 이를 회향하는 과정을 함께 배우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려들 자신의 본분사에서 진정한 발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운 스님은 “선방이나 공부하는 승가대학 등에서 일부분이나마 재가자들에게 문을 개방해야 한다. 선방을 승려 전용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출재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꿔보자. 이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출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불교 고유성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운 스님은 “한국불교는 사대(事大)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마치 서구의 불교학이나 심리학과 접목된 명상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 불교계에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에서 한국불교 전공 분야에 주목을 많이 받는 고승이 원효 스님과 보조국사 지눌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교수는 “한국 선 전통의 정체성을 뚜렷이 정립하는 것이 선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승가교육체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세속적 교육체계는 눈 밝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우수한 교수요원을 승가교육체제로 끌어들이고, 우수한 자질의 수행자가 승가교육 체계 안에 남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학 같은 세속적 교육체계로는 키워낼 수 없는 훌륭한 수행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신축년, 힘찬 기운으로 200만 부산 불자들의 신심을 결집하여 불도 부산을 일으키겠습니다.

회장 박수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2021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단

■ 고문
박원양 장복만 김재진 박정오 조효식 이윤희
설동근 전광수 이영숙 김수현 하정선 정분옥

■ 자문위원
이장호 김진수 박무성 김영섭 박태학 박한일
전호환 정홍섭 박홍대 박순곤 고영립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친목부회장 배상진 총무부회장 박종문
교육부회장 최대경 경조부회장 신기열
기획부회장 이희태

■ 부회장
윤종경 박효섭 박영근 박수곤 김종한 이종우 최순환
유영남 강경희 노종헌 장호익 김정화 김상훈 김영도
공정근 최상곤 손정원 류길자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경조이사 오세룡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박근배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섭외이사 이만수 정임숙
의전이사 정연식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배도정 이현수
친목이사 문종헌
홍보이사 손정현 정지원

집전 류상영

■ 이사
정분남 강근순 강길주 권혁란 김선일 김성익 김순례
김영자 류강렬 백정진선 안천일 유진상 이동진 이명학
성재곤 심인택 정순천 허 준 하승준 박수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808-8600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령선원(재가선원)

회 주 **금아 혜국**
주 지 **성 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051)804-1037
www.hjsa.or.kr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 지 **자 인**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0408, 5224
FAX 051)973-3076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지 **청 암 자 관**
신 도 일 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Tel 051)552-3320

동 국 한 의 원
(구, 홍코치한의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세요'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동삼동)
한나타워 209호 Tel (051)413-1155

대한불교
조 계 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Tel 02)927-0588 / Fax 02)927-5390

대한불교원효종
성황산 **미타사**

주지 **경 오**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마곡로 141 (수성동)
063)533-1373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 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법산 경일** 대종사
이사장 **정은용**

www.dongsanbud.net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
법인 **미 소 원**

상담 · 봉사 · 수행 · 후원
이사장 **장 유 정**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 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주 지 **지 용**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 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루리
무 량 사

주 지 **법 천**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59-9번길 온천2동
TEL : 010-2426-1766

(주)엘티유이엘씨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일반건축, 실내건축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1길4, 102호
TEL 051-728-5562 FAX 051-557-5587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관음도량
계 명 암

감 원 **선 재**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TEL : 051)508-4345

한마음 건축

건축 인테리어
설비·배관 리모델링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25(염포동)
TEL 052)289-1276
이메일 sxo1213@naver.com

WON 원프라스틱(주) WONPLASTIC Co.,Ltd.

노인 복지용구 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개발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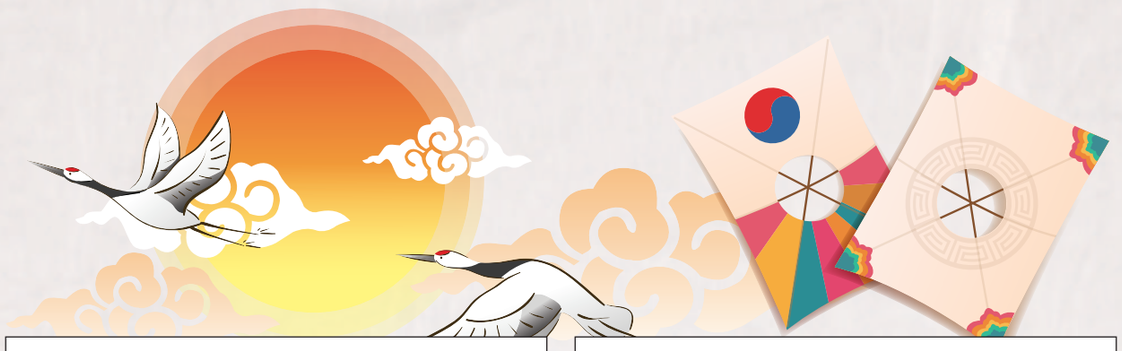
50848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224
Tel. 055-345-9290 / Fax. 055-345-9293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 흥 사

주지 **덕 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TEL 061)382-0574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사

주지 **해 청**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무등로 1514-35
TEL 062)266-0326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TEL 062)224-7666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지 **상 진**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29
종무소 062-652-6050

대한불교대광종

총본산 서 산 사

종정 **무등 근원**

사부대중 일동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산길 260
010-5027-8894

지장도량

미 륵 사

주지 **혜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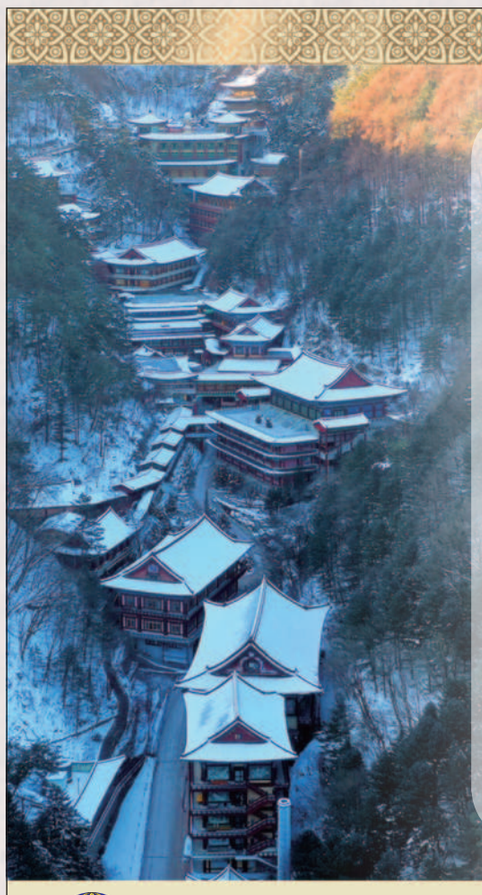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 도 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김갈수**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원**
종의회부의장 **김세운**
김우영

감사원
감 사 원 장 **조진덕**
감 사 위 원 **곽수산**

종정사서실
사 서 실 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신축년 새해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종의회의장 우인 정사
사감원장 법경 정사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선 정사

불교총지종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전화 02)552-1080~3 | www.chongji.or.kr

신축년 새해 신앙의 힘, 기도와 정진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후묘年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정 심 월 총무원장 덕 우

(사)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총무원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103(상계동, 도선사) **전화** 02)2091-0408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 다문화 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화 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승정원장 **향운**
승 정 **혜공, 인봉,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천장**
총무부원장 **보봉**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정현**
규정부장 **경월**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혜인**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혜원**
포교원장 **보명**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교육원장 **남륜**
교육부원장 **법지**
기획원장 **성각**
기획부원장 **여송**

각 교구 종무원장
중앙신도회장 **김상흔**
서울·경기 종무원장 **천장**
충 북 종무원장 **정연**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충 남 종무원장 **성현**
경남·울산 종무원장 **해산**
대구·경북 종무원장 **혜송**

중앙종회 종회의원 **도우 보명 묘현 일선 성현 성화 성각 혜원 정연 혜관 응진 지연 지화 자원 해불 해산 성덕 해인 도암 보광 혜인**

종도일동

총무원: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773-66 Tel 043-878-0109, Fax 043-878-0103

신축년 새해, 동체대비로 화장세계 열자

서로 배려 · 인정하는 원융 · 상생 길 가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나날이 새 아침이건만 묵은해를 보내고 신축년(辛丑年)의 새 아침에, 떠오르는 광명(光明)이 부처님의 법음(法音)으로 화(化)하여 천둥으로 울리고 번개의 섬광(閃光)으로 온 세상에 무차(無遮)로 비추니, 산하대지(山河大地)가 그대로 화장세계(華藏世界)이고 태평성세(太平盛世)입니다.

거년(去年)에 전(全)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은, 인간내면(人間內面)의 정신세계는 등한시하고 오직 물질과 편의(便宜)만을 추구한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심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공포와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주법계(宇宙法界)는 인드라망이요, 연기(緣起)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가 한 집안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이므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생태의 파괴는 곧 인류의 자기 훼손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반목, 대립과 분열을 물리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원융(圓融)과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갑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위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합시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행복(相生幸福)을 만들어 갑시다.

나고 날 적마다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간절히 참구(參究)하고 또 참구하여 진정한 참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참나를 깨달으면 그곳에는 시비(是非)도 없고 분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합니다.

화합과 동참의 시대 열자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새해에도 태양은 동녘에 떠올랐습니다. 대일법신의 혜광慧光이 사바의 아픔을 걷어내고 온 세상에 밝고 맑은 서기瑞氣가 샘솟아서 화합과 동참의 희망이 항상하길 서원합니다.

심인진리의 종문이 불법의 새 지평을 열고
생활 중에서 깨달아가는 방편을 베풀었으니
불교의 혁신불사를 여법如法하게 지속하여
즉신성불과 현세정화의 서원을 새롭게 합시다.

만물은 화합에서 생성하여 천차만별이라도
법계는 일여一如여서 본래 화합상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여 배려하고 동참하면
이웃이 어울려서 평등 사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인류는 미증유의 질병을 경험하며
생업이 험난하고 생명이 지쳐 위태합니다.
탐욕과 오만의 인과를 먼저 깨쳐 참회하고
생태를 보살펴서 병역의 고리를 막아냅시다.

종교인이 상승相乘의 교화를 살려내면
정치가는 상보相補의 정책으로 쟁론하고
경제계가 상생相生의 경쟁을 궁구하여
온화한 웃음이 넘치는 시대가 기다립니다.

금년 새해에는 병病 빈貧 쟁諍의 아픔을
넘어 따듯한 손길로 함께 보듬어 갑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021년 신축년 새해의 여명이 밝아 옵니다. 근면함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흰 소의 해를 맞아 국민과 불자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되길 기원드립니다.

2020년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명과 경제적 피해가 많았고 일상의 단절로 인해 사회의 온기도 낮아졌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맞이한 국민들은 자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동체대비의 마음을 실천해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많아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립은 격화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단단한 응집력으로 변화는 능동으로, 대립과 갈등은 포용과 상생으로 사회를 따스함으로 채워갑시다.

신축년 새해, 지혜롭고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지치고 힘든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희망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상생도약하는 한해 되길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종교는 인간 내면의 정화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자인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밑바탕이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우리 불교계는 물론 우리 종단도 정체성을 바로 찾고 확립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으며,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와 인류가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인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깨우쳐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신축년 '흰 소'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교훈 삼아 소처럼 더욱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과 꿈을 향해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 더욱 단단해지고 매화 향기도 추운 겨울에 더욱 짙어진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및 종도와 불자님들께서도 흰 소처럼 더욱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욱 더 행복하게 상생도약 하는 광명(光明)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법으로 밝은 삶 열어가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올해는 흰 소의 해입니다. 불교에서 흰 소는 정진과 깨달음의 상징이며, 강한 인내력과 정직, 근면의 상징입니다. 신축년에는 모든 질병이 소멸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운이 융성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으며 불자들은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성실하게 임하며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맞이한 새해에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정한 일심을 지켜가고 드넓은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고뇌를 성불의 토양으로 삼고, 치성한 병마를 건강의 디딤돌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본래 청정한 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수록 지극하게 정법에 귀의하여 밝은 삶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는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면 보이고 착한 마음으로 비추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신축년 한 해 동안 모든 사람이 대승의 보살도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밝은 사회를 회복합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새해입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자성을 밝혀 밝음을 되찾도록 정진합시다. 지난 한해의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는 역사의 한 순간으로 내려놓고 서원을 세워 참회하면서 정진하는 가운데 자성을 밝혀 밝은 사회를 회복합시다. 자성부처님을 찾아 생활 속에서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면서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성취해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고 주변을 정화함으로써 새 세상을 열어갑시다.

인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지키는 일은 숭고합니다. 더불어 살려는 의지이자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합시다.

진언행자와 불자들의 안녕을 바라며 소원한 바가 성취되고 국가의 정치, 경제발전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며 세계가 더불어 잘 사는 만다라공동체를 구현합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입니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더 얻으려하기 보다는 비워서 즐거운 이치를 깨닫고 상대자의 저 허물이 내 허물의 그림자이듯 이해하고 보듬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이 보살의 정토가 되도록 다 같이 서원하고 정진합시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내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경자년 한 해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일 년 내내 지구촌의 사람들을 괴롭힌 한 해였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런 세월을 우리들은 염불과 기도 그리고 참선으로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이겨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인연법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가르침을 비유와 방편으로 우리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도 인연법에 의해 발생하고 창궐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영생불멸도 없으므로 '코로나19' 또한 사라져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평소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 하시되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비유품을 통하여 "여래는 중생들의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일편단심 참구하라

지허 스님
태고종 종정



새해라 하니 새해가 어디서 왔는가? 지난해를 보냈다니 어디로 보냈는가? 새해는 신축(辛丑)년이라는 소(牛)를 상징하는 해이다. 소는 일생을 일만하다 죽고 죽으면 전신을 낱낱이 사람들에게 보시한다. 도(道) 닦는 사람은 승속(僧俗)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일상(日常)속에 참구하고 법을 보시한다.

예로부터 도(道)를 성취한 대선지식(大善知識)들은 열반한 뒤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뒷산에 소가 되겠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달력이나 넘기면서 호구지책(糊口之策)에만 메여서 살아야 되겠는가. 몸은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살고 마음은 일편단심 도(道)에 들어 참구해야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은 껍질이고 마음의 복은 복의 내용이다.

코로나 병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복(福)의 내용을 채우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하니 내용이 충만하고 보기도 아름다운 큰 복(福)을 새해를 맞이하여 가득 받기 바란다.

법의 향기로 마음 채우자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보라도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중생의 번뇌도
지혜의 광명이 빛나는 자리에
흔적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불심이 깃들어있으니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이 빛난다면
깨달음의 도량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서 부처님을 보며
법의 향기로 마음을 가득 채워
모든 이웃을 공경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실 것입니다.

공덕을 온 누리에 두루 나누며
국태민안과 인류의 평화를 발원하며
화합과 기쁨의 새해를 열어 가십시오.

창종 50년 열어갈 것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금년은 원정 종조님께서 이 땅에 정통밀교를 세우신, 창종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총지종이 이제 성숙된 저력으로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구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승단과 교도는 하나 된 마음으로 오직 실천으로 종조님께 보은해야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크나큰 시련은 우리 총지종으로서는 창종 50년사의 대 시련 고개이며, 앞으로 100년사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법계의 대 법문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신축년 새해는 가장 의미 깊고 또한 대망(大望)의 싹을 틔우는 전화위복의 역사적인 한 해가 되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합시다.

난관을 헤쳐나가는 길은 화합과 상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공동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소'가 지닌 품성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함과 강건함, 용맹정진으로써 난관을 극복해나갑시다.

인연(因緣)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새해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승 목탁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업이라도 이 순간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에 더 적극적일 때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고통받고 그늘진 곳에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새해에는 인간방생 중생구제의 새 장을 여는 뜻깊은 좋은 날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열어 놓고 언제나 만나고픈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사람이 많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더 성숙된 자비로운 수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나와 불성 찾아 코로나 극복을..."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무척 힘든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여명의 아침이 밝아 오듯이, 고통과 어려움도 찬란한 아침 햇빛 속에 자취를 감추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안의 마음을 굴리고 굴려서, 참나와 불성을 찾으신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우주 시방세계에 넉넉한 마음들이 전해져 병마를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새해 청정심으로 코로나19 없는 불국정토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이야말로 신심을 부동으로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이토신소



신축(辛丑)년 초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더불어 불교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뇨엔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에게 다가가 이타행을 실천하며 보다 빠른 사태의 개선과 수습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신뇨엔 개조께서 83년 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록해놓으신 중생제도 기서의 말씀 '恒明의 誦' 입니다. "일심의 '진심' 을 담아 기도하라. 무슨 일이든 순하게 받아들여 지혜의 눈을 떠라. 혜안을 열어 앞날을 밝게 보라. 신심을 부동으로 하라. 강하게 하라." 지구 재난일수록 利生과 기도의 힘, 그리고 강한 부동의 마음으로 지혜의 눈을 떠서 자비의 실천을 통해 희망의 빛을 끊임없이 밝히며 앞날을 밝게 열어갑시다.

중연소생(衆緣所生)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부처님은 우주(宇宙)의 당체(當體)이며 만상(萬像)은 부처님의 분상(分像)입니다. 부처님의 경지는 넓어서 끝이 없고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신축년 새해도 희망차게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심각한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와 경제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올해의 꿈일 것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중연소생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축년을 맞아 모든 인류가 행복과 평화로운 날들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땅 극락낙원

대한불교 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
가정마다 천지의 기운 가득 쌓이고! 온 세상에 대일광(大日光)이 가득히 빛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온 세상을 욕심과 오염으로 더럽히니 자연의 그 재앙을 현세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되어 전염병 바이러스로 죽는 고통의 병난을 부릅니다. 종교인은 수행의 도를 갈고닦아 바른 법문 진리 말씀 전파하고 세속인은 계율 따라 정직하고 깨끗하게 우주 자연을 보호하면 아름다운 평화의 땅 극락 낙원의 참세상이 열립니다. 〈나쁜 업장 참회하는 진언〉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질병퇴치진언〉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쏘하(108염송) 제불보살 관세음보살 찬탄합니다.

이겨내어 희망찬 한 해를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신축년 새해, 새 아침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 추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으로 다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지쳐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K방역으로 상황을 진정시켜 코로나 최강국으로 손꼽혔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국민이 同苦同樂(동고동락)으로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에 힘써 나간다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반드시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등불을 심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시다.

대자대비의 화엄세계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하나마다 귀를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요, 하나하나 실천하면 곳곳이 대자대비의 화엄세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사실은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무분별한 삶이 만들어 낸 질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 이 아니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군주와 백성을 인격적으로 교화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려웠던 묵은 해는 다 잊으시고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는 모든 중생이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란 끝없는 번뇌와 시비다툼으로 오염된 혼탁한 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밝고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집착으로 인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서고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밝혀지기를 서원 드립니다.

내면을 성찰해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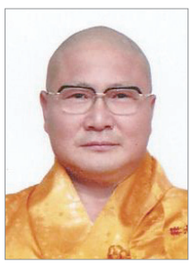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혜안



말세(末世)의 살생업(殺生業) 서방(西方)이 때리니 살풍(殺風)으로 지는 낙엽이 천지를 덮는 도다. 숙살의 금풍(金風)이 춘화(春化)를 그리워하며 지리산(智異山) 구재봉이 무량광(無量光)을 발(發)하건만 뉘라서 이 소식을 알겠는가. 계룡의 연산(連山)이 개벽을 알린지 百年이 지났고 문수산의 칠봉(七峯)이 죽림(竹林)에 등불 켠지 77代 밤마다 북두칠성이 미륵에 방광(防光)을 하건만 탐.진.치(貪嗔痴) 삼독(三毒)에 눈멀어 보고 듣는 이가 없구나. 시비나 성패도 지나고 보면 허무(虛無)한 것. 삭풍에 귀뚜리 목이메여 울지도 못하니 큰집 속에 비대면 노(老)처녀 恨萬端(한만단) 되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깨닫고 보면 법 없음도 없느니라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本來付有法(본래유법)이니
付了言無法(부료언무법)이요
各各須自悟(각각수자오)면
悟了無無法(오료무무법)이라

본래 있는 법 전하니 전한 뒤에는
법 없다 하더라도
각각 깨닫고 보면 법 없음도 없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대립과 갈등을 상생과 화해로 ...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세월이 일깨워주는 성쇠(盛衰)와 고락(苦樂)의 섭리(攝理)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시위와 정권 교체로 숨 가쁜 변화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온갖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이 신음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대란 모든 탐욕과 무지를 벗고 대립과 갈등을 상생과 화해로 전환시킬 때 완성됩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하며, 나와 가족을 넘어 지구촌 모든 생명의 안전과 평화의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찰나의 불심을 모아 성불의 길로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신축년 새해가 밝으니 곳곳에 희망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종교의 근본적 목적은 인간의 내면적 인격을 바꾸어 보다 더 나은 세상의 평화 행복, 찰나의 불심을 모아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광명은 항상 시방세계를 비추어 주듯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자비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정심(正心) 공도(公道)를 세워 불국정토를 이루며 화합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새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와 덕성을 갖춘 자기 모습에 자각하여 번뇌에서 해탈 일체중생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용맹정진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우리 사바세계의 삶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좋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 하나를 제대로 잘 다스리면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 마음을 활짝 열어 밝은 미래를 향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를 생각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마음으로 용맹 정진하여 본성 불에 마음 밝혀 끝없이 지혜로운 보살행을 실천합시다.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고 새해 신축년 밝은 안목으로 발돋움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화합하여 복덕 쌓아 희망찬 한해를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서호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에 안정에 힘쓰고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꾀하여야 하고 민족의 번영만이 평화통일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우롱하고 부인하는 어두운 땅 북녘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고루 내리시어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생의 용기를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아집 편견 과욕에 의한 갈등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비 화합 평등 자주의 부처님 정신이 청정무구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처방이며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의 참된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심과 아집을 버리시고 서로 화합하여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나눔으로 희망의 길을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요. 의료진, 봉사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푸는 모든 분들의 정신에 부처님의 명호로 무한한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려움을 이겨 낼수록 자비심은 증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자비 나눔으로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혀 줄 희망의 길을 열어갑시다.

꺼지지 않는 영원의 등불이어라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명등(長明燈兮不滅燈)
청징사해만인낙(淸澄四海萬人樂)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실원성취다복년(悉願成就多福年))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사람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 기리기리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사해 청정하고 만인이 즐거우며 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 해가 되소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길

(사)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저물어가는 경자년을 보내면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혼돈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쉼 없이 변하는 번뇌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중생들이 지닌 영원한 본성 즉 불성을 찾아야 합니다. 신년 새해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욕심을 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마음은 다 녹여버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의 인생 참된 도리를 깨닫기를 삼보전에 두 손 모아 발원하옵니다.

끊이없이 정진하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승



時時刻刻 速經日夜
日日移移 速經月晦
月月移移 忽來年至
年年移移 暫到死門
-원효스님 발심수행장중-

佛子들이여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임을 잘 살펴 알고, 모든 부처님은 시공을 다 초월하여 이미 다 이른 부처임을 불자라면 잘 알아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옳지 않겠는가. 깜짝하면 죽음이 문 앞에 시한부 인생이 아니던가!

동체대비를 일으키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던 우환폐렴(코로나19)으로 혼란한 시국이 연일 되어 많은 불자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힘겹고 숨찬 波高가 밀려와도 우리는 언제나 그러했듯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딛고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번뇌 속에 범부는 부처를 만나고, 고난 속에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서로를 아끼고 감싸 안으며 온정을 나누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가득한 한 해 되시길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어려움이 많았던 경자년을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은 채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도 묵묵히 나아가는 달구지를 이끄는 소의 의지력을 생각하시어 우리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비로 하나돼 위기 넘기자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우리는 자비심으로 하나 되어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서로의 주위를 살피고 온정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불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선함을 행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정각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화쟁'의 가치로 화합하겠습니다. 상생의 정치, 봉사의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련과 풍파를 겪어낸 들꽃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 역시 부처님을 닮아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비·화쟁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 곳곳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교육 혁신의 새 미래 열 것

윤성이 동국대 총장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불교계에서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미래불교를 향한 연꽃이 활짝 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가파르게 하였고 교육 전반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켰습니다. 대학 전반의 창조적 혁신을 위해 동국대는 미래사회와 학생들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체계와 교육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반드시 일으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국대 미래를 밝혀야 합니다. 동국가족 및 불자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 아래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청년도량의 원력 보태주길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사회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변화가 격심할수록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 온 가치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방대학에 더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불교의 내일을 이끌어 갈 미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힘들더라도 불교 천년을 기약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청년도량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청년도량을 꿈꾸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행보에 더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원력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불자님들과 국민이 더욱 건강하시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구성원이 다함께 기원합니다.

자비 지혜 갖춘 인재 양성

정용덕 금강대 총장



어찌 보면 이 펜데믹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인류가 문명 진보라는 이름하에 추구해온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찰 과정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강대는 2002년 창립 이후 미국의 기숙형 '리버럴 아츠' 대학을 벤치마킹하면서 소수 정예의 동량재들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긴 숙성 기간을 요하는 교육 분야에서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학생 수 대비로는 가장 많은 유학생과 공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금강대는 자비와 지혜를 갖춘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앞으로도 매진할 것입니다.

미래 심인진리 인연 심자

장익 위덕대 총장



위덕대는 이제 올해로 개교 25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친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 진각 종립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사 중에 최고의 불사는 교육 불사라고 하듯이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이 성숙되고 변화할 수 있으며,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심인 진리로 나아가는 인연을 심는다는 각오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정성을 다하는 공감의 교육을 통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새해 새 희망으로 모든 분들의 마음의 안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보호시 자세로 알찬 한해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신축년 새해에는 새롭게 구성된 중앙신도회 제27대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고 종단외호에 더욱 더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큰 주춧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도조직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며, 신도대의기구로서의 가장 큰 역할인 삼보를 외호하며, 전국의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법우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우보호시(牛步虎視)의 자세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알찬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도로 공동체 행복길 이끌자

손창동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매년 정초 해돋이를 보면서 새로운 설렘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해 왔지만 올 새해는 전 세계 인류공동체가 직면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공무원 불제자들은 국민들을 희망으로 이끌어 줄 한 줄기 빛,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여 나라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들은 유(有)와 무(無), 두 극단을 떠난 '중도(中道)'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조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성찰 통한 절제 삶 살자

김성규 교수불자연합회장



1700년대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숨 가쁘게 300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까지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를 누리며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정신의 괴리로 정신적 공황을 앓고 있으며, 급속한 개발로 지구의 온난화는 가속되어 환경이변이 속출합니다. 이제는 숨을 가다듬고 자정을 할 때입니다. 2021년 맞으며 우리 모두 심우도의 성찰을 통한 절제된 삶으로 또한 정진하는 마음으로 회구합시다. 자기성찰만이 황폐한 정신을 일으키고 병든 지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우주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봉사일념으로 한해 임할 것

류재환 병원불자연합회장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불자의 신행활동도 저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도 정지되고 멈춘 한 해였습니다. 봉직 중인 병원 불자 회원들과 일반 불자 모두 감염을 조심하며 열심히 개인 신행활동과 봉직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부처님 가피가 두루하길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올 한해 못한 의료봉사를 더 박차를 가해 봉사일념으로 부처님의 자비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충실한 의료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회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스포츠 포교로 위상 높일 것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습니다. 불리한 여건에서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체육인 불자들은 연기된 도쿄올림픽에서도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신체 균형의 발달은 순수하고 올바른 부처의 정신을 키웁니다. 스포츠의 포교로 불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체육인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풍성한 결실 맺어지길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



코로나19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일수록 과거 호국불교 정신을 되살리고 대덕 큰스님들의 지도와 법우님들의 수행력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축년 새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우리 법우님들 모두 새해에는 조금은 우직하나 기다리면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5천여 포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웃 아픔 치유에 앞장설 터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



신축년 새해는 더불어 기뻐함을 뜻하는 수희공덕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를 '우리'로 만들고 '나만'을 '우리서로'로 모아가는 기적의 한해가 되기를 발원해 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심리적 아픔을 치유해 온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의전화'는 올 한해 불교적 명상에 기반한 심리상담을 통해 돌봄 중심의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 불교자살예방사업과 스마트 쉼을 비롯한 각종 중독 예방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현장맞춤형 서비스 확대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중흥 초석 다지는 한해로

이재홍 국제포교사회장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고,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좋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법회, 행사의 수준을 질적·양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회원들의 포교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제도를 정비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국제포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합니다.

행동하는 교육 맥 잇자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올 한해 교사불자연합회원님들은 종지와 종풍을 받들고, 부처님 정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한 교육활동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대자대비의 발심으로 모든 대중이 도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의 실천, 그리고 교사불자회 활동에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제 불교도 행동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더욱 더 부처님의 기르침을 행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로서 매김을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행동으로 하는 수행생활, 전법활동으로 현대 교육의 맥을 찾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청년 포교 사명에 응원을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를 겪은 한해였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저희 대학생 청년 불자들도 전환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비대면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고 함께하려 했습니다. 영부디스트캠프와 수계법회, 정기법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포교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대학생 청년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한발 다가서려 노력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대불련은 변함없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대학생 청년 포교와 전법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난극복 청년불자가 앞장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



중생의 고통을 멸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는 계층 간 갈등이 겹쌓인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와 같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방역준수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 정신의 실천적 보살행이며, 불교를 통한 사회적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은 결국 국난극복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불교가 되도록 우리 청년불자들이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초발심으로 교육현장 정진을

백미나 전국교법사단장



코로나상황은 이어지고 있고 작년 초부터 전국불교종립학교 교법사님들은 비대면회의와 자체SNS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한 교육현장에서 건학이념구현을 위한 교화활동과 불교학생회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연수를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교원의 지원으로 150여 명의 전국 불교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임원들이 줌으로 실시간 활동을 하고 구글로 과제, 질문, 피드백도 했습니다. 부처님 재세시 불법(佛法)의 불모지를 향해 전법서원을 하신 것처럼, 현대의 부루나존자가 되기를 서원한 우리교법사들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제자들이 부처님 닮기를 발원하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주인으로의 삶 살아갑시다

남창현 한국세무사불자회장



코로나19 라는 예견하지 못한 일로 다사다난한 2020 경자년 쥐띠해는 너무나도 힘들게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2021 신축년을 맞이하며 흰 소의 근면성실을 본받아 부처님이 깨닫게 하여주신 연기 원리를 실천합시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킵시다. 이를 위해 우리 불자들은 가일층 일상의 수행 정진으로 순간 순간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여의고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정언정행 일치로 코로나 해결을

표만석 언론사불자연합회장



요즘 사회를 보면 서로의 입장에 따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정치계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여야의 쟁투가 더 격화될 듯합니다. 경제계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백신접종의 효과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팔정도를 수행해야겠습니다. 이 중 정어(正語)는 우리 언론인이 숙명처럼 수행해야하는 길입니다. 정어(正語)를 행할 때 사바세계는 어지러움을 그치고 중도의 바른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정언정행의 일치를 보일 때 코로나 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웃에 따뜻한 위로 전하자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저희 미소원은 지난해 봉사와 나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배와 우편을 통해 음식을 싸서 보내고 손편지를 적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재소자와 병자들 그리고 독거어르신,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상가들까지 모두가 저희의 이웃이었습니다. 코로나19 보다 더 두려운 외로움 속에 저희들의 나눔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저희 미소원은 올해도 멈추지 않는 자비 나눔으로 대승보살의 원력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자리이타의 보살도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 할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밝은 미래를 여는 날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하실 제 방의 큰 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원로원장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대진당 해월**
교육원장	**무파사 일관**	포교원장	**불연사 법룡**
호법원장	**비룡사 정수**	문화원장	**약천사 서암**
비구니회장	**자비사 해인**	비구니총무	**관음사 지운**
교육부장	**대광명사 도갑**	호법부장	**광불사 소청**

서울교구원장	불연사 법룡	부산교구원장	붓다사 무비
대구교구원장	보리선원 지광	대전교구원장	비룡사 정수
충남교구원장	선각사 능원	경북교구원장	약천사 서암
경남교구원장	천불사 정우	전북교구원장	관음사 진원

입종문의 안내 (전화주시면 입종원서 보내줍니다)
Tel:(042)252-2034, Fax:252-2035, HP:010-3422-3232

승가원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44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대한불교무량종

종 정 **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해초**

총무원장 법정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공**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우**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림** 포교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임**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정향** 포교국장 **법산** 사서국장 **보륜**

■ 총 림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11(괴정동) 은암천불정사 전화 :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하동 보문스님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모집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1-870-0021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 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전원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1 -595-6522, 010-8939-6522

출강 및 통신 2021학년도 30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0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 불.법.승 ◈

(宗)대한불교 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성. 법공. 용인. 보각. 해곤. 평산. 도오. 지일. 해봉**
외 각원장(15인)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목련해**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해원. 용현. 법송. 지원. 청광. 정륵**
(전국 16개 교구)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 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사)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총 무 이 사 **인각** 교무이사 **만법** 재 무 이 사 **대전**
교 육 이 사 **도각** 포교이사 **법공**
총 무 국 장 **현무** 교무국장 **선행** 재 무 국 장 **자은**
교 육 국 장 **현덕** 포교국장 **자경**
경남서부교구장 **만법** 중부교구장 **도혜** 경남동부교구장 **동준**
부산교구장대행 **인각** 직 할 교 구

이 사 **화산 경월 법광 연지 정혜 법성 법혜**
감 사 **대성 혜원**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Tel 055)232-7819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전 법현** 고시원장 **벽산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 명** 서울종무원장 **유 한** 경기종무원장 **혜 암**
충청종무원장 **진 산** 전라종무원장 **덕 운** 군산종무원장 **덕 일**
경북종무원장 **탄 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 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진 성**

총무부장 **진 공** 사회부장 **진 성** 호법부장 **진 각** 포교부장 **태 천**
재무부장 **제 봉** 연화부장 **정 혜** 문화부장 **공 덕** 교무부장 **진 문**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

중앙종회의장 **선각** 중앙종회의원 **지암**
중앙연수원장 **도광** 교구종회의원 **혜각** 비구니위원 **법광**
사 정 원 장 사 정 부 원 장 제주교구원장 **해법**
비구니원장 **도견** 비구니부원장 **혜명** 13교구 동부종무원장 **용주**

총무부장 **법경** 문화부장 **무상** 규정부장 **해법** 재무부장 **혜광**
감찰부장 **도경** 호법부장 **적광** 홍보부장 **지덕** 문화국장 **선광**
홍보국장 **법행** 포교국장 **도현 법사** 교임단장 **혜안 법사**

입종을 환영합니다

【구비 서류】
- 사찰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반명함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1매 (사찰등록 하실분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분은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필히사본첨부
- 도첩은 본종단에서 수계를 받은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입종후 승려증 (법사 포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간부 추대장 발급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신흥로 540-17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원 로 원 장 **법두 수암**
총 무 원 장 **법응 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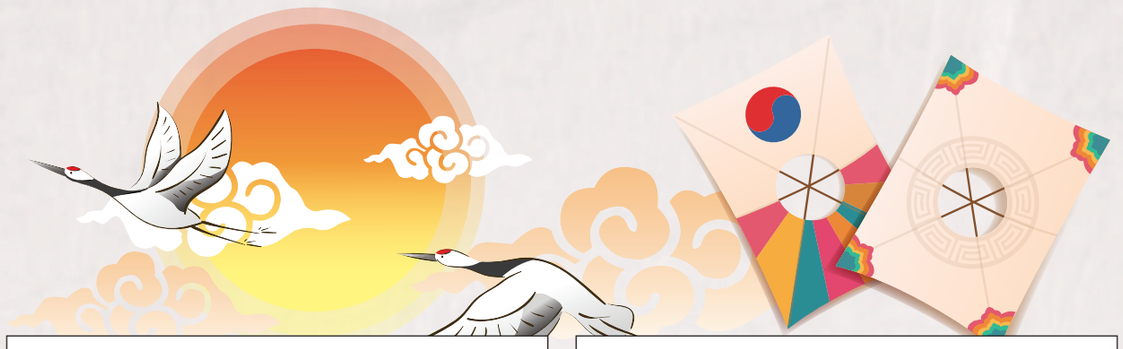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국장 **용화 해월**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한국불교태고종

금 왕 사

주지 금 산

신도회일동

경남 남해군 이동면 보리암로65-23
055)862-3794

대한불교조계종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불교대학
성현덕회, 단월회, 지장회, 참선반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Fax 333-8203

한국불교태고종

신어산 해 경 사

주지 지 현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725번길 32-57
055)333-0443

대한불교조계종

두 타 사

불 사 회
두 타 회
단 나 회
108산사순례단
가릉빈가합창단
통영해병전우회

해병 영혼의집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Tel 055)648-1477, 648-1366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감 사 자명(무봉사)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성정(수덕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사회부장 덕우(운수사) 사무국장 박영도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Tel 055) 355-4518 Fax 055)354-5622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5-6448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도 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1-7731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원장 법 공

기도스님 길상 등명
사단법인 이사장 선건
사무국장 이수홍 감사 장임순, 제효정
고문 김영준, 이재우

사단법인 봉화산정토원신도봉사회
회장 이장명
부회장 박영옥 이수홍, 총무 김지원
지도법사 황재연 조세균, 간사 김대진

메아리음악단 단장 김수복

신도일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금음산 불 인 사

주지 송 산

고불학당(불교대학)
불인사 파라미타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6번길 3
Tel 055)343-1638 Fax 055)343-1637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주지 종 성

사부대중일동

옥천사템플스테이
체험형『졸졸졸 탁탁탁』
휴식형『물소리바람소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로 471-9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템플스테이 055)672-6296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지 월 암

신도회일동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Tel 055)835-8656 Fax 055)835-8605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



▶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고, 상명여대부속여고 국어교사를 거쳐 샘터사 편집자로 일했다.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암자로 가는 길〉(전 3권) 등 수십 권의 저서를 펴냈다.

다르마를 위한 초대

벵골만 쪽에서 아침 해가 떴다. 안개를 뚫고 솟아올라온 핏덩어리처럼 붉은 해였다. 비로소 짙은 안개에 짓눌려 있던 강가강이 염염하게 드러났다. 드러누운 강은 도도하고도 풍만했다. 짬빠성을 휘돌아 흐르는 강가강은 시바신의 허리처럼 세 번을 꺾으면서 흘렀다. 짬빠성은 앙가국의 수도였다. 강가강 가트로 나와 강물에 몸을 적시는 사람들은 짬빠성에 사는 브라흐민들이었다. 가트는 반반한 화강암으로 조성한 계단이었다. 천민 수드라들은 시신을 태우고 있는 화장터 옆의 강변에서 기도를 했다. 아침 해를 보고 기도하는 브라흐민들 중에는 다르마 처녀의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다르마의 아버지는 브라흐민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브라흐민 청년들은 다르마를 만나려고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훤한 이마와 커다란 눈, 오뚝한 코와 도톰한 입술을 지닌 다르마는 짬빠성 브라흐민 청년들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다르마는 아버지처럼 키가 크고 위엄이 있는 청년을 원했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아직 남자를 몰랐다. 다르마는 새장 속에서 갇혀 사는 새나 다름없었다.

다르마의 아버지는 옷을 벗지 않고 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엉덩이까지 내려온 흰 도티는 아침마다 흠뻑 젖어 있었다. 기도하는 가트의 자리까지 강물에 젖어서 축축했다. 다르마의 아버지는 하늘과 땅, 불과 물의 신을 찬미하는 리그베다를 큰 소리로 외었다. 브라흐민들이 외는 기도는 모두 달랐다. 대부분의 브라흐민들은 아타르바베다를 중얼거렸다. 아타르바베다는 재앙을 물리치고 복 받기를 비는 주문이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아침 햇살은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에 떨어져 난반사했다. 강바람은 아침 해의 손길 못지않게 브라흐민들의 옷과 머리카락을 말려주었다. 다르마의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리그베다 기도를 끝냈다. 리그베다를 다 암송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더 없이 충만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아지비카교 수행자 빵갈라바뜨사가 다가왔다. 그와는 거의 매일 마주쳐 왔으므로 경계할 일은 없었다. 빵가라바뜨사가 인사를 건넸다.

"브라흐민이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오."

"아침마다 강가로 나와 기도하니 하늘의 인드라 신께서 복을 주시고 있소."

브라흐민이 합장을 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대의 운명을 알고 있다오."

"또 그 말씀인가요?"

브라흐민은 빵갈라바뜨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인사를 건넨 뒤 앵무새처럼 크게 말했던 것이다.

"맞아요! 나는 또 우리의 교주이신 막깔리 고살라의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다오."

"구루시여.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수십 번 들은 것 같소. 이제는 다 외울 지경이요. 하하."

브라흐민이 웃음을 터뜨리자 빵갈라바뜨사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말했다.

"강가를 보시오. 저 해를 보시오. 저 망고나무숲을 보시오. 강은 강일 뿐이고, 해는 해일 뿐이고, 망고나무숲은 망고나무숲일 뿐이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오. 그대도 사람으로 태어날 운명이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일 뿐이오. 죽으면 또다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날 것이오. 그러니 그대의 의지로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오. 그대는 운명대로 살아갈 뿐이오."

"우리 브라흐민들 기도가 헛수고란 말이군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베다가 틀렸단 말이오?"

"물론 그건 아니오. 다만 신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말이오. 8백 40만 겁이 지나는 동안 저절로 그대의 고통이 씻어질 텐데 무엇 때문에 아침마다 강물에 들어가 기도하느냔 말이오."

빵갈라바뜨사의 말은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는 더 행복할 텐데 무엇 때문에 베다를 중얼거리면서 신에게 비느냐는 것이었다. 브라흐민은 빵갈라바뜨사가 또 다시 진지해진 것을 보고는 은근히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었다.

"구루시여. 나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소. 오늘도 아무 탈 없이 맞이한 아침을 망치고 싶지 않다오."

그래도 빵갈라바뜨사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얼마 전에 대왕께서 나를 왕궁으로 초대했소. 이제 일부 대신들까지 베다를 멀리하고 있소. 부귀공명을 누리는 운명으로 타고 났으니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오."

"정말이오?"

"단순하게 초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왕자들을 교육할 것이오. 영명하신 대왕께서 브라흐민뿐만 아니라 우리 아지비카 수행자들에게도 공양을 하겠다고 선언했소."

대왕이란 빈두사라를 말했다. 빈두사라는 마우리아국 수도인 빠딸리뿌뜨라 궁궐로 수행자들을 매일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는데 모두 6만여 명이나 되었다. 6만여 명 중에는 브라흐민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교와 자이나교, 이제는 아지바카교 수행자들까지 모여 들기 시작했다.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모여든 까닭은 빈두사라의 아버지 짠드라굽따 대왕이 말년에 자이나교로 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베다를 믿는 브라흐민들의 위세는 대단했다.

브라흐민 청년들은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어김없이 강가강 가트로 나가 양을 잡아 제물로 올려놓고 예배의식인 아르띠 뿌자를 치렀다. 강가강 가트는 타오르는 기름불로 휘황찬란했고 푸르스름한 향불 연기는 여신도들의 옷자락처럼 하늘거리다가 강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사라졌다. 북소리가 둥둥둥 고조하면 빠딸리뿌뜨라 성민들도 미친 듯 기도하며 베다를 중얼거렸다. 마우리아국을 건국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수십 년의 전통이었다. 지금도 아르띠 뿌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빈두사라 대왕이 후원했다.

이에 비해 불교나 자이나교, 아지비카교 수행자들은 브라흐민교도들의 의식을 비웃었다. 살생을 금한 불교나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브라흐민교와 달리 브라흐민,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 신분규정을 부정했고, 아지비카 수행자들은 까르마(업)에 의한 윤회를 부정했다. 아지비카 수행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은 까르마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장대한 법칙에 의해 숙명적으로 정해진 운명에 따라 윤회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은 아무 것도 없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숙명론자인 아지비카 수행자들이 염세주의자이거나 비관론자들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되 경건하고 긍정적으로 즐기자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다만, 고행을 통해서 수행자와 신도들의 정신을 맑게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은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았다.



아침 햇살이 금세 따가워졌다. 강바람이 브라흐민의 목덜미를 간지럽게 했다. 햇살이 떨어지고 있는 강물은 눈부실 만큼 반짝거렸다. 다르마의 아버지인 브라흐민은 고슬고슬 마른 머리카락을 말아서 정수리 쪽으로 틀어 올렸다. 그제야 빵갈라바뜨사가 자리를 뜨려고 했다. 브라흐민이 말했다.

"구루시여. 오늘저녁 나의 집에서 공양을 올리고 싶소." "지난번에도 초대해 공양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오." "어째서 그러하지요?" "나는 내일 새벽에 빠딸리뿌뜨라로 떠난다오. 그러니 저녁공양을 거절하는 것이오." "다른 구루라도 보내주시지요." "무슨 일이 있소?" "나의 딸 다르마의 운명을 점쳐보고 싶어서 그러하오."

빵갈라바뜨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그 일이라면 걱정 마시오. 나의 친구 자나사나를 보내겠소. 자나사나는 나보다 관상을 더 잘 본다오. 그대의 딸을 보자마자 바로 운명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오."

"나는 조금 전에 인드라 신께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수행자에게 저녁공양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쉽소."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나려면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오. 그러나 나의 친구 자나사나가 있으니 더 잘된 일이오. 자나사나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반드시 만족할 것이오."

갈매기 한 마리가 빵갈라바뜨사의 얼굴을 할퀼 듯 가까이 날아왔다가 너울너울 되돌아갔다. 부리와 눈매가 빵가라바뜨사처럼 날카로웠다. 빵갈라바뜨사가 놀란 채 흠칫 고개를 젖히면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브라흐민은 내일 아침부터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섭섭하기도 했다. 빵갈라바뜨사가 아지비카교로 개종할 것을 은근히 강요했지만 끝내 응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들었던 것이다.

아지비카교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는 동굴은 가트에서 십여 리 떨어진 절벽에 있었다. 절벽 바로 밑은 강가강 강물이 넘실거렸다. 그들은 짬빠성 안에 사원을 짓지 않고 동굴에서만 살았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환했다. 강가강에 떨어지는 햇살이 빛기둥처럼 동굴 안으로 들어오곤 했다. 동굴 벽에는 아지바카교 교주 막깔리 고살라의 좌상이 음각되어 있었다. 수행자들은 수시로 막깔리 고살라 좌상을 향해 엎드려 기도했다.

그날 오후. 강가강 언덕에 있는 사원을 들렀다가 짬빠성으로 돌아온 브라흐민은 아내와 외동딸 다르마를 불러놓고 말했다.

"여보, 구루에게 저녁공양을 올리기로 했으니 준비하시오."

외동딸 다르마가 물었다.

"아버지, 어떤 분이 오세요? 우리 집에 여러 번 오신 빵갈라바뜨사 구루세요?" "원래는 그분을 초대했으나 대신해서 자나사나 구루를 보낸다고 하는구나." 빵갈라바뜨사에게 공양하기를 좋아했던 부인도 물었다. "무슨 일이래요?"

브라흐민이 부인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다르마의 결혼 운세를 알아보려고." 부인은 브라흐민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다르마에게 말했다. "다르마야, 나는 음식 준비를 할 테니 너는 집안을 청소하고 마당을 좀 쓸어라." "네, 어머니."

브라흐민 가족은 흙벽돌로 만든 단층집에서 살았다. 정원이 넓어 손님들은 집을 찾아오는데 잠시 헤매기도 했다. 정원에는 부겐빌리아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부겐빌리아 꽃은 향기는 없지만 화려했다. 공작의 깃털처럼 보라색, 주홍색, 흰색, 분홍색, 노란색 등 일곱 가지 색의 부겐빌리아 꽃이 피고 졌다. 사원에서 흔히 본 상록수 플루메리아의 꽃도 하얀 치아처럼 깨끗하고 우아하게 피어 있었다.

대문 앞에는 참나무 일종인 큐이스큐알리스 꽃이 땅바닥에 떨어져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했다.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질 때면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다르마는 큐이스큐알리스 꽃들을 보면서 수백, 수천의 정령들이 붉은 옷을 입고 반딧불이처럼 날아다니며 춤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구루께서 보시면 무척 기뻐하실거야.'

다르마를 아쉽게 한 꽃이 있다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귀나무 붉은 꽃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었다. 자귀나무는 밤이 되면 양쪽의 이파리가 서로 껴안듯 오므라들었다. 마치 금슬 좋은 부부 같은 나무가 자귀나무였다. 다르마는 작은 꽃들을 따서 꽃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녁에 방문하는 수행자 목에 걸어줄 꽃목걸이였다. 다르마 자신은 플루메리아 흰 꽃을 하나 따서 머리에 꽂았다.

브라흐민은 베란다 쪽으로 식탁과 대나무의자를 옮겼다. 베란다에서는 삼면이 트여 정원의 꽃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

"다르마야, 화병에 꽃을 꽂으렴."

"예, 아버지. 파파벨라 꽃이 좋겠어요."

다르마는 화병에 파파벨라 꽃을 한가득 꽂았다.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고 있던 브라흐민은 흐뭇했다. 딸이 여러 꽃 중에서 파파벨라 꽃을 꽂은 것도 빵갈로바뜨사의 말처럼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다르마 가족은 자나사나 수행자를 맞이할 준비를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했다. 정성을 다해 짜빠티를 굽고, 집안의 해묵은 먼지를 털고, 정원의 오솔길을 쓸었다.

이윽고 망고처럼 붉은 석양이 거풋거리는 대숲 저편으로 지고 있었다. 석양빛이 마지막으로 다르마의 정원과 집을 어루만졌다. 다르마 어머니는 강가강 강물이 담긴 항아리를 베란다 앞에 갖다놓았다. 자나사나 수행자가 손과 발을 씻을 강물이었다. 〈계속〉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자기 근본을 믿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샘물을 먹을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

대한불교 조계종 광명선원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지 현 덕

신도회일동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54
052)262-0518

한국불교태고종

정 관 암

주지 대 활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밭길118(하작마을)
HP) 010-4517-0097

대한불교조계종

자양산 칠 보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함안군 산인면 산인운곡길86-153
Tel 055)584-5390

한국불교태고종

무학산 석 봉 암

회주 월 봉
주지 자 명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2길77-42
Tel 055)223-6801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동림불교대학 선문화대학

주 지 은암신공
신도회장 노도명화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 계곡길168-14
Tel 055)325-4008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
나의 삶을 자비롭게, 온 누리를 향기롭게
평화로운 나! 아름다운 세상!

사단법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도문스님
(정법사 주지)

회장 김재호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장)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임직원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
Tel 055)286-1552 fax 055)286-1508
이메일주소: gnparamita@daum.net
카페: http://cafe.daum.net/knparamita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말사 관 룡 사

주지 정 안

신도회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로 관룡사길171
055)521-1747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심 적 정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133번길 15
Tel 055)973-1388

대한불교조계종
가야불교 중흥발원도량

김해 여 여 정 사

불교대학경전반

주지 도 명

신도회장 조성진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055)311-2911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사 : 상우, 혜남,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동진, 오심, 동주, 수진행

감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382-7081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① 선법원류



▶ 선학 전공자로 동국대 선학과 박사를 취득하고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불전 번역학과 교수로 있다. 김 교수의 이번 연재는 한국에서 전개된 선종사의 전개에 따른 한국선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선의 역할과 성격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법랑, 한국에 禪을 전하다

1. 한국선의 시대구분

한국의 선종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선 통시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왕조의 형성과 소멸에 따라서 선종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가령 한기두는 〈한국선사상연구〉에서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초기선은 신라시대의 산문선(山門禪), 중기선은 고려시대의 선교화회선(禪敎和會禪), 후기선은 조선시대의 조사선(祖師禪)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는 한국선종사의 종합적인 면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주제에 따라 전개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종단본으로 펴낸 〈조계종사〉는 크게 〈고 · 중세편〉 및 〈근 · 현대편〉으로 구분하였다. 〈고 · 중세편〉에서는 한국불교의 초전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어서 19세기 후반까지 걸쳐서 불교의 수용과 발전, 선의 전래와 조계종의 성립, 조계종의 발전과 사상적 특징, 조계종의 시련과 극복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근 · 현대편〉에서는 19세기 후반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현대까지 걸쳐 근대교단의 태동, 민족불교의 시련과 극복, 불교의 자주화와 교단개혁,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과 발전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종단본에서는 조계종사를 조계종의 교단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보다 널리 한국불교의 형성부터 삼국시대의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비롯하여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대부분의 불교사건을 조계종사의 범주 가운데 아우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기타 시대구분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는 필자가 〈인물한국선종사〉에서 제시했던 네 단계에 근거하여 한국선법의 원류, 태동, 발전, 계승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선법의 원류라는 시대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최초로 한국에 전래된 선법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태동의 시대설정에 대해서는 중국선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나말여초의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중반에 걸쳐 동시대에 중국의 선종오가와 별도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던 구산문 및 구산문에 속하지 않는 몇몇 교단의 전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발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선종의 전개에 따른 한국선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중국 선종오가의 수입과 발전 및 새로운 수행법의 도입과 그 영향에 따른 전개를 살펴본다. 계승의 시대에 대해서는 한국선법의 초기부터 전승되어 왔던 선과 교학의 유동적인 관계를 비롯하여 선종의 입장에서 경전과 선어록에 대한 이해의 관점 그리고 선리의 논쟁에 대한 한국선의 특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한국선에 대한 이해의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한국선의 역사를 구별함으로써 선법의 정체성에 대한 구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한국불교의 전체에 대한 수많은 교단의 통폐합에 따라 종파 각각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획일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한 소위 한국불교의 성격을 소위 통불교라고 명명하고 그에 따라

동산법문계승, 신라에 전승
7세기서 8세기 전반에 활동
조계 남종 선법 도의국사의
조계종 역사와 확연히 구분

서 한국에서 전개된 천육백 년에 걸쳐 전승되어 왔던 다양하고 오랜 불교의 역사를 교학과 신앙과 사상과 교단을 망라하여 원융적이고 종합적인 불교를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한국불교가 담보하고 있는 교학과 수행과 신앙과 문화의 측면에서 보여주었던 다채로운 특성이 일괄적인 범주 속에 희석되어버렸기 때문이다.

2. 한국선의 원류

선(禪)이라는 용어는 범어의 태연나(馱演那, dhyāna), 그리고 팔리어의 지아나(持阿那, jhāna)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팔리어 지아나(持阿那)를 달리 선나(禪那)라고도 음사하였는데, 후에 전승되면서 선(禪)이라는 한 글자만 남게 되었다. 선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구마라집은 사유수(思惟修)라고 의역하였고, 현장은 정려(靜慮)라고 의역하였다. 이들 말에는 공통적으로 분명히 사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선은 사유하는 행위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 발생은 붓다가 깨침의 방식으로 활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선의 원류는 불교의 발생과 함께 출현하였다. 인도불교의 역사에서 선은 선정(禪定)이라는 의미로서 불교의 학파 내지 교단을 망라하여 모든 측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계승되어가면서 선은 인도불교의 경우와 사뭇 다른 기능으로 출현하였다. 6세기 초에 보리달마(菩提達磨)가 중국에 도래하면서 시작된 중국선종의 역사에서 선은 좌선(坐禪)의 의미로 부각되면서 단순한 사유의 범주를 초월하여 좌선수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 소위 좌선종 곧 선종(禪宗)으로 출현하였다. 따라서 좌선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유한다는 좌선수행의 행위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계혜능(曹溪慧能)의 시대에는 보편적인 선수행과 깨침을 아우르는 수증관(修證觀)의 전반적인 의미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법의 시작은 중국불교의 경우에도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백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의 경우에도 불교의 전래보다 사백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선법의 전래가 가능하였다. 그 까닭은 선법의 경우에 붓다의 깨침인 정법안장(正法眼藏)의 계승에 대하여 철저하게 전법조사와 그 제자를 통해서 전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불교에서는 불교가 발생한 국가라는 점에서 선과 불교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었지만 중국 내지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크게 달랐다. 중국불교에서는 보리달마라는 인물을 중국선종의 초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달마 이전에 형성된 다양한 선법의 전통은 부정되는데, 한국불교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4세기 후반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되었고, 7세기 무렵에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삼국에서 불교의 신앙 및 교학 내지 선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선의 역사에서도 정법안장을 전승한 조사와 그 제자라는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때문에 한국선은 8세기 전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법랑(法朗) 조사가 처음으로 중국선종의 제4조 대의도신(大醫道信) 및 제5조 대만홍인(大滿弘忍)의 선풍을 일컫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을 계승하여 신라에 전승하였기 때문이다.



단속사 신행선사 비문

이로써 8세기 전반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선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천이백오십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곧 한국인으로서 선법을 전래한 최초의 인물이 법랑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한국선의 역사가 바로 조계종의 역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할 수 없을지라도 보다 엄밀하게 그 시작을 논하는 경우에는 9세기 중반에 조계의 남종선법을 전승한 도의국사로부터 비롯되는 조계종의 역사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법랑은 그 생몰연대도 분명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입당해서 쌍봉을 중심으로 선종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명실상부하게 교단을 이룸으로써 집단생활을 영위하며 동산법문의 시초를 전개하였던 도신(580~651)의 오백 대중 가운데서 정법안장을 계승하여 신라에 전승하였다.

그의 제자 신행(神行, 信行, 704~779)의 활동에 근거하여 전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법랑의 생몰연대는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이 찬술한 도헌국사(道憲國師)의 비문에는 쌍봉의 자(子)는 법랑 法朗이고 손(孫)은 신행(信行)이며, 증손(曾孫)은 준범(遵範)이고, 현손(玄孫)은 혜은(惠隱)이며, 말손(末孫)은 도헌(道憲)이라는 기록이 있다. 법랑은 신라 선덕왕(善德王) 시대에 입당하여 쌍봉도신의 선법을 얻었다고 하는데, 귀국한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김헌정(金憲貞)이 찬술한 것으로 지리산 단속사(斷俗寺)에 세운 신행선사의 비문에 의하면, 법랑의 제자 신행은 경주 출신으로 속성은 김(金)씨이다. 단속사에 주석하면서 30세 무렵에 운정율사(運精律師)로부터 계율을 공부하였고, 좌선수행에 정진하고 있던 중에 법랑이 귀국했다는 소문을 듣고 호거산(虎踞山)으로 찾아갔다. 법랑으로부터 깨침을 인가받고 3년 동안 머물렀다. 법랑이 입적한 이후에 입당하여 대조선사 보적(大照禪師 普寂, 651~739) 및 그의 제자인 지공(志公)에게 3년 동안 참문하여 깨침을 인가받았다. 스승의 권유를 받고 귀국하여 혜공왕(765~780) 시대에 지리산에서 교화를 펼치다가 76세로 779년에 입적하였다.

〈석씨계고략〉 권3에 의하면 보적은 수도에 있는 당흥사(唐興寺)에 주석하였다. 중국 선종의 제5조 홍인의 법을 계승한 대통신수(606~706)의 제자로서 신수를 계승하여 국사를 지냈다. 일찍이 측천무후에게 추천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종황제는 신수의 문하를 거느리게 하였고, 현종은 칙명으로 도성에 주석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신행이 참문했던 당시 중국선종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신수-보적-지공(志空)의 법계가 정통으로 간주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점은 한국선의 최초 전래자인 법랑의 선법을 정통으로 계승한 신행의 선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행이 전승한 법랑의 선풍은 중국선종으로 보면 제4조 도신의 정통적인 선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행이 다시 홍인과 신수의 법을 이은 대조선사 및 그의 제자 지공으로부터 전승한 선법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중국선종의 정통으로서 의심할 나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종이 정통으로 확립된 사건은 755년부터 762년에 걸친 안록산(安祿山, 703~759)과 사사명(史思明, ?~761)에 의한 반란이었다. 곧 안사의 난을 평정하기 위한 전쟁비용으로 신회(神會)는 향수전(香水錢) 곧 출가승의 납세금을 헌납하였는데 그 공덕으로 인하여 입내공양(入內供養)을 받기 위하여 도읍지로 돌아왔던 757년 10월 23일에 숙종의 칙명에 의하여 그때까지 정통으로 계승되었던 북종선을 대신하여 바야흐로 남종선이 정통으로 부각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행이 신라에 전승한 선법의 성격은 중국선종의 정통에 해당하는 도신과 홍인의 선법을 일컫는 동산법문의 충실한 계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에 아직은 소위 남종의 선법이 정통으로 부각되기 이전의 북종의 정통선법의 계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신라에 최초로 전승된 선법의 성격이 정통이었음을 분명하게 그 명분을 확보하는 계기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 경우
사부대중일동
•승려노후수행마을 •대한불교조계종선운사복지재단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관 / 고창군노인복지센터
•고창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창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시니어클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실 태공월주 총무 화평 재무 여찬
회주 금산도영 기획 광진 호법 덕림
주지 월강일원 사회 제환 포교 석초
부주지 시산원혜 교무 응묵
신도회장 이근재 외 사부대중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회 주 지 산
주 지 징 암

관운사 복지센터 (무료급식)
Tel (054)933-0808

신 도 일 동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1-3000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 지 운 성

사 부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 지 용담 효재

사부대중일동

매 월 양력
1일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2리 328
TEL 054)975-9045, 010-9045-9045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정 연

사 부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남지장사길 95
TEL 053)768-9920, FAX 053)768-3334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Tel 054)873-2908, Fax 054)874-9137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 주 법 달
주 지 철 산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 굴 사

주 지 덕 관

신도일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Fax 053)853-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 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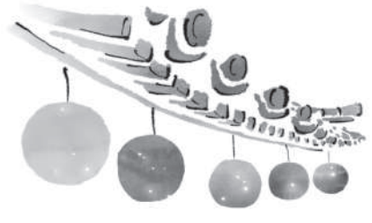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韓國佛教太古宗

八公山 冠岩寺

住持 滿 虛

사 부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0(능성동)
Tel (053) 982-6666, Fax (053) 243-2580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❶ 연재를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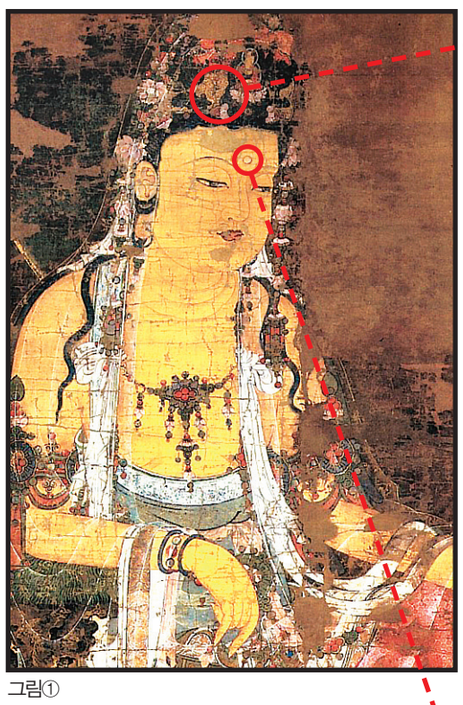


▶ 직접 발로 뛰는 실물 조사, 30년 경력의 베테랑 학자. 불교문화재에 있어 이론과 수행을 접목시킨 명쾌한 해설로 이름 높다. 현재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 문화재청 전문위원 · 성보문화재위원회 위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 조계종 국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불화 진가, '디테일'에 있다

한국의 '고려불화'는 경이로운 섬세함과 청정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세밀한 필치는 너무나도 정밀하여 '신묘(神妙)'의 경지라 극찬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째서 고려불화가 해외에서 이토록 유명한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대부분이 해외에 유출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보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존 162점의 고려불화 중에 약 98%가 일본을 위시하여 구미에 흩어져 있고, 그 중 한 두 건 정도가 국내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일본 불화 연구의 원로학자 키쿠타케 준이치(菊竹淳一) 교수는, 고려불화를 "아시아에서 최고(最高)"라고 언급했고, 최근에는 '세계제일(世界第一)'이라고 서슴없이 밝힌 바 있다.(2006년 방영 KBS다큐멘터리 〈고려불화〉 중에서) 평생 불화를 연구하신 일본 학자가 그 말년에, 일본 것도 중국 것도 아니고, 고려불화를 세계제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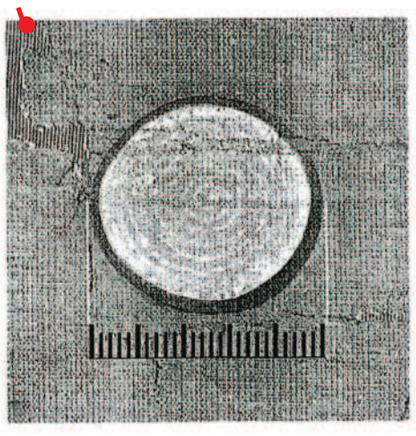
그림①



그림②

고려불화 세부 표현 '진면목'
日전시 관람용 현미경 배포
확인 순간 경이로움에 감탄

초정밀 · 초대형 세계 '상존'
그림 속 수월관음은 한몸에
우주를 안팎으로 품고 있다



그림③

그림①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부분.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그림② 수월관음 보관의 디테일. 금선과 붉은 색 · 파란 색 · 녹색의 조화 속에 화려함이 고양되다가, 그 위에 흰색 투명 사라가 살짝 그것을 덮어 우아함을 더했다.

그림③ 수월관음 백호의 디테일. 백호의 나선 굵기는 내부 0.02mm이고 윤곽선은 0.2mm이다.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제공〉

초정밀 마이크로의 세계

고려불화는 멀리서 보면 그 진가를 알지 못한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세부 표현을 보았을 때, 비로소 놀라게 된다. 찬란하게 빛나는 경이로움이란! 그래서 일본(고려불화 약 80%이상 소장)에서, 30년에 한 번 꼴로, 고려불화 전시회를 할 때는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자들에게 돋보기(작품 관람용 현미경)를 나누어 준다. 이는 고려불화의 진면목이 그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고 있는 일본인 학예사의 배려이다.

즉, 디테일을 보아야 고려불화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 유리에 현미경을 대고 작품의 세부를 확대해 보는 순간, 발걸음은 멈춘다. 전시를 보려고 온 사람들의 줄이 도무지 줄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고려불화의 세부 묘사를 확대경으로 당겨보는 순간, 동공이 확장되는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어떤 관람자이건 국적을 불문하고, 넋 놓게 만들어 마냥 그 앞에 붙들어 두는 작품. 이런 힘을 가진 명작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런 명작 중의 하나가 바로 고려불화이다.

고려불화의 핵심, '청정(淸淨)'

그러면, 실제 작품의 디테일을 보도록 하자. 과연, 현미경을 통해 본 그 장면은 어떤 것인가. 고려불화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를 소개한다.〈그림①〉 본래 높이가 무려 6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으로, 압도하는 그 크기와 정교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화제작이다.

고려 수월관음의 상반신을 보면, 먼저 둥글고 풍만한 얼굴과 몸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살의 육신은 온통 금빛이다. 고려불화는 부처나 보살의 육신을 채색할 때, 배채법(背彩法)을 쓴다. 배채법이란 비단 바탕의 뒷면에서 색을 칠하여 색감이 은은하게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기법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피부색의 효과와 부드러운 농도를 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불화의 핵심인 '채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채도란 색감의 맑은 정도, 투명함의 정도를 말한다. 이는 고려불화의 독보적인 특징인 '청정(淸淨)'과 직결된다. 몸체를 두르고 있는 옷(天衣)에는 참으로 다채로운 문양들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는 무수한 영락 장식들의 아롱지며 장엄되었다. 또 그 위로는 사라(紗羅, 매우 얇아 투명하게 비치는 비단 숄)가 머리의 꼭대기에서부터 발 치 아래까지 덮어 유려하게 흐른다. 물론 사라 위에도 다양한 문양들이 시문되어 있다. 이렇듯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한 수 겹의 색깔과 선들의 레이어들이 한 데 어우러져 있는데도, 탁하지 않다.

파도치는 화려함, 깨달음의 세계

이토록 많은 색과 선을 입혔는데도, 비단 바탕의 촘촘한 씨줄 날줄이 고스란히 드러날 만큼 투명하다. 신기하게도 겹치면 겹칠수록 그 청정함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래서 현 시대에 있어, 고려불화 재현의 성공 여부는 그 '청정함'에 있다. 어둡거나 탁하면 고려불화라고 할 수 없겠다. 다음으로, 수월관음의 보관(寶冠, 보살의 머리에 쓰는 보배로 장식한 관)의 한 세부 장면〈그림②〉을 보도록 하자. 매우 복잡한 문양들이 보이지만, 마치 그림 뒤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환희롭다. 금선과 붉은 색 · 파란 색 · 녹색의 조화 속에 화려함이 고양되다가, 그 위에 흰색 투명 사라가 살짝 그것을 덮으면서 우아함이 더해졌다. 투명 사라는 너무 화려할 수 있는 디테일을 더욱 섬세하고 또 세련되게 만든다. 보관의 자색 바탕에는 금니(金泥)로 S자 넝쿨 문양이 뻗어나가며 원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꽃이 피었다. 금니란, 미세한 순금 가루를 아교와 섞은 안료이다. 봉황이 찬란한 금빛 날개를 펴고 거대한 연화좌가 피어나며 여의주의 구슬들로 장엄된다. 그 위를 거미줄로 짠 그물과도 같은 투명 사라가 살포시 덮고 있다. 인드라망(帝網, 제석천의 망)과도 같은 사라 위에는 구름과 같은 서기(瑞氣)와 금빛 봉황이 흐른다.

'법계 연기'로 녹아들다

수월관음의 몸체에 그려진 황홀한 마이크로의 세계. 이 풍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희심 나는 장엄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이 마이크로(초정밀)가 매크로(초대형)의 세계로 직결됨을 알게 된다. 수월관음은 한 몸에 우주를 안팎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운이 좋아 깨달음의 세계를 얼핏 보았을 때, 바로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 안팎으로, 미립자의 세계에서 저 중중무진 우주의 세계까지. 업장의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가 된 바탕의 세계. 여여(如如)한 바탕자리에서 보신(報身)의 에너지가 일대연기(一大緣起)하고 있다. 번뇌의 업장이 사라지면 열리는 청정한 세계. '나'라고도 할 것이 없는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그것은 하나가 일체로 일체가 하나로, 중중무진 끊임없이 서로 인연하여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반복하고 있었다. 그 다채로운 생멸(生滅)의 파노라마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진리는 '연기(緣起)와 무상(無常)'이었다.

가가미진자 〈수월관음도〉는

현재 작품의 크기는 높이 429.5cm, 폭 254.2cm이지만, 1812년 이노우타다타카(伊能忠敬)가 가가미진자(鏡神社)를 방문했을 때, 당시 작품과 함께 남아있던 기록에 의하면 작품 본래 크기는 높이 약 545.4cm, 폭 272.7cm로 추정된다. 여기에 표구의 폭까지 고려한다면, 약 6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불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작은 한중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다.

안양 수리산 **용 화 사**

주 지 태 명 혜 우 신도회장 **송 창 록**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미륵부처님께 깨우친 불법을 배우세요.

천도는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용화 미륵부처님만이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으로 영가가 전생에 살아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걸 천도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도를 해야만이 죽은 영가가 다시 윤회의 길로 다시 이생에 올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다. 소중한 말이니 불자들은 뼈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사람이 죽어서 천년에 한번 몸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을 받겠느냐? 전부다 죽으면 다 귀신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천도라는 것은 염불로 하는게 아니라 · 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그 도력이란 게 무엇이냐?
즉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러면 부처님이 방광을 안하면 그건 부처가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6 공평빌딩 6층 (우)14032
blog.naver.com/wiserain10
• 네이버 검색 의철미륵부처님 • 유튜브 불교방송 용화미륵부처님 TV
TEL. 031-444-9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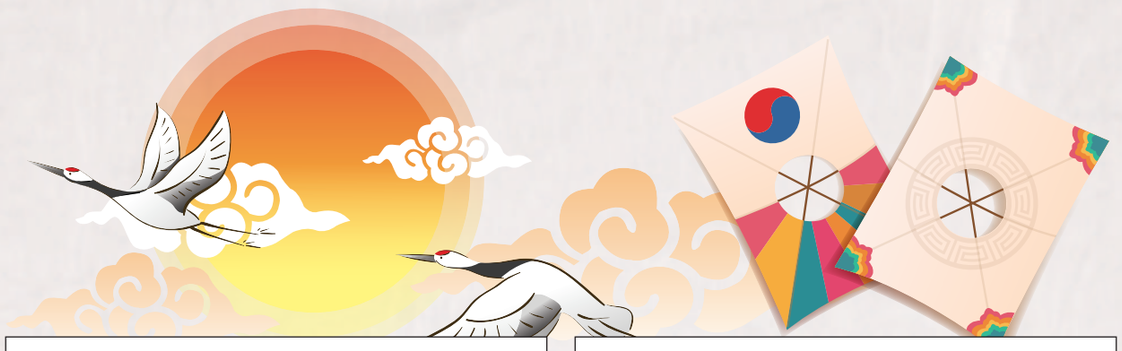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태실기도도량 **선 석 사**

주 지 **선 진**

신도회장 **이봉지**
총 무 **백경순**

신 도 회 일 동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 자태실로 616-33
Tel 054)933-9800
www.seonseoksa.org

의상대사 창건, 신라천년고찰

대한불교조계종

영 지 사

주 지 **성 천**

사부대중 일동

경북 영천시 대창면 영지길 471
Tel (054)338-1939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 주 **포전 혜관**

주 지 **보해 성종**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지 **도 휘**

사부대중 일동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 지 **경 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태양의 정기를 받은 와불산 기도도량'

금오산 약사암

사부대중일동

"부처님 만남은
일생일대 최고의 복이다
그 시작은 독경 염불 참선이다".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433의 3
Tel 054)452-8039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

주 지 **능 도**

사부대중일동

포교원 인정 용연사
불교대학 운영
법화경 독송 및 관음 염송 법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FAX 053-616-0408

재단법인 선 학 원

서 봉 사

회주 **경 희**
주지 **명 음**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지장참회도량

도솔산 참당암

참당선원

선원장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063)563-3440

박원자의 母情佛心 ❶ 조계종 11 · 12대 종정 법전 스님



▶ 숙명여대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불교에 입문했고, 동국대에서 역경위원을 역임했다. 1991~1992년 월간 〈해인〉에 '호계삼소'를 연재했고, 1996년부터 12년 동안 同誌에 '나의 행자시절'을 연재했다. 2008년 〈나의 행자시절 1 · 2 · 3〉, 2016년 〈스님의 첫마음〉을 출간했다. 그 외 〈혜암대종사 법어집/1995〉 〈이 땅의 유마 대원 장경호 거사/2005〉 〈길 찾아 길 떠나라/2007〉 〈누구 없는가/2009〉 〈인생을 낭비한 죄/2011〉 〈어떻게 살 것인가/2016〉 등의 저서가 있다.

"道 이루세요" 애착 끊어낸 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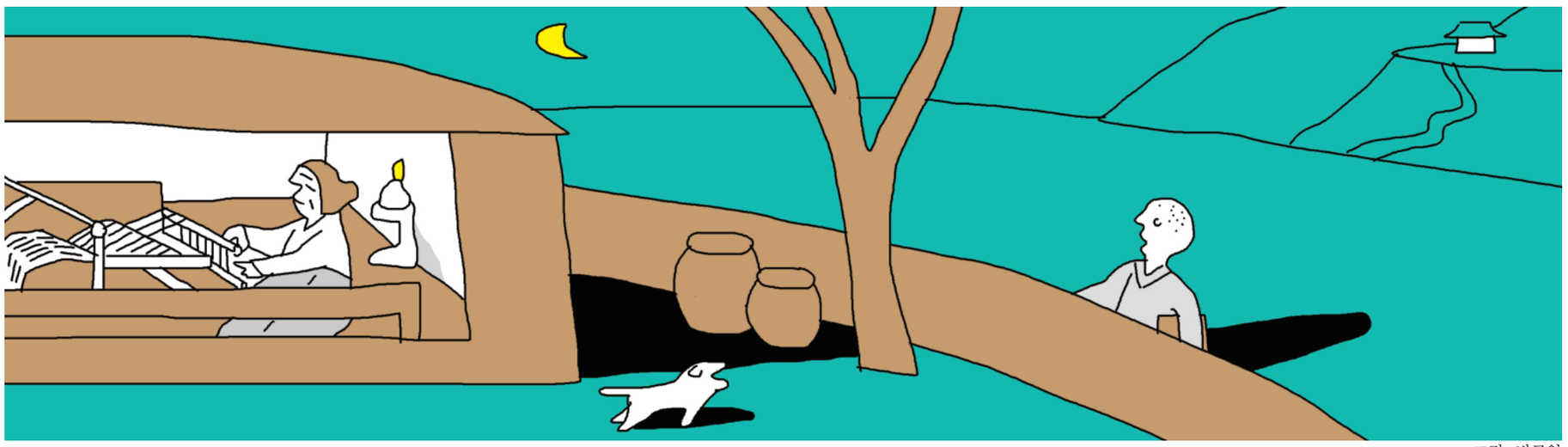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린 날부터 밖에 나가 걷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어느 한국 여류 사업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으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두문불출,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를 떠올리고 다시 일어섰던 자신의 경험을 전한 말일 것이다.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공감하게 한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다. 누가 뭐래도 어머니에겐 자식이 최고다. 전부다. 어떤 경우에도 잘 났다, 못났다 분별하지 않으며 철저히 믿는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맞바꿀 수 있는 단어가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불심'일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불성의 마음, 불심. 그 순수함이 자식에게 가 닿아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나의 경우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 이제 나보다 나를 더 믿고 사랑해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였다.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알겠다. 어머니는 내 존재의 뿌리이며 영혼으로 직통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그대로 전해지고 내 모든 게 자식의 것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라는 존재와 역할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나서 스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떠한 어머니였기에 저리도 훌륭한 수행자를 자식으로 두셨을까. 출가의 길이란 정성을 다하여 키운 자식을 세간 밖의 세계로 보내는 일이며, 어쩌면 영영 이별일 수도 있는 길인데,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보낸 걸까,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등등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애착을 끊는 일에서부터 도의 길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애착을 놓는 일에 가장 능한 선수들이 출가수행자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스님들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어느 한 이야기도 따뜻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식의 은사 스님 앞에서 삼배의 절을 올리며 모쪼록 큰스님을 만들어달라고 절을 했던 어머니, 딸 셋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중에 수행자 딸들과 함께 한 철 안거를 나고 세연을 다한 어머니도 계시다. 출가한 아들이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걸망을 들려주며 어서 이곳을 떠나 더 정진하라고 재촉했던 어머니도 계셨다.

총명했던 자식이 열다섯 어린 나이에 출가해버리자 너무 절망한 나머지 지아비마저 집을 나가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던 어머니가, 세월이 흐른 뒤 출가한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는, '니 혼자 부처되면 뭐 하노' 였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던 스님들. 그리도 냉정한 분들에게 어머닌 어떤 존재일까, 그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거기서 우린 무엇을 배워야할까. 그 물음을 따라 '모정불심(母情佛心)' 의 연재를 시작한다.

"어쨌든 건강하여라" 담담한 한마디

몇 해 전 입적하신 법전 스님(대한불교조계종 11,12대 종정)의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스님이 회고록 형식의 자서전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원고를 정리하기로 한 인연으로 스님의 일생을 듣게 되는 청복을 누렸다. '절구통 수좌' 라는 별명과 함께 말씀이 없기로 유명한 스님께서 가장 동심으로 돌아간 것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셨을 때였다. 세속의 정이란 정은 다 떼어버렸을 스님께서 그리도 세세하고 따스하게 어머니를 떠올리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법전 스님은 14살에 부모님 곁을 떠나 백양사 청류암으로 들어갔다. 속가에 두면 일찍 단명할 거라는 주역가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내린 결단이었다. 집을 떠나는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는 담담하게 한 마디만 했다고 한다. "어쨌든지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한다."

아마도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명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손을 선뜻 놓지 않았을까. 스님은 그때만 해도 곧 돌아오리라 생각했고, 더구나 아버지는 청류암에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우는 아들에게 그랬다는 것이다. "울지 마라, 내일 네 어머니와 다시 오마."

순진한 14살 소년은 그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다. 행자생활이 시작되면서 매일 암자 뒤 산등성이에 올라가 부모님을 기다렸다. 책을 읽다가도 인기척이 나면 번개같이 달려 나갔고,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쏜살같이 나갔다가 부모님이 아니면 눈물을 훔치면서 돌아섰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3년 동안을 그러셨다니, 어린

단명한다는 말에 14살에 출가
3년만에귀가 "왔니" 단한마디
모친의 담담함에 사문의 길로
별세 전 "보고싶다" 전갈에도
스님은 토굴을 나서지 않았다

나이에 얼결에 헤어져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었겠는가.

"우리 어머니는 희로애락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고 강인한 분이셨어요. 밖으로 나돌며 활달하게 사셨던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지으며 아들 셋, 딸 하나를 키우면서도 큰 소리 한번 내는 법 없었고, 집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체구가 작은 것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농사철은 물론 농한기에도 물레질을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한 번도 한가롭게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어른이 되면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한 번도 청류암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호남 제일의 율사이자 도인으로 소문난 노스님(묵담 스님)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집에 가고 싶다는 소리를 입 밖에 한 번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만 옆에 행자에게 발설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어."

어찌 그 말이 묵담 스님 귀에 들어갔고 곧 노스님 앞에 불려갔다고 한다. 이 장면은 지금도 선명히 떠오르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리얼하다. 묵담 스님은 3년 전 입고 왔던 저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입어보라고 명했다고 한다. 그새 키가 자라 훤히 드러난 팔뚝을 만지면서 말씀했다는 것이다.

"여기 이만큼 드러난 팔뚝이 보이지? 이건 네가 여기 와서 밥 먹고 큰 살이 아니겠느냐. 집에 가려거든 여기 와서 자란 팔을 베어놓고 가거라."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집에 간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고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아버지가 청류암으로 왔고 다음 날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반전이다. 그토록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으로 달려갔을 때, 마침 어머니가 사립문 밖을 나오던 참이었다. 사립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는 마치 어제 나간 자식을 대하듯 한마디만 했다는 것이다. "기남(스님의 속명)이 왔니?"

그렇게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가시더란다. 그 말씀을 하던 스님의 얼굴 표정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몹시도 서운했을 17살 소년의 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보고 싶어 3년 동안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던 어머니가 그렇게 담담하게 대했던 것이 스님에게는 속가에 뜻을 두지 않고 다시 절로 돌아가 정식으로 출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정으로 끌어안아 놓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어머니는 그렇게 위대하다는 생각과 함께.

스님은 며칠을 집에 있지 못하고 고향에서 멀지 않은 불갑사로 놀러갔다가 출가했다. 그리고 그때 집을 나온 이후로 부모님을 찾지 않았다. 치열한 정진 끝에 오도를 하고 문경의 깊은 산골짜기에 허름한 토굴을 짓고 선농일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왔다. 어머니가 평소 앓던 가슴앓이 병이 심해져 병원에 일곱 달째 입원하고 있는데 '막내아들을 보고 눈을 감고 싶으니 데리고 오라' 고 남편에게 애원을 한 것이다.

아무리 담대한 어머니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열일곱 살 이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들이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동안 어머니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집에 있던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 게다가 남편은 두 아들을 앞서 보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에 들어가 출가자처럼 살고 있었다. 얼마나 가슴이 팍팍했겠는가. 그러나 그날 밤 스님은 밤새 생각 끝에 어머니를 뵈러 가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아들을 보면 섶에 불붙듯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더해진 채 세상을 떠날 것인데, 결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갈 수 없다는 자식의 모진 말에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이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내뱉고는 산을 내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은 곧 조카에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받았다. 물론 토굴 밖을 나서지 않았다.

출가해서 공부하려면 부모 형제를 원수처럼 알아야 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고 하셨다. 출가수행자로서는 그것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며, 만약 작은 정에 이끌리게 되면 자기는 물론 부모까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쯤에서 생각해본다. 수행자로서 스님은 그렇다 치고 스님의 어머니는 어떠셨을까. 끝내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은 비정한 아들을 두고 눈을 감은 어머니께선 과연 애착을 끊으셨을까? 그리도 큰 도인을 낳은 어머니셨으니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는 애착을 끊고 천상에 나셨으리라. 냉정하기 짝이 없었던 아들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었던 저 중국의 황벽선사 어머니처럼 말이다.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지극한 도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했겠는가.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어머니로 인해 자식이 세상이라는 장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만, 기묘하게도 수행자에게 어머니는 사랑을 끊는 첫 번째 대상이기도 하다. 어머니 입장에서도 애착을 끊어야 진정한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세상의 어머니들 모두가 애착이 끊긴 순수무잡의 불심으로 돌아가고자 공부하는 것이 최상의 답이 아닐까 싶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남전 호성
주 지 등운

최치원문화관 사부대중 일동

부 주 지 정우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도선 교 무 국 장 혜림 재무국장 덕암
사회국장 함흥 호 법 국 장 등화 포교국장 성민

산하기관 안내

선재어린이집 054) 855-6033
풍기어린이집 054)636-8016
안동청소년문화센터 054)841-2324
의성군노인복지관 054)861-1377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855-7801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 054)841-2324
안계노인복지관 054)862-7900
봉현어린이집 054)637-5179
연꽃어린이집 054)673-09108
영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054)633-6414
고운실버노인요양원 054)833-5900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4)634-3251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633-6415
최치원문화관 054)834-8200
의성지역재활센터 054)833-1225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 www.gounsa.net
Tel 054)833-2324 템플스테이 054)822-6933



▲ 고운사 소장 동자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밀랍초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우수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천연 밀랍 양초, 소이 양초를 개발, 유통중에 있습니다.
소량의 밀납 성분이 함유된 이름만 밀납양초가 아닌 천연 밀랍 100% 로 만든 티라이트 양초, 자갠들(유리병초),
연꽃초와 향료, 색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고 천연밀랍과 파라핀을 혼합한 원기둥, 밀대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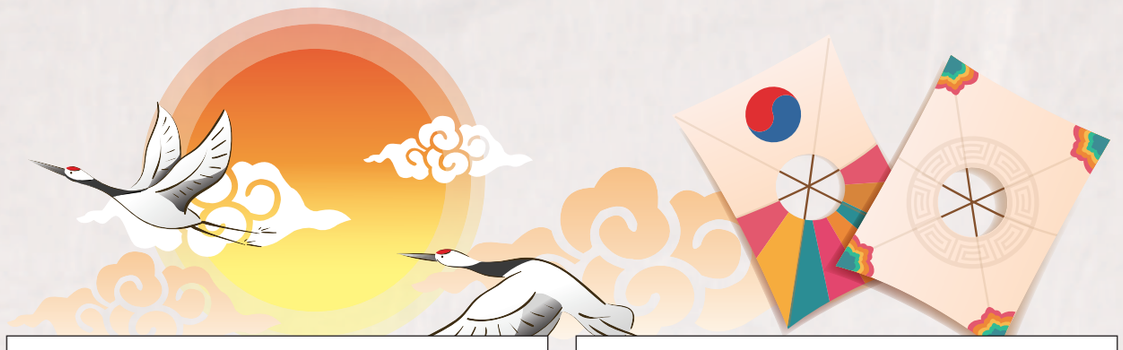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장세철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도학동 35)
Tel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대한불교조계종

기도와 신행의 산실

대응사

주지 현 장

사부대중 일동

경북 청도군 화양읍 양정길 119
Tel (054)371-2887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주지 우록 법륭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3길 6(불로동)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종정 보원 현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1길 5-6 (남방동)
Tel 053)802-4043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는
신행 기도 도량

대원사

주지 현 정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09길 41(학정동)
Tel 053)327-0408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청송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팔공산 여래사

광주 포교당 성거사
부설 : 더 해피로드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467-30(도학동)
Tel (053)983-1979, (062)676-1080,
(062)675-1080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힐링 행복도량 다문화 사찰

대전 광수사

주 지 김무원
신도회장 박병호 합장

신도대중 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63번길 26
Tel 042)823-0332~4
FAX 042)823-6779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진사

이사장 전남정
총 무 김지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Tel 031)591-7710, Fax 031)591-7121

대한불교조계종

왕산사

주지 왕 산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193
Tel 031)533-3245 / FAX 031)553-3246
www.wangs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진산 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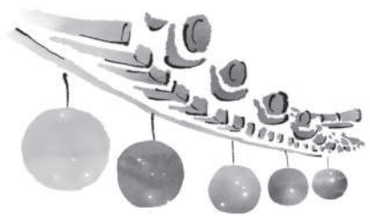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 (남현동)
Tel 02)582-8609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Tel 02)923-0582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흥사

회주 성 일
주지 선 관

대중일동·신도일동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3916, 2695
FAX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음력
초하루 : 신중3일기도
초삼일 : 독성3일기도
16일 : 산신기도
18일 : 지장재일 법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02)988-1996, 9300 / 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천태종

삼 룡 사

신축년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주 지 춘 광
신도회장 김용규

사부대중일동

법회 안내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1시 **법화경 법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2나길 41
Tel 02)496-3839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무상행

사부대중일동

부설 장애인거주시설 녹향원,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 복지관, 의왕시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안양시 대궁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일동

다음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대전포교원

용 수 사

주 지 설 문

통도사대전불교대학
학 장 설 문

사부대중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191 2층
Tel. 042)531-1332
cafe:cafe.daum.net/yongsoosa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323호 | B26 | 전면광고

세계는 다르지 아니하고 부처님은 사랑하고 미워함이 없으시건만 다만 중생이 행과 업을 따라 그렇게 본다.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앞마당까지 진입
- 대지1500평, 개발예정지4000평, 개발된것1500평, 건물 36평 2동, 8평 1동 콘테이너 8평

010-4752-0459
010-4492-3479

토 굴 안 내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 대지 : 104평
- 건물 : 30평(법당, 요사채, 9층탑)
- 전세금 : 3천만원
- 시설금 : 3천 5백만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5평
- 법당 20평, 산신당5평, 요사, 방5개, 건물5개, 화장실2개, 주차공간 많습니다.
- 가액 : 2억 8천
- 부동산 사절

010-7506-8604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1천 5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땅값만 받습니다
- 총 530평, 현재 성업 중
- 법당, 요사채, 공양간, 휴게실, 삼층석탑, 석등 등, 부산 울산간 지하철 역과 5분거리
- 가액 : 6억 2천만원, 스님 직접

010-2702-0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8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2백, 월세15만 권리금3백

010-2204-8375

포 교 원 할 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 2층건물에 2층, 20평, 정남향코너 시장옆
- 보증금 2백, 월 40
- 권리금, 부가세 없음
- 건물주가 협조함

010-5381-14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할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 희망소식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세종시 상가안내

◈ 사찰과 교환도 가능합니다 ◈
정부청사앞 인기 급상승자리

7층(E/V有) 분양138.6㎡
가액 6억(절충가)
융자1억8500, 실가액4억
현재 레스토랑 운영중
(보2천-월138임대중 23년만기)

업종변경가능·임대업최적·투자가치최상급
시세대비저렴함·주인 직거래

010-6892-399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 조 불 교 재 활 용 센 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수강생모집

* 영혼치료 *
* 주역성명학 *
* 최면마스터 *

창원시 성산구 미래운명해법원
010-6586~8289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 • •
010-5736-1835

• • •
행자승 50세 이하, 비구스님 모십니다.
포항 원진사
• • •
010-3517-6099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 • •
010-8721-2198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3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고질적 영가 빙의, 산소탈, 무병 등 단 한번에 제거하는 방법 전수합니다!!

- 단 한번의 전수로 터득됩니다(제령)
- 천도제때 활용하면 쉽게 천도됩니다(천도)
-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체 재앙, 질병이 소멸됩니다.
- 저렴한 비용

문의 010-3514-7084

기도의 신

원하는 대로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더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태장 만다라의 도판.

“만다라, 무상 이치 몸소 체험하는 수행”

실담 범어로 만다(maṇḍa)는 진수(眞髓), 본질(本質), 제호(醍醐)를 의미하고, 라(la)는 성취(成就), 소유(所有) 등으로 해석된다. 만다라를 그리는 목적은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는 최고 깨달음의 본질을 얻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garbha-dhātu-maṇḍala)의 이법신(理法身)과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vajra-dhātu-maṇḍala)의 지법신(智法身)을 양대 만다라라 하며, 모든 만다라는 이 두 만다라를 기준으로 성립된다.

위 사진은 태장만다라의 도판으로, 중대팔엽원을 기준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고, 비로자나부처님으로부터 412존이 안치(安置)된다. 삼업(신, 구, 의)으로 자리이타행을 모두 거두는 것을 수행이라 하는데, 이는 경론 · 시대적 배경 · 각 종파 · 수행법 등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로 분류되지만,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만다라는 무상의 이치를 몸소 체험하는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만드는 이도, 장소와 쓰는 재료도 정화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도 수행(정화된 의식)이지만, 이렇게 완성된 만다라를 관상하는 것은 내 안의 부처를 자각하고 윤회를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 방편이며, 이것을 버리는 것이야 말로 이 수행의 완성인 셈이다.

앞으로 태장만다라와 그것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진언 수행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만다라에는 수많은 존상이 있는데 이들마다 진언이 있으며, 이것을 수지 독송 함으로써 삼매를 이루고, 이 적정(寂靜)속에서 본래심을 유지하는 것을 사마타 즉 무분별지 수행이라 한다면, 이에 대해 위빠사나는 삼매에서의 사유 관찰을 통해 분별지(分別智)를 얻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 수행을 동시에 하는 것을 지관쌍수(止觀雙修) 또는 정혜쌍수(定慧雙修)라 하며, 이를 통틀어 참선 수행 혹은 명상 수행이라 말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① 뇌병변장애인 홍현승 시인

특별한 사람 아닌 도반으로 맞아주길…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은 채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우울감도 이어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눈에 띈다. 온라인 활용을 통한 비대면 법회 등의 확대는 누구보다 장애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올해, 보리수아래 회원들의 이야기를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전할 수 있어 기쁘다. 부처님 품안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불자들의 이야기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중증뇌성마비장애를 가진 홍현승 시인을 처음 만난 것은 어린 현승이 내가 근무하던 사회복지기관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면서부터였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통사람의 쉬운 일상 모든 게 그에게는 벅차고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기에 현승이 역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런 마음으로 불연을 맺었다.

“어릴 적 장애인들 대부분이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들의 종교는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독실한 불자셔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장애인들처럼 타종교로 갔을 거예요.”

홍 시인의 말이다. 홍 시인은 서울 화계사 신도이기도 하다. 아버지에게 일요법회에 데려다 달라고 몇 주를 졸라 화계사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고, 불교학생회와 대학생 법회, 불교대학 2년, 그리고 학생회 포교사를 거쳐 현재 학생회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세월이 어느덧 15년이다.

최근 조계종 내에서도 장애인 포교에 노력하고 불교계 언론에서도 장애인 포교와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기사로 불교계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마음도 전했다. 홍 시인은 “일련의 변화가 대단히 의미있고 반갑다”며 “그러나 변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인식과 태도”라고 강조했다.

“절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너 어디서 왔어?’ ‘너 몇 살이야’ 하며 여기는 네가 올 때가 아니라는 표정으로 대하시거나, 무조건적인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여전히 장애인을 대할 때의 예의를 알고 대하시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홍 시인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는 스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이유다. 홍 시인은 2년 전부터 부산을 자주 오간다. 오랫동안 화계사 학생회 지도법사로 인연이 된 효현 스님이 부산의 절에 거주하고 있는 덕이다. 홍 시인은 “효현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장애인이 아닌 학생회 학생들과 다름없이 대해 주셨다”며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고 때로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신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홍 시인과 함께 효현 스님을 뵈러 간 적이 있다. 신도들이 ‘서울에서 먼 길을 어떻게 오냐’ 며 놀라워하자, 효현 스님이 나섰다.

“아이고, 우리보다 더 잘 다녀요. 역에서도 서비스 다 해주지, 지하철 있지. 길 모르면 스마트폰 찾아서 가지.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스님의 그런 사고방식과 언행은 참 의미있고 중요한 가르침이다. 장애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란 편견을 깬 것이기 때문이다. 홍 시인이 효현 스님을 각별히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모든 장애불자들이 바라는 모습이 그럴 것이다. 장애를 가졌다고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사람의 불자로 대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홍 시인은 IT 회사 직원, 보리수아래 기획홍보팀장, 화계사 학생회 간사 등 1인 다역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홍 시인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먼저 와 닿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장애는 걸림이 아니라 개성이지 않을까? 홍 시인의 바람을 마지막으로 남긴다.

“스님들께서 장애불자들을 바라보실 때 여느 불자와 다름없이 대해주시고, 신도님들께서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으로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더 절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장애에 대한 편견없이 대해주시는 효현 스님과 함께한 홍현승 시인(오른쪽).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나누우리 봉사단
탑밴드 음악봉사단
사부대중일동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전화 062)433-0012

2021 謹賀新年 신축년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
사부대중일동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Tel 063)432-0880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상도선원
회주 미산 주지 혜담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33
Tel 02)815-3391 / Fax 02) 815-0197
네이버 카페 [상도선원]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12월 1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한 '세계붓다자비 평화 봉사대상'

어려운 시기에 고통 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200명의 자랑스런 봉사자들의 대잔치
미국인, 베트남인 봉사자,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종교인들이 총망라된 국제적인 행사가 되어

분에 넘칠 정도로 감격의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자바나눔, 이타행 장려 차원 제정 김동주의원 외 2백명 수상자 선정

김용림님, **김혜옥**님, **김국환**님, **김흥국**님, **장미화**님, **오은주**님, **현당**님, **나운하**님, **이의정**님 **대상 수상**

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에서는 자만하지 않고 중단 없는 일정을 보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고통 받는 이웃에게 헌신적 봉사를 하는
숨은 자랑스러운 인물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국내외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하겠습니다.

- **후진국 빈민촌 공동우물파주기 운동**
- **신뿌출가의식 지원**
- **어린이 교육지원**
- **코리아기술종합대학 운영지원**
- **의료(안과 치과) 지원**
- **의료 약품지원, 생활용품자원**
- **장학 장려금 지원**



국내외 봉사단 활동에 같이 동참하실 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16-0537-9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 023501-04-14758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 023501-04-214874 (예금주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문의 : 02-733-5665 010-3618-6061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한다. 조금은 특별한 계획으로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힐링센터 개소… 마음방역 고품격 강남스타일



정순균
민선7기 강남구청장

2018년 보수 텃밭인 강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처음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정순균 구청장. 코로나19는 그의 구정 일상도 바꿔놓았다.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감염병 관리센터를 세우는가하면, 가능한 모든 분야를 '온택트'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심신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프리존설치에 이어 코엑스, 개포동 등 도심 4곳에 복합힐링치유센터도 개설중이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강남을 품격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구랍 15일에 구청장실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힐링 치유 명상센터 개소 등 살기좋은 1등 강남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새해도 계속 이어질 포스트코로나 전략을 함께 들어봤다.

대담 · 정리=김주일 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Q 2018년 7월에 민선 7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셔서 현재 2년이 넘었습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지난 2년간의 구정을 자체 평가해 주신다면요?

A 지난 2년 5개월은 우리 57만 강남구민들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로 '품격 강남'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강남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강남을 깨끗히 정돈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며 '뉴디자인'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 의미를 담은 스타일브랜드 'ME ME WE Gangnam(미미위 강남)'을 출범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강남의 내적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조금씩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들어서 다시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강남구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23일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하셨는데요. 설립 취지와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 들려주시지요.

A '온택트리더' 강남구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후반기부터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 · 개편하고 호흡기클리닉, 감염병 종합상황실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자외선살균시스템이 설치된 '비접촉 워킹스루' 형태로 설계돼 검사자에게 부여되는 'QR코드'로 대기시간을 없앴는가 하면, 역학조사서 작성부터 의사문진, 검체채취 등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자외선살균시스템과 자동 음압 · 양압제어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안전하게 진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체검사 전 과정을 전산화해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최근 폭증하는 검체검사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Q 환경과 기후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해결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초부터 지역 내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해 주민들이 대기 환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등 강남구의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신걸로 압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또한 임기 후반기에 강남구의 환경 문제에 계획된 사업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취임 초부터 환경에 각별히 신경 써왔는데, 이제 환경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하수관은 정화조의 오수와 하수가 섞여 흘러가 잔류 찌꺼기가 하수구에 쌓여 악취가 풍기는데, 지난해 그 원인을 찾아내 악취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뒷골목 취약시설을 집중 청소해 2019년 서울시민이 평가한 '청결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청담역 지하철 보행구간 650m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고 선릉, 역삼 지하보도와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에도 설치했습니다.

고품격 강남 프로젝트 큰 성과
지자체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설립
미세먼지프리존설치 전반 확대해
올해 스마트 시티 강남 원년 도약
'미미위강남' 통해 부정이미지 불식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버스 쉘터를 설치해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작업도 병행 중입니다. 테헤란로 인근 등 관내 버스정류장 10곳에 '미세먼지프리존 쉘터'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쉘터를 집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강남구의 미세먼지 청정구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특히 야외공간에 쿨링포그, 스마트 이끼타워 등 미세먼지 저감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복합주민쉼터를 조성해 기존의 지하공간 · 도로변 중심의 미세먼지프리존을 주민생활 속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Q 지난해에는 강남 스마트시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강남의 인적자본, 투자환경, 인프라, 혁신 등 스마트시티의 요소를 잘 연결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기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이신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계획을 들려주시지요.

C2면에 계속

정순균 구청장은… 1951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와 부국장을 거쳐,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어 국정홍보처 차장과 처장(2003년~2005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2006년~2008년)을 지냈다. 또한 2012년에는 문재인 제18대 대통령후보 언론 고문을 맡았다.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 22대 강남구청장에 재직중이다.

INSIDE
C3 인터뷰 지인 스님 기쁨정사 주지
C4~5 인터뷰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C6 인터뷰 정영자 통도사 영축문학회장
C7 인터뷰 김유진 불교굿즈 크리에이터

최상 배려는 '自他不二'… '미미위 강남' 핵심 정신

〈자타불이〉 〈ME ME WE〉



강남의 현황을 그래프, 지도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스마트강남 열린 정보공공시스템' 앞에서 강남지역의 교통 치안 주택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정순균 강남구청장.

C1면에서 계속

강남구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지향점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구정 모든 분야의 정보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맛집, 축제 정보 제공부터 민원서비스 신청, 일자리 원서접수, 공공서비스 결제까지 사물인터넷 행정플랫폼 '더강남' 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더강남' 앱을 활용한 24시간 자동 상담을 시작으로 △강남의 현황을 그래프, 지도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스마트강남 열린 정보공공시스템' △'체납차량 알림서비스'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 등 비대면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보행신호 음성안내)' △기상상황에 따라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자동개폐 그늘막' △집중 호우 시, 관내 하천 진입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스마트 하천진입 차단시스템' △여성 1인가구를 위해 CCTV 등 보안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홈 방범서비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에이징 IT센터' 등을 준비 중입니다.

Q 지난해 1월에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이라는 스타일 브랜드를 확정하셨습니다.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ME ME WE Gangnam(미미위 강남)'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뜻입니다. 'ME'를 반복 사용해 '당신은 또 다른 나', '나의 또 다른 모습이 당신'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타인을 너(YOU)로 보지 않고 나와 같은 주체로 인식하는 게 최상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미미위 강남'을 통해 '깍쟁이', '이기주의' 같은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향기 나는 지역공동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실질적인 1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눔을 행해야 하죠. 강남구민이라는 자체가 스스로의 자랑, 또한 부러움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미위'는 나, 너, 우리가 함께하고 배려하는 품격 강남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더불어 살며 베푼다는 의미고 강남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정적 이미지 탈피의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Q 취임 이후 '유리벽 집무실'로 바꾸시고 침실 · 내실 폐쇄를 하신 것은 투명한 행정과 구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물리적인 환경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으로서의 인식과 가치관의 패러다임 전환도 무엇보다 중요다고 생각됩니다. 구민들과의 열린 행정과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A 저는 취임 초부터 '기분 좋은 변화'의 초석이 곧 '소통'이라고 보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선 구청 홈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형식으로 바꿔 온라인상서 다양한 콘텐츠로 구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구청장과 구민이 1:1로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미미위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번의 데이트를 진행해 구민 45분과 대화를 나누고 10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는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저와 이야기를 나누신 후 조금은 마음이 풀어져 돌아가시곤 합니다.

2021년에는 '미미위데이트'를 확대한 '미미위 타운홀 미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정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민관 협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 한 분의 의견이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소통의 기회를 넓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한국명상총협회와 강남구청의 공동 주최로 2019년 10월 서울 강남 '젊음의 거리'서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강남 한류명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참선 명상을 비롯해 요가명상, 피트니스 명상 등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민들에게 어떤 효과와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개최할 계획이신지요.

A 강남구는 2019년 가로수길 도로 위에 천연잔디를 펼치고 한류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해 참여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다양한 명상 체험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가을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음악에 맞춰 명상 전문가와 함께 몸을 움직이고 호흡하며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명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명상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생활명상과 그 효과를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 코로나19로 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하지 못했지만 대신 한국명상총협회장인 각산 스님의 재능기부로 '온라인 명상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힐링센터(개포)'가 올해 4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남힐링센터(개포)는 대지 4472㎡에 연면적 697㎡ 지상 1층 규모로, 개포문화공원 내 기부채납 시설에 마련됩니다.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아카데미실과 셀프체력단련실, 독서명상공간, 숲카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는 '스마트 셀프체력단련실'까지 갖춰져 있어 '도심 속 웰니스' 공간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2022년 11월에는 신사동 가로수길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3층, 지상5층 규모의 '강남힐링센터(신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상에는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고, 지하는 모두 주차장으로 구성해 가로수길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힐링센터(돌산공원)'은 세곡동 산 1-7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 신축예정인 생활체육관 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남구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힐링을 체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은 물질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인 힐링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도심생활에 지친 이들이 누구나 편하게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곳을 구성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Q 강남에는 봉은사와 능인선원 등 대형 사찰들이 많습니다. 취임 이후 봉은사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도 참석하시는 등 불교계 행사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불교와 사찰들이 구민들에게 어떤 대사회화 역할을 했으면 바라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대중법회를 중단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확산 차단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사찰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적인 표본을 보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은 산중이 아닌 도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민들이 사찰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종교활동이 어렵습니다. 이를 기반한 생활 속의 불교가 필요합니다.

강남주민이기도 한 저는 출근하기 전 봉은사와 경기고 인근 보행로를 걷습니다. 보통 1시간에 7바퀴를 돕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께 참배를 하죠. 그런 생활이 20년간 이어져왔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위해 봉은사를 돌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선조들이 선견지명이 있었구나는 것입니다. 강남구 한복판에 봉은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도심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이 찾는 곳에 한국문화 중 하나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것은 강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도심의 사찰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배경' 속 부처님이 전염병과 재난을 만났을 때 보여준 모습처럼 불교계에서 우리 57만 강남구민을 향한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중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A 미래 100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사업비 약 17조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됐는데 지상 105층, 지하 7층, 총5개동에 국제 업무, 전시 · 컨벤션, 공연장, 호텔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125만명의 일자리 창출, 268조의 경제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돼 기술제안 입찰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착공 예정입니다. 환승센터는 연면적 14.4만㎡, 지하 7층 규모의 복합시설에 고속철도, GTX-A · C 노선, 위례신사선, 지하철 2 · 9호선이 들어와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온택트 리더, 포스트코로나 지휘

AI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 예정
온택트 K-POP 공연'도 추진계획
스마트강남 열린정보 시스템 설치
로봇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터

명상, 면역 'up', 코로나블루 'out'

2019년 한류명상페스티벌 첫 개최
각산스님 '온라인명상 토크콘서트'
생활 명상과 큰효과 알렸다는 평가
코엑스 등 4곳에 힐링센터 개설도

구청장 집무실 이모저모



집무실 유리벽에 붙여놓은 포스트잇들. 여기에는 주민들의 민원들을 적어놓았다.



집무실 벽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至誠無息(지성무식: 쉼없이 정성을 다한다)' 현판이 걸려있다.



구청장실에 있는 서가. 혜거 스님이 편역한 화엄경소론찬요 전집이 눈에 띈다.

환우들의 또 다른 의사 '영적돌봄보살'



오랫동안 병원 환우들을 위한 영적돌봄 활동을 펼쳐온 지인 스님은 구랍 15일 전국비구니CPE센터를 열고 영적돌봄 전문가 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로 신년을 맞이했다.

지인 스님
기쁨정사 주지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 불자님 빨리 쾌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몸으로 들어가는 모든 약은 약사여래의 약이 되기를 바라며,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손길로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불교법당 지도법사 지인 스님〈사진〉은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의 손을 잡고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스님은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명 '영적돌봄'이라고 한다. 아울러 스님은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영적돌봄 전문가 교육은 한국CPE협회 산하 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지인 스님은 수퍼바이저 과정 중이다. 구랍 12일 지인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와 함께 전국비구니회CPE센터를 열었다. 새로운 원력으로 신년을 맞이하는 지인 스님을 만난다.

봉사만행을 떠나다

스님이 병상을 찾아 영적돌봄 활동을 하게 된 인연은 2006년 능행 스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스님은 당시 선방에서 안거를 하고 싶었지만 시기를 놓쳐 방부를 들이지 못했다. 스님은 그동안 자신의 공부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에 선방 참선 대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공부를 하기로 했다. 스님이 생각하는 세상공부는 '봉사'였다. 스님이 봉사만행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 찾은 곳은 능행 스님이 계신 정토마을이었다. 스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다. 환자의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일명 '영적 돌봄'의 체계적인 공부,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님은 100일 동안 5명의 임종환자를 돌보면서 난생처음 임종간호라는 병상봉사를 체험했다. 5명의 환우를 떠나보내면서 스님은 생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새삼 공부했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졌다. 스님은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 봉사만행을 떠났다. 소록도였다. 스님은 국립소록도병원으로 향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그곳엔 '불교'가 없었다. 의료진과 봉사진 그리고 환자들까지 모두 타종교 일색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늘 "포교, 포교"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스님은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기왕 나선 길이었기에 스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무언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그 때 환자 한 명이 스님을 찾아왔다. 불자였다. 유일한 불자였다. 그 환자는 승려였다.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센병을 앓게 되어 소록도에 온 것이다. 그 스님은 이미 스님의 신분이 아니었다. 정식으로 환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승려로서의 삶은 어려웠다. 그는 그 안에서 그저 '아저씨'였다. 지인 스님도 그 스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했다. 지인 스님은 아저씨가 그동안 타종교 일색의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마음이 아팠다. 아저씨는 지인 스님이 너무나 반가웠다. 왜 아닐까. 아저씨는 지인 스님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아저씨가 지인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출가자로서의 길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와 있게 된 업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인 스님이 아저씨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책에서 읽었던 '업' 밖에 없었다.

아저씨의 질문이 위로를 원하는 질문이었음을 지인 스님도 알고 있었지만 스님은 앵무새처럼 경전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지인 스님의 답은 아저씨를 전혀 위로할 수 없었다. 그때 지인 스님은 환자를 돌본다는 것, 환자의 마음을 돌본다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 스님은 책 속에 있는 글이나 읽어줘서는 환자의 마음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환자의 곁에 있기 위해선 스님이 아닌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돌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선방에 방부를 들이지 못했던 스님은 처음 떠난 만행길에서 평생 화두를 받았다.

영적돌봄 전문가 양성 CPE

정토마을로 돌아온 지인 스님은 2008년부터 한국CPE협회 소속 센터를 찾아 CPE 기본과정을 시작했다. 그것은 봉사만행길에서 받은 화두였다. 병상의 환자를 찾을 땐 진정한 환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환자가 되는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한국CPE협회는 2007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영적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2004년 가톨릭 신부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 **처음 떠난 봉사만행에서 평생화두 받아**
> **소록도병원서 영적돌봄, 병원포교 원력**
> **서울의료원 · 일산병원서 환우영적돌봄**
>
> **2014년 CPE센터 개설… 50여 명 배출**
> **전국비구니회CPE센터 열고 원력 다져**
> **2016년부터 BBS '거룩한 만남'을 진행**

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를 열면서 시작됐다. 한국CPE협회는 영적돌봄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전문인들과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영적돌봄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CPE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적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영적돌봄에 필요한 사람이 각자의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들을 익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인 스님은 "CPE는 임상의 현장에서 위기에 직면한 중생들의 영적돌봄을 교육하는, 다시 말해 아픈 영혼을 돌보는 보살을 길러내는 전문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말한다.

CPE과정에는 기본과정과 전문가과정 그리고 SIT(Supervisor-In-Training)과정 프로그램이 있다. 슈퍼바이저는 스님들과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 등 종교인이어야 하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병원의사, 간호사, 복지사, 교사, 학생 등 전문성을 익히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인 스님은 현재 SIT과정이다.

나의 법당 나의 병상

지인 스님은 2014년 8월 30일 한국CPE협회 소속 한마음CPE센터를 열었다. 의미 있는 회향이었다. 자신이 받은 교육을 널리 알려야 했다. 스님은 병상을 찾아 환자를 만나는 일 못지않게 영적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즉 보살을 길러내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영적돌봄 인프라가 타종교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는 현실이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아직도 '영적돌봄'과 CPE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현실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기쁜 일이었다. 지금까지 스님이 양성한 영적돌봄 전문가는 출재가자를 합쳐 50여 명에 이른다.

지인 스님은 이제 다시 병상으로 본격적인 만행을 시작한다. 2015년 스님은 서울로 자리를 옮겨 서울의료원불교법당의 지도법사를 맡아 환우들의 영적돌봄을 이어갔다. 그리고 2017년 현재 맡고 있는 일산병원불교법당 지도법사로 자리를 옮긴다.

"병원법당은 사찰이라기보다 환자들을 돌보는 곳으로, 곧 '돌봄'이 전법이 되는, 찾아가는 전법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적돌봄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스님은 그동안 매일 병상을 찾아 환우들을 만나왔다. 자원봉사자들이 병실을 돌며 불자들을 찾아내면 스님은 그 환우들을 만나러 간다.

"어느덧 올해도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없이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다시 2.5단계로 위험수위가 격상되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이별과 같은 고통은 이산가족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지인 스님은 지난해 1년 동안 本紙에 '병상포교일기'를 연재하며 병상포교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BBS불교방송의 이웃돕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며 병원 환우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님의 마음속엔 '환우'들 뿐인 것 같다. 부처님께 귀의한 출가자가 중생의 아픔을 돌보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의사만의 일이 아님을 실천하고 있음이다.

또 하나 회향, 영적돌봄 전문가 양성

"저는 병원법당 지도법사 스님들의 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큰 원입니다. 병원의 시스템을 익히고 영적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스님들을 육성하고 더불어 그런 전문가 스님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자비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저의 커다란 원입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구랍 1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는 한국CPE협회 산하 전국비구니회CPE센터 개원을 알리는 현판식이 있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 앞서 말했듯 지인 스님은 타종교에 비해 많이 뒤쳐진 불교계 영적돌봄 전문가 양성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얼마 전부터는 환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우들을 만나지 못함으로써 얻은 시간을 영적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인 스님은 신년에 새롭게 매진할 불사를 위해 스님 6명과 재가자 3명으로 구성된 승가결사체 '자비실천병원포교단'을 만들었다. 결사체는 CPE센터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영적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결사체다.

코로나로 모두 힘겨운 시절에 '아픔'은 너 나가 따로 없는 일이 되었다. 환우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 역시 이제 너 나가 따로 없는 일이다. 지인 스님의 영적돌봄 불사가 원만 회향하기를 바란다.



구랍 12일, 전국비구니회CPE센터 현판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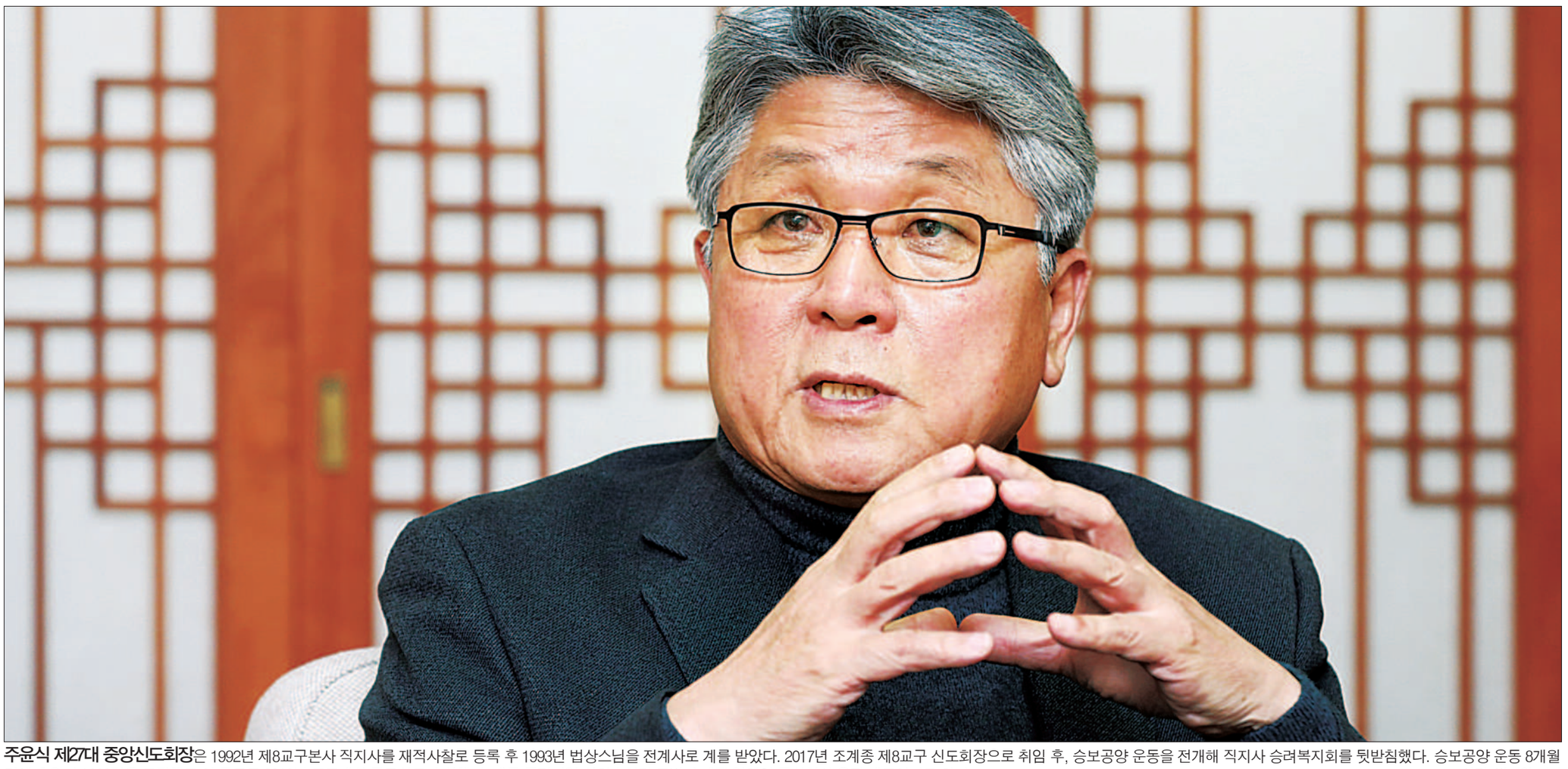
지인 스님이 환우를 찾아 영적돌봄을 하고 있다.



지인 스님은 2016년부터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을 진행해왔다.

지인 스님은

청암승가대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 대학원 불교상담학 석사를 마쳤으며 현재 한국CPE협회 슈퍼바이저 과정 중이다. 한국CPE협회 기획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마음CPE센터와 전국비구니회CPE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울의료원불교법당 지도법사를 지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와 기쁨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2014년부터 KINHA(HIV/ AIDS를 위한 한국 범종교 모임) 운영위원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불교사회복지 유공자로 선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은 1992년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등록 후 1993년 법상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았다. 2017년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승보공양 운동을 전개해 직지사 승려복지회를 뒷받침했다. 승보공양 운동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명을 모집했고 이 공로로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도 수상했다. 대구 중견기업 상하수처리 교반기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기도 하다. **사진=박재완 기자**

"신도 정보 디지털화, 최우선 과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10월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조촐한 취임식이 열렸다. 바로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법명 덕산)의 취임식이었다. 100여 명의 대중만이 모인 자리였지만 이날 취임식에서 주 신도회장은 불교 중흥을 위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2021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취임 후 90여 일이 지난 구랍 23일, 새해를 맞이해 주 신도회장에게 신년 계획과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Q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취임하시자 마자 코로나19 대응부터 연말로 잡힌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등 다양한 업무에 놀라시기도 하셨을텐데요. 숨가쁜 한 해였다고 보입니다. 제27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지낸 2020년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민들이 모두가 놀랐던 한해였습니다. 저는 대구사람이기에 코로나19가 더욱 체감이 됐습니다. 국가와 세계에 혼란이 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신도회장을 맡게됐습니다. 그동안 교구신도회장을 맡다가 중앙신도회장을 맡으니 조직 크기나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 한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행결사에도 참여하고 2020년 한해는 정신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교구신도회장을 하면서 3년 반 가량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참여했는데, 수동적인 참여에서 회장을 맡고 보니 이 자리가 그냥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통감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Q 중앙신도회 65년 역사에서 교구신도회장 출신으로 처음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난 집행부에서 구성된 전국 교구신도회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교구신도회 조직화와 활성화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25 · 26대 회장을 지내신 이기흥 회장님이 많은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중 신도들의 조직화와 역량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흥 前 회장님이 자갈밭에서 논밭을 일궈놓으셨다면 그 터에 뿌려진 씨가 잘 크도록 하는 것이 남았다고 봅니다. 교구신도회장을 할 때와 많은 차이를 느끼는데 근본적으로 중앙신도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구신도회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구신도회가 잘되려면 말사신도회도 잘 되어야죠. 열악한 교구신도회의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신도 네트워킹 결집의 방편
상부 상조하는 공동체 구성
행복바라미 · 승보공양 집중

교구신도회들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교구신도회장들과 소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서로 지금까지 만나서 생기는 소통 뿐만 아니라 일을 같이 하거나,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소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신도회를 맡으면서 2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선대들이 해온 사업, 특히 행복바라미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자리를 잡는 것과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종단이나 불교계가 원하면서 못했던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신도회가 약했던 것은 재가불자들의 힘이 모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함께 재가불자의 본분을 다하자'는 명분 하에 쉽지 않지만 불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나서고자 합니다.

역량을 모으는 데는 재가불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종교라는 동질성 하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상부상조하는 틀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불자들이 하는 일을 행정구역별로 정리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앱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불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가령 사과를 사려고 한다면 불자기업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틀을 만들어 주면 불자로서의 큰 틀이 되고 본연의 역할인 승보공양, 자비나눔 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명의 불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체제가 잡힌다면 불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디지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신도회 내부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각종 의사결정에서 원격 결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기간을 거쳤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Q 전 집행부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불자들의 신심고취와 대사회적인 기여에 나섰습니다. 신임 집행부 또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행복바라미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와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바라미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당초 4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10만여 명이 운집하는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108개 사찰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찰에서 시간과 장소를 떠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큰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C5면에 계속

謹賀新年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전국 모든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대중일동





구랍 12일 열린' 온택트 2020 서울붓다페스티벌—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금강경 독송정진' 에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3주간 참여한 500km의 만행결사 소감을 전하는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지난해 10월 6일 조계종 대웅전에서 열린 중앙신도회장 이취임식에서 신도회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C4면에서 계속

사찰과 신행단체가 함께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08개 사찰 외에도 유튜브 등을 보면서 동시법회, 동시기도 등을 하면 그 것 자체로 불국토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디지털화 등을 화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교계는 사실 외부의 시대변화에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스님들이나 사찰이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있었다. 눈물겹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것말고도 불교 곳곳에서 다양한 포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 등에서 신행정보 등을 찾고 법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 등을 자막과 해설 등을 곁들인 콘텐츠도 많습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 뿐만 아니라 불교계 행사들을 언택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노하우를 더욱 쌓아야 겠습니다. 한 사찰에서 법회를 연다면 전국 사찰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Q 교구신도회장으로 계시던 직지사는 2017년 승려복지회를 창립하고 교구 스님들을 위한 승려복지를 구체화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승보공양 운동이 승단 고령화를 맞는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가불자의 최소한의 의무는 승보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최소한의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사공양(事事供養) 중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면 의약, 즉 의료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종단 차원에서 승려복지회가 만들어지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도움을 받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스님들이 완전한 의료복지까지는 혜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수술을 하게 되거나 장기치료를 하게 되면 안타까울 정도로 방치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누가 출가를 하겠습니까.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러 나섰는데,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분을 알고 다 하려고 하는 그 것이 사부대중이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구신도회장 당시 녹원 큰스님의 생전 법문에서 가슴이 뻥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가불자가 깨어있어야지 불교가 산다' 는 말씀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도리를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불교를 외호하고 삼보호지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그런 의무에 대해 얼만큼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Q 각자의 사업, 직장에 종사하면서 신도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교구신도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불교와의 인연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젊었을 적에 집 주변에 조그만 포교당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니게 됐는데, 불교라는 인식도 없었고, 하나의 신앙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게 된 스님께서 저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지어주시고, 공장 이름도 지어주시고, 착공때는 불공도 해주셨습니다. 출재가를 떠나 형님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스님이 일찍 열반하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투병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스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인연의 진중함에 오히려 스님들과 인연을 맺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연구소가 구미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문득 연구소에 출근하는데 출근길에 있던 법당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법당에 앉아서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회사에 가면 일이 잘되는 것 같았습니다. 구미 도리사였는데 스님 한 분이 토요일이 되면 공단의 맞벌이 가구 아이들을 거두어서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아이들

구미도리사 육아교실서 불연
불자 본분이 '불교중흥' 확신
법등 스님 언행에 감화 받아

승보공양 10만 8천배로 발원
8개월 만에 목표치 초과달성
"불자역량 모으면 충분히 가능"

을 차로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이고 절에서 놀게 하는 '소나무야 놀자' 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담당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하고 아이들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났습니다. 한번은 그 절에 조금 늦게 가서 저녁공양을 먹고 있는데 그 절 회주이신 법등 스님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차 한잔 하고 가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주를 한 것을 들으신 모양이셨습니다.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오체투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보고 절수행을 하자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절에 가게 됐습니다. 절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마음을 내서 1주일간 절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하루 1000배씩 108일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절도 하고 남는 시간에 불교 책도 보고 스님들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불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아! 불교는 기복이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구나' 라고 불교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신도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법등 스님은 교구장 스님이셨는데 교구신도회장을 맡아줬으면 하셔서 '저는 하면 안 됩니다. 잘 할 줄도 모르고 말사신도회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님께 누가 됩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누는 아프리카에 있는거다' 고 딱 잘라 말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Q 평소의 신행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중앙신도회장을 맡고 나서 신행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특별할 것이 없고 절수행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걷는 것도 많이 합니다. 걸으면서 사색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신도회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구신도회장이 됐을 때 사실 얼떨떨했습니다. 교구신도회 구성인데 교구신도회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교구신도회장 취임 첫해에 교구장 스님께서 직지사 승려복지회를 구성했습니다. 종단 승려복지회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교구신도회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해 가을에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니 낯이 뜨거웠습니다.

회의에 처음 참석해보니 재원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급여 부분 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장기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6년 뒤에는 막막하다는 말과 스님들이 스스로의 노후에 걱정이 많고, 나서시는 모습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승려복지회에 일정 금액을 출연을 하고 생각해보니 승보공양은 신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회의적으로 봤는데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님들 승려복지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3000명만 모아서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면 1억이 넘는다. 60개 사찰에서 각각 평균 50명을 모으면 3000명이다. 탁발하는 스님들을 십시일반 공양올리듯이 해보자' 고 했습니다. 승보공양 3000명 동참 발원 1000배 기도를 신도회장들과 하고서 8개월 만에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불자들이 엄청난 신심을 갖고 있지만 힘을 모으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불교신도층이 더 두꺼워지고, 넓게 만들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Q 주 중앙신도회장님의 인생의 좌우명이나 혹은 스님들로부터 감명받은 법문, 혹은 삶의 철학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신 스님들은 행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법등 스님께서는 사찰관리에서부터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절을 하나 운영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교구본사는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큰스님이 되면 오히려 편하게 지낼줄 알았습니다. 교구장을 할 때 보면 일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스님은 매일 망원경을 들고 기와지붕을 점검했습니다. 물이 새면 기와지붕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가며 매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방댐 준설 때도 직접 포크레인 끌고 오게해서 작업지휘를 했습니다. 팔다리 걷어붙이고 대소사에 직접 나서는 것을 보면서 행화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Q 끝으로 2021년은 희망의 한해로 불러도 될 만큼 코로나 극복과 국운 융창을 바라는 불자들의 마음이 큽니다. 새해를 여는 희망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해는 힘든 한해였습니다. 지금도 막연하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불교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재가자가 먼저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신도회장 취임 후에 만행결사에 21일간 동참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고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스님들께서 앞장서는 것을 보며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면 불교 중흥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 없다는 말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코로나도 극복이 되고 새로운 가치가 다가 올 것이라 봅니다. 모든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 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과 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 격	전형요강
空 기본 (1년)	【화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학력,종교 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 면 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2학기	• 명상(이론, 실기병행)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성격심리학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학기	• 자비명상		
요 가	【화요일】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 수

■ 수강료 : 1학기당 17만원 ■ 교과배정 비율 : 이론70%, 실기30% - 불교교리 30%, - 심리상담 40%, - 명상 30%

분당 대광사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 715-3000 / (FAX) (031) 715-3409

“내 과업, 문학에 불교담아 널리 알리는 것”



정영자 영축문학회 회장은 2010년 성파 스님과 함께 전국문학인 꽃축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9년 영축문학회 창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사진은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합장 하고 있는 정영자 회장.

정영자
통도사 영축문학회장

글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전국문학인 꽃축제위원회 발족시켜
서운암 들꽃 축제와 문학 연결 포교
2010년부터 꽃관련 시 2449편 소개
영축문학회 창립으로 영축문화 확대
한국여성문학연구 1세대 문단 원로
신라대교수 부산문인협회장 등 역임
작품 10여 편을 시극 등으로 발표해
“불교와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게 꿈”

매년 봄이면 통도사 서운암은 온통 꽃세상이다. 매년 열리는 서운암 들꽃국제는 대표적인 사찰꽃 축제 중 하나다. 서운암 주변 100만여 평에 조성된 꽃밭에서는 유채꽃, 할미꽃 등 100여 종의 야생화를 볼 수 있다. 2010년부터는 축제기간 동안 꽃을 시제로 한 시화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통도사는 2010년 전국문학인 꽃축제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의 시인들을 통해 꽃을 시제로 한 시를 공모했다. 그렇게 공모된 시들을 시화로 만들어 꽃과 함께 전시했으며, 시집으로도 발간했다. 꽃과 문학을 활용한 새로운 포교다. 그렇게 서운암 꽃밭에 걸린 시는 지금까지 2449편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2019년 통도사는 꽃과 문학을 이용한 포교를 서운암에서 통도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영축문학회를 창립했다. 문학의 장르를 소설, 수필 등 문학 전반으로 확대했고, 소재를 통도사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확대했다. 그렇게 공모된 작품들은 〈영축문학〉을 통해 발표하고 매년 영축문학상을 시상한다. 문학과 자연, 사찰을 연계한 통도사만의 포교라고 할 수 있다. 그 불사의 중심에는 영축문학회 초대 회장 정영자 작가가 있다. 정 회장은 2010년 성파 스님의 도움으로 전국문학인 꽃축제위원회를 출발시켰고, 영축문학회 창립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구랍 17일 정영자 회장(80)을 영축문학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 최초 여성문학연구가와 통도사

통도사가 자연과 문학을 활용한 포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영자라는 문학가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한국여성문학연구의 1세대 작가로 한국여성문학을 최초로 정리한 문단의 원로다. 신라대 교수와 부산문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정 회장은 문단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사회 전반이 남성을 중심으로 했던 시대를 살면서 크게 조명 받지 못했던 여성의 문학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정 회장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시대상에서 볼 때 결코 평범한 학력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시대에서도 정 회장의 집안은 그런 시대상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었다. 부친의 열린 사고 덕분에 정 회장은 ‘남 · 녀’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정 회장은 깊은 학문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시대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확고한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

정 회장이 당시에 조명 받지 못하는 우리 여성문학을 조명하고 정리하고 발전의 장을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는 그의 시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정 회장은 최초로 우리의 여성문학을 연구해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학에서 〈한국현대문학사〉를 강의하며 남성문인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 문학사에 여성문인들을 발굴해 우리 문학사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1978년 〈김남조론〉을 시작으로 〈허영자론〉(1983), 〈강신재 소설연구〉(1984), 〈박화성 소설연구〉(1985), 〈강경애 소설 연구〉(1985), 〈최정희 소설 연구〉(1986), 〈노천명 연구〉(1986), 〈홍윤숙론〉(1986), 〈김말봉 소설의 양면성〉(1986), 〈모윤숙 시의 연구〉(1986), 〈김일엽 문학 연구〉(1987), 〈오정희론〉(1987), 〈나혜석 연구〉(1987) 등 그의 성과는 모두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이어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이 정리해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시시했어요. 새로운 분야는 힘겹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여성문학인을 연구하는 것은 무덤에서 그들을 불러 이름표를 하나 씩 붙여 세상에 다시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 회장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부산여성문학사〉도 정리했으며 시집 〈자화상〉과 그동안 전국 고찰을 방문하고 지은 시를 모아 시집으로 발간할 계획도 있다. 정 회장의 가장 큰 원은 무엇보다 문학이 좀 더 많은 대중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의 중요한 키워드가 ‘불교’다.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알려서 알도록 하는 것은 계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 회장은 2008년 이후 10개가 넘는 문학 작품을 시극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작품화했다. 그 중에 2019년 3월 발표한 〈훈민정음과 신미대사〉는 영화 〈나랏말싸미〉보다 4개월 앞서 시극화돼 발표됐다. 또 부산역사의 시작을 가야 시대 장산국으로 보는 내용을 시극과 뮤지컬로 발표해 공연하기도 했다. 정 회장 문학은 3가지 큰 축으로 정리된다. 비평가로서의 문학, 시집과 수필집 등 꾸준한 창작 활동 그리고 여성문학과 여성문학사 연구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불교가 있다.

오래된 문학, 오래된 불연

정 회장은 1940년 남해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성장했다. 남해와 통영의 어린 시절은 정 회장 문학의 원천이다.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언덕 위 뽕나무 숲길, 복숭아나무 가득한 과수원, 창호 너머 보이는 나무들과 바다, 그리고 떠다니던 배 ….

정 회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충무시 문화단체와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중 · 고등학교 시 백일장에서 장원했다. 정 회장은 그 때 국문과로 진로를 정했다. 정 회장의 문학이 그렇게 시작됐다면 정 회장의 불연은 숙연이라고 할 수 있다. 정 회장의 말에 따르면 정 회장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불교와 실학에 인연이 있었다. 정 회장의 부친은 국보 1호 숭례문과 세종대왕 당시 내불당(궁궐 안 법당) 건립을 감독한 정분(鄭苯)의 18대손이다. 부친은 정 회장의 정체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천’과도 같은 부분이다. 그 영향은 지금도 정 회장의 마음과 정신에 면면히 살아 있다. 부친이 물려준 것 중에는 ‘새벽’이 있다. 부친은 새벽이면 일어나 차를 다리고 한시를 읊고 불교경전을 읽었다. 어린 정 회장은 새벽이면 부친의 차향을 맡으며 잠에서 깼고 자연스럽게 책을 잡았다. 그래서 정 회장은 어릴 때부터 새벽 2시면 일어났다. 누구보다 이른 새벽에 깨는 건 오래된 습관이다. 홀로 고요하게 머문 시간은 자신의 에너지를 채우고 깨우는 근원이 됐다. 그렇게 정 회장은 새벽 홀로 있는 시간에 니체를 만나고 톨스토이를 만나고 부친의 독경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정 회장의 성장에는 불가적 정서가 깊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이 시대를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라고 했다.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고통을 마주하는 지금, 작가들은 고독의 힘으로 풀어 낸 희망의 글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공업(共業)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이라고 했다.

불교 · 문학 세계로

정 회장은 현재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학회 회장이자 한국문인협회 고문,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명예 이사장이다. 정 회장의 발자취는 도전을 통해 개척의 길을 닦고 문학인들의 미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것이 영축문학회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축문학회에 대한 정 회장의 꿈은 원대하다.

“문학에 우리 불교를 담아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우리 문학과 불교를 알려야지요. 한류의 한 축이 되어야지요.”

영축문학회 탄생의 첫 발은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권유에서 시작됐다. 서운암 들꽃축제 때 전국 문인들의 행사를 열어보자는 것이었다. 신라대 교수 퇴임 후 부산문인협회 회장으로 정 회장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정 회장의 마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성파 스님의 안목이 남다른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불사를 말씀하셨을 때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술과 문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문학인의 무대를 함께 만들자는 권유는 기쁨이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저에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꽃을 주제로 전국 시인들의 시를 받아 시화를 걸고 시집을 발간했다. 이제 서운암 들꽃국제는 서운암 전국 시인들의 잔치다. 해마다 245편의 시가 모였고 10년 동안 2449편의 시가 서운암 경내에서 전시됐다. 꽃 시집은 지금까지 총 10권이 발간됐다. 올 4월 24일에도 250명의 문인들이 작성한 꽃 시는 서운암 경내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시집도 출간될 예정이다.

전국문학인 꽃축제운영위원회는 2019년 통도사 영축문학회의 모태가 됐다. 영축문학회는 시와 소설, 산문 등 모든 장르의 문학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회원은 이미 300명을 넘었다. 통도사를 주제로 전국의 문인들이 참여해 출간한 〈영축문학〉 창간호(2019)에는 130여 명의 회원이, 2020년 2집에는 163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배경이고 주제인 문학작품만 300편이다. 문학사에도 불교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도 2년 만에 만든 결과이고 성과다. 정 회장은 “앞으로 영축문학회의 내실을 더욱 단단히 해 통도사와 불교를 주제로 영축문학회를 전국에서 최고 문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년의 첫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불교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주제는 전 세계 문학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새로운 장르로 멋지게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축문학회를 통해 통도사도, 불교도 우리 문학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9일 열린 영축문학회 현판식.



한국여성문학을 최초로 정리한 정영자 회장.

정영자(鄭英子) 회장은

1940년 남해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성장했다. 1980년 〈현대문학〉 평론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졸업 후 신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부산광역시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창립 회장(1993) 및 설립이사장(2005), 문학계간지 〈여기〉 창간(2004) 발행인 및 편집인(48호 발간)이었다. 현재 편집고문이다. 현재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학회 회장(전국문학인꽃축제운영위원장), 한국문인협회 고문, (사)부산여성문학인협회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1987년 한국문학평론가상(한국평론가협회), 1994년 부산시 문화상 (부산광역시), 1997년 한국비평문학상 (한국비평문학회) 등 다수 수상했으며, 〈한국문학의 원형적 탐색〉(문학예술사, 1982), 〈현대문학의 모성적 탐색〉(제일문화사, 1986), 〈한국현대여성문학론〉 (지평, 1989) 등 문학 평론집 21권과 수필집 21권, 시집 16권, 평전 1권, 창작시극집 1권, 저자활동집 1권 등 총 61권의 저서가 있다.

“2600년전 부처님 얼굴에 헤드폰 씌웠죠”

위즈덤하트
(김유진 크리에이터)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크리에이터 위즈덤하트(김유진)는 구랍 15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부처님 얼굴을 디자인한 불교굿즈 ‘붓다티스트’ 펀딩을 론칭했다.

“왜 트렌디한 불교 굿즈는 없을까. 힙한 불교 굿즈는 없는 걸까.”

구랍 15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불교 굿즈’ 펀딩이 론칭됐다. 굿즈의 이름은 ‘붓다티스트’, 론칭한 크리에이터의 이름은 ‘위즈덤하트’ <사진>이다. 스마트폰 케이스, 에어팟프로 케이스, 생활방수 에코백, 미니포스터 등 2030세대를 겨냥한 각각의 굿즈에는 부처님이 헤드폰을 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이제까지 없었던 ‘힙’한 불교 굿즈다. 굿즈에 그려진 일러스트 역시 위즈덤하트의 작품이다. ‘붓다티스트’ 제작자 위즈덤하트(Wisdom Heart)의 본명은 김유진(34)이다. 위즈덤하트는 김유진 씨의 법명인 지혜심(智慧心)에서 왔다. 그리고 굿즈의 브랜드명 ‘붓다티스트’는 붓다(Buddha)와 아티스트(Artist)를 합친 단어다.

헤드폰 쓴 부처님

위즈덤하트는 평소 타종교의 젊은 신자들이 여러 굿즈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는 데 비해 불자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늘 아쉬웠다. 절마다 ‘불교용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불교를 느낄 수 있는 물건이나 매개체는 많지 없는 게 현실이다. 위즈덤하트가 불교 굿즈 펀딩을 결심하게 된 이유다. 그래서 위즈덤하트는 기존의 ‘불교용품’에서 벗어난 좀 더 힙한 감성의 불교 ‘굿즈’를 만들고 싶었고, 그것을 대중에게 전하고 싶었다.

누가 봐도 부처님 얼굴인데, 부처님은 당신 시대에는 없었던 헤드폰을 쓰고 있다. 위즈덤하트는 2천6백 년 전의 부처님 얼굴에 헤드폰을 씌웠다. 꾹 눌러 감은 눈 너머로 경쾌한 팝음악이 흐를 것 같고, 앙다문 입가엔 알 수 없지만 알 것 같은 이야기가 있다. 2천6백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처님 얼굴과 ‘Buddhatist’라는 글자가 에코백과 스마트폰 케이스, 에어팟프로 케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붓다의 개념을 얹히고 싶었어요. 제게 붓다는 신(god)이 아닌 깨달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 철학자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붓다는 철학자면서 동시에 아티스트에요. 기존의 철학이나 예술(음악, 미술, 사진, 글)에서 또 다른 사상이 탄생하고 또 확장되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글, 문구, 문장이 되어 다른 이에게 깨우침을 주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예술’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부처님을 아티스트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없던 생각이다. 불교 굿즈.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불교용품’의 또 다른 이름, 진화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껏 불렀던 ‘불교용품’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았던 ‘물건’, ‘용품’이었다면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는 ‘물건’에 디자인을 입혔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그래픽적인 요소와 더불어 불교적 시그니처를 함께 지니고 있어 다른 디자인과는 다른 의미의 디자인이다. 그동안의 불교용품이 절 안에서 파는 ‘용품’이었다면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는 절 밖으로 나온, 그리고 절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굿즈’다.

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 펀딩은 이미 목표 금액인 5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알게 모르게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펀딩은 성공이다. 비록 이번 펀딩은 펀딩자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리워드펀딩이지만 위즈덤하트는 이제 자신의 굿즈와 불교를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과 에어팟프로, 에코백은 젊은 세대들에게 물과 공기 같은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에어팟프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고 있는 상품이다. 비록 이번 펀딩을 통해서는 소수의 펀딩자들에게만 돌아갈 굿즈이지만 그것은 작은 시작이 아니라 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많은 상품에서 부처님의 얼굴이 그려진 디자인을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꼭 위즈덤하트의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가 더 많은 불교 굿즈에 대한 모색과 시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는 작지만 소중한 ‘시작’이다.


위즈덤하트의 불교굿즈 ‘붓다티스트’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 ‘불교 굿즈’ 론칭해
펀딩 목표금액 50만원 초과 달성 펀딩 성공

스마트폰, 에어팟 프로 케이스, 에코백 등에
헤드폰 쓴 부처님얼굴 일러스트 디자인 입혀
영어 ‘위즈덤 하트’, 4살때 받은 법명 ‘지혜심’
2021년, 홈페이지 개설 불교 그림 알릴 계획

본명 같은 법명, 지혜심

위즈덤하트, 그는 왜 전 인류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의 케이스에, 전 세계적인 브랜드 에어팟프로에, 젊음의 상징과도 같은 에코백에 부처님 얼굴을 그려 넣고 싶었을까. 그에게 부처님이란 어떤 의미일까. 서두에 밝혔듯이 위즈덤하트라는 이름은 법명 ‘지혜심’의 영어 버전이다. 김유진 씨는 그 법명을 네 살 때 받았다. 네 살, 분명 본인의 의지로 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심’은 웬만한 불자라면 하나 쯤 가지고 있는 법명과는 다른 의미의 법명이다. 대부분의 불자들 법명이 ‘받은 법명’이라면 김유진의 지혜심은 ‘정해진’ 법명 같은 것이다. ‘절에 가서’ 받은 법명이 아니라 ‘절에서 있어서 받은’ 이름이다. 어쩌면 김유진의 삶은 네 살 때 그 이름과 함께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혜심’은 본명 같은 것이다. 자신을 이야기할 때 시작되는 이름은 지혜심인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김유진보다는 지혜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지혜심으로 살았던, 지혜심으로 살고 있는 그녀에게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모국어와 같은 ‘언어’이고, 가지고 태어난 ‘웃음’이고 ‘눈물’이고 ‘기침’이다.

‘붓다티스트’ 비긴즈

성인이 된 지혜심의 첫 직장은 BBS불교방송(이하 불교방송)이었다. 그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불교방송 기획홍보부에서 일했다. 그녀는 2016년 여름, 자사 프로그램에서 스님들이 랩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된다. 그녀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담당 PD에게 연락해 영상을 받아왔다. 당시 기획홍보부 소속이면서 동시에 뉴미디어 TFT멤버이기도 했던 지혜심은 그 영상을 ‘쇼미더붓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틀 뒤 ‘쇼미더붓다’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이 공개됐는데 ‘대박’이었다. 무려 1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제가 그 영상을 당시 다니던 회사 소셜 계정에 올리고 싶었던 이유는 일반 대중에게 불교를 새롭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꼭 법문이 아닌 랩으로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불자들은 불교를 조금은 어려운 종교로, 조금은 지루한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붓다티스트 ‘비긴즈’다. 지혜심이 불교방송에 근무했던 시절, 그녀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불교일러스트 작가들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롭게 올라오는 불교일러스트를 보는 것이었다. 위즈덤하트가 불교굿즈를 만들고 펀딩을 론칭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2016년 불교방송을 그만두고 불교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 지금은 IT계통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렇게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이다.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서양철학을 공부하는 스터디모임에 가입하게 됐다. 모임에서는 ‘감정 글쓰기’라는 코너를 진행했는데, 각자의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그 이야기를 기술하는 시간이었다. 지혜심은 그 ‘감정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림’은 그녀에게 잠들어 있던 ‘재능’이었으며, 잠들어 있던 꿈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그 길을 꿈꿀 수 없었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혜심은 바로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펼쳐보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금 “내가 진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리는 그림 중에는 부처님이 많이 등장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 그리는 그림은 여지없이 ‘부처님’이었다. 헤드폰을 쓴 부처님도 그렇게 그려졌다.

그리고 어느 날, 지혜심은 와디즈가 디자이너 작가를 모집한다는 펀딩 공모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된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거다’ 생각했고, 평소에 그려놓았던 부처님 얼굴 그림 한 장을 급하게 보냈다. 종이에 연필로 그린 일러스트 딸랑 한 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냈다. 구체적인 굿즈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한 장의 그림으로 충분했다. 그 그림 한 장엔 많은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작가로 당선됐고 펀딩은 시작됐다.

불교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지혜심

지혜심의 2021년 신년 계획은 홈페이지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 홈페이지를 연 그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교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지혜가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왜, 부처님이 그려진 가방을 메고 교정을 걷는 학생들을 볼 수 없을까.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의 스마트폰 케이스 중에 부처님 캐릭터는 왜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자신의 종교를 필요 이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이나 불교를 소재로 디자인한 물건이나 그림들을 보고 싶었어요.”

지혜심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혜심이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매일매일 부처님 그림을 그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왜 부처님 얼굴을 그리고, 불교의 지혜를 담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굳이 말한다면 아빠가 좋은 이유, 엄마가 좋은 이유와 비슷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심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그림 속에는 늘 부처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즈덤하트(김유진)는
인하대학교에서 역사와 언론정보학을 전공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다. BBS불교방송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IT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0년 12월 15일 와디즈에 불교굿즈 ‘붓다티스트’ 펀딩을 론칭해 펀딩에 성공했다.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 산옹**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사부대중일동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 인 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연암 현응 대화상**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지원장 **혜 근**

건강한 신축년이 되시길 발원합니다.

사부대중 일동

